

II

문헌조사 자료

2.1 철원군

2.2 포천시

2.3 연천군



행정자치부

접경지역 한탄강 인문자원 발굴

2.2 포천시

2.2.1 포천의 역사적 배경

포천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 좋은 자연 환경을 이루고 있다. 일찍부터 선사 인류가 터전을 잡았고, 삼국 시대에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고려 시대 이후에는 양주와 더불어 농업과 교통,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구한말 의병이 활발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6·25 당시 남북의 격전지였던 포천은 오늘날 지난날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관광·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처럼 굴곡진 역사적 삶의 현장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1) 시대의 포천

1) ·신석기 시대의 포천

포천 지역은 한탄강을 따라 서북 지역 또는 한강 하류 지역과 연결되고, 추가령 지구대를 따라 동북쪽으로 주민의 이동로가 펼쳐져 있다. 사방으로 교차적인 위치에 있어서 문화적인 교류가 많았다는 것이 선사 시대의 문화상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포천의 선사 문화는 한강의 상류 지역과 서해의 도서 지역, 동해안의 선사 문화들과 공통되는 점이 있다.

포천 지역은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구석기 시대 유적은 주로 한탄강·영평천·포천천 유역을 따라 분포하는데, 선사 시대 사람들이 수량이 풍부하고 평야 및 구릉지가 교차하는 곳에 주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탄강 유역의 포천시 관인면 중리 문배뜰 유적·중리 늘거리 유적·중리 아랫심재 유적을 비롯하여 사정리 화적연 유적, 자일리 팔호 유적, 운천리 오호 유적 등은 임진강 유역의 전기 구석기와는 달리 후기 구석기 시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 포천천 유역의 포천시 신북면 금주리, 포천동 어룡리 유적, 영평천 유역의 영중면 양문리·성동리·신장리와 창수면 오가리 유적 등이 조사되었다. 유물로는 여러 면 석기·굽개·찍개·밀개·주먹 도끼 등이 출토되었으며, 중리 늘거리 유적에서는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를 포함하여 약 1만 2000점이 출토되어 연천 전곡리 유적과 비교할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석기 시대의 유적은 포천 영송리 선사 유적을 들 수 있다. 포천 영송리 선사 유적에서 빗살무늬 토기 조각이 수습되었고, 이 토기 조각들은 서해안 조개더미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하여 서해안 빗살무늬 토기인들이 임진강과 한탄강을 따라 내륙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포천시 관인면 중리 유적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양의 빗살무늬 토기 조각이 나왔다. 포천 영송리 선사 유적에서는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유구(遺構)도 발견되었다.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로는 고인돌, 청동 검, 간 돌도끼, 반달 칼, 민무늬 토기 등이 여러 곳에서 보고되었다. 고인돌은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자작동, 일동면 수입리·사직리·기산리, 가산면 금현리·방축리, 소흘읍 송우리, 신북면 만세교리 등지에 산재해 있다. 이들

1) 이하의 서술은 『포천군지 上 - 현대사회』(포천군지편찬위원회, (주)경기출판사, 1997)을 중심으로 발췌 하였으며, 기타 참고문헌은 해당 내용에 따로 표기한다.

고인들은 개석식과 탁자식이며, 작은 개울을 끼고 있는 낮은 구릉 끝에 위치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포천시 군내면 포천종합고등학교에서 마제 돌도끼와 마제 돌살촉이 출토되었다. 철기 시대의 유적으로는 포천시 관인면 중리 용수재울·영중면 영송리·포천 자작리 유적지에서 다수의 집 자리 유구와 함께 중도식 토기 및 갈돌·갈판 등이 발견되었다. 포천 영송리 선사 유적에서 원삼국 시대에 해당되는 유구는 주거지 5기와 토기군 1개소가 발견되었다. 그 입지 조건 등으로 보아 초기 국가의 중요한 구성단위인 읍락의 성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적에서 출토된 긴 향아리형의 민무늬 토기들은 한강 유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포천 지역이 한강 유역의 문화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

2) *시대의 포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묘제인 고인돌의 분포와 양식을 볼 때, 포천 지역에는 서로 다른 성격의 두세 집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고인돌과 가산면·일동면 일대 탁자식 고인돌은 그 묘제 주체가 다르며, 자작동 지식묘를 중심으로 한 포천 자작리 유적지에서 대형 움집터가 발굴되어 독자적인 집단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이들 집단은 북방의 철기 문화와 기마 문화를 가진 이주 집단의 영향을 받아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연천 지역의 다른 집단과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성읍 국가는 마한(馬韓) 54개 소국 가운데 하나인 원양국 또는 상외국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기원후 3세기 무렵 마한 연맹체에 속한 포천 지역은 동쪽으로 철원 춘천 지방의 예족(濊族), 북쪽으로 낙랑군·대방군과 대치하면서 남쪽의 백제국의 세력 권역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2) ~고려시대의 포천

1) *삼국 시대의 포천*

낙랑군과 대방군이 한반도에서 축출되는 313~314년 무렵, 이전 어느 시기엔가 백제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북쪽 변경 지대라고 할 수 있는 연천, 포천 지역은 소멸한 한 근현에 대신하여 고구려 세력이 백제와 대치하는 접전 지역으로 바뀌었다. 포천 지역에는 백제 초기의 성을 개축한 포천 고모리 산성·성동리 산성·고소성·대전리산성 등 옛 성터가 있어 당시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보여 준다.

4세기 후반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즉위하면서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는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고구려는 백제로부터 임진강과 한강 유역의 58개 성과 700개의 마을을 빼앗았다. 이들 가운데 미사성은 포천 관내에 있었던 대전리산성의 백제 때 명칭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모루성은 고모리산성에 비정되고 있다. 장수왕(재위 413~491)의 한성 함락 이후 마홀군·내을매현·양골현 등의 행정 구역으로 개편되었다.

6세기 초반 안원왕(재위 531~545)이 즉위하면서 고구려는 극심한 정쟁에 휩싸이게 되었고, 국가 체제를 정비한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동맹군에 의해 한강 하류 유역을 빼앗겼다. 이때 마홀군은 신라의 관할에 놓이게 되었다.

2) *남북국 시대*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서 매소성이 주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신라가 당나라 군과의 매

소성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나당 전쟁을 종식하고, 불완전하나 삼국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매소성은 최근에 연천군에 편입된 청산면 대전리의 대전리산성일 것이라는 추정이다.

757년(경덕왕 16) 한산주 마홀군에서 한주 견성군으로 바뀌고, 내을매현과 양골현 또한 사천현과 동음현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이후 예성강 이북 북방 경영이 진행되면서 한주의 북쪽 끝인 철원과 함께 발해에 대한 전진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 하대에 들어 왕실 내의 빈번한 왕위 쟁탈전과 자연 재해로 정치 체제가 와해되고 농촌 사회의 해체가 가속화되면서 농민 봉기와 함께 지방에 호족이 등장하였다. 이때 견성군은 궁예의 세력권에 들어갔다. 양길의 부하이던 궁예는 그를 몰아내고 901년 왕위에 올라 송악에 후고구려를 세웠다. 905년 다시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911년 국호를 태봉으로 고쳤다. 궁예는 신라와 당나라의 정치 체제를 모방하여 독자적인 통치 기구를 정비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말년에 미륵불을 자칭하며 신정(神政)에 집착하다가 결국 왕건에게 쫓겨 죽임을 당하였다.

포천 지역에는 당시 궁예가 왕건의 군대와 접전을 벌였다는 설화와 지명이 많이 전하고 있는데, 궁예의 패전과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전승 내용으로 볼 때, 견성군은 궁예에 호의적인 지역이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3) 시대의 포천

918년 고려가 건국되고, 923년(태조 6) 명지성 장군 성달이 고려에 귀부하였다. 명지는 마홀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데, 백제가 다스릴 때의 이름인지 혹은 고구려식 지명인지 확실하지 않다. 견성군이란 지명 대신에 명지성을 칭한 것을 보면, 성달은 반(反)신라적인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해 전인 922년 궁예에 호의적인 명주(현재의 강릉) 호족 김순식이 왕건에게 귀순한 것을 보면, 성달 역시 친궁예적인 호족으로 추정된다. 이후 왕충이 명지성의 원보가 되었으며, 928년 후백제군이 양산(현 충청북도 영동군)에 성을 쌓자,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물리쳤다.

포천 지역은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포주와 동음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940년(태조 23)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 견성군을 포주(抱州)로 고쳤다고 하는데, 이때 내을매현은 폐지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성종 초 전국을 5도(서해도·교주도·경상도·전라도·양광도) 양계(북계·동계)와 경기로 나눌 때, 포주는 북계에 속해 있었고, 995년(성종 14) 다시 10도제로 개편하면서 포주에 단련사가 파견되었다. 1018년(현종 9) 전국을 5도와 양계로 나눌 때 양광도 양주군에 속하였고, 1069년(문종 23) 경기를 종전의 13개 군현에서 50여 군현으로 확장할 때 양광도에서 경기도로 편입되었다.

1172년(명종 2) 양주군에서 분리하여 감무를 두고 포주를 다스리게 하였다. 공양왕 때 포주는 경기좌도에 속하여 과전법 시행의 대상이 되었다. 고려 말 이색이 세속을 떠나 왕방산에 들어와 삼신암이란 암자를 짓고 은신한 이야기가 전하며, 실제 성여완은 고려의 국운이 기울자 왕방산 아래 계류촌(현 포천시 신북면)에 은거하면서 스스로 왕방거사라 하였다. 한편 동음현(영평)은 1018년 동주(東州 현재의 철원)의 속현이 되었고, 1106년(예종 1) 처음으로 지방관인 감무를 두었다. 1269년(원종 10) 위사공신 강윤소 장군의 고향이므로 동음현감을 영흥현령으로 고치기도 하였다.

1173년(명종 3) 포주에 향교가 설치되어 지역민들을 교육하였고, 궁예의 영향을 받아 고려 초에 미륵불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내원사(백운산)가 도선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설이 있으

며, 절터 유적을 통해 볼 때 고려 시대에 창건된 사찰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시대 ~ 현대의 포천

1) 포천

1393년(태조 2) 영흥현이 영평현으로 개칭되었으며, 1413년(태종 13) 포주가 포천현으로 개칭되면서 각각 현감이 파견되었다. 이때 포천의 이름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광해군 때 포천현과 영평현이 합쳐져 영흥도호부로 승격되었고 경기 감영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1623년 다시 포천현과 영평현으로 분리되었다.

조선 초 포천현은 왕실과 밀착된 지역이었다. 태조·태종·세종 등 왕실의 사냥터와 군사 훈련장으로 이용되었고, 포천현 재벽동에는 신의왕후(조선 태조의 첫째 왕비)의 농장이 있었고, 철현(鐵峴, 현재의 가산면 궁말)에는 신덕왕후(조선 태조의 둘째 왕비)의 농장이 있었다. 한편 영평현에도 개국 공신인 여진인 통두란(청해 이씨의 시조 이지란을 모신 청해사가 있음을 볼 때, 고려 시대의 포주·동음현보다 왕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포천에서는 호국과 충절의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다. 양치는 세종조에 김종서 등과 함께 북방 개척에 무용을 떨쳐 함길도 절도사를 지냈고, 김종서가 세상을 뜨자 포천의 천주산 아래(지금의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은거하여 두문불출하였다. 사육신의 한 사람인 유응부는 포천의 소흘산에 거주하였고, 1455년(세조 1) 성삼문·박팽년 등과 함께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잡혀 죽었다. 현재 포천에는 유응부를 기리는 충목단이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포천 지역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임진왜란 때 서울 이북 함경도로 통하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왜군의 주력 부대가 통과하게 됨으로써 많은 피해를 입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큰 공을 세운 인물을 다수 배출하였는데 임진왜란 때는 이항복·이덕형, 권종, 이성길, 황정옥 등이 활약하였다. 병자호란 때 공을 세운 포천의 인물로는 조득남, 이시백, 서성, 이성남, 정지상, 이영 등이 있다.

포천 지역은 한양과 근접하였고,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어 왕자와 사족(士族)들의 은거지로 이용되었고, 이들의 무덤 또한 많이 남아 있다. 태종의 외손인 이즙, 선조의 12남인 인흥군, 인조의 3남이자 효종의 동생인 인평대군,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 등의 무덤이 있고, 이 밖에 박순·이항복·조경 등 사족의 무덤이 있다. 금강산 유람 길에 오른 관리와 선비들은 포천현 안기역에 머물렀고, 영평현은 수려한 영평 8경이 있어 많은 문인과 묵객들이 찾았던 곳이다.

조선 후기 포천 지역에서 주목되는 사건 중에 노비와 일반 백성이 관련된 '현종 강상 사건'과 '여환의 혁명 모의 사건'을 들 수 있다. 1674년(현종 15) 포천 지역에 살던 노비 전석(全石)이 상전을 살해하려고 한 사건에 연루되어 포천읍이 일시적으로 혁파되었고, 당시 현감이 파직되기도 하였다.

1688년(숙종 14) 요승 여환 등 11명이 혁명을 꾀하다 처형되었다. 양주, 영평의 인물들과 함께 미륵 신앙을 믿고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였다. 영평 사람으로는 황희, 정원태, 정호명, 이말립, 정만일 등이 참여하였다. 처형된 가담자 11명 중 영평 출신은 5명이었다. 가담자를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양주와 영평 사람들이 괴로움을 피해 농사를 폐하고 도망해 숙종이 특별히 경기도 감사에게 유지를 내려 민심을 위로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회유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포천 지역은 근기(近畿) 지역을 대표하는 상업 도시로 명성을 얻었다. 인구도

증가하여 포천현의 경우, 1454~1842년경의 변화를 보면 400여 년 만에 2,300여 가구가 늘었고, 인구는 1만 2000여 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금강산을 지나 함경도와 북방으로 가는 관북대로(경흥대로)상에 위치하여 물산의 유통이 빈번하여 상업이 발달하였다. 특히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점과 송우장은 조선 후기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점막 시장(점포 상점)으로 동북 방면과 도성을 연결해 주는 상업 요충지이었다. 이는 한국의 근대화를 이끈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2) 포천

1895년(고종 32) 지방 관제 개정에 따라 포천현과 영평현을 병합하여 포천시로 승격하였으나, 다음해 영평현을 다시 분리하였다. 1896년 10월 포천 내동 소학리 역답(驛畓)에서 소작인과 마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이때 마름이 평균 수확량의 약 33%로 소작료를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수확량의 50%를 내게 하자, 소작인들이 반발하여 원래의 규정대로 걷도록 하였다.

포천 지역은 개항기 위정척사 사상의 태두인 이항로가 살았던 양평군과 인접해 김평묵과 최익현 등 대유학자들을 배출함으로써 이들의 사상적 영향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확산되었다. 이러한 위정척사 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림적 전통은 개항기 포천 지역에서 의병 투쟁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은찬·연기우·강기동·윤인순 등 의병 부대의 항쟁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의병에 가담하는 한편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3) 일제 강점기의 포천

1910년 국권 피탈 후 1914년 영평군을 다시 포천시에 통합하였다. 포천은 개항기부터 의병 항쟁의 중심지로서 항일 의식이 높은 지역이었고, 1910년대 서당 교육을 통한 민족 교육이 활발한 지역이었다. 1917년 조선 총독부의 조사에 따르면 포천 지역의 서당 수는 82개에 달하였다. 실력 양성론 등 애국 계몽 운동의 연장선에서 야학 및 독서회 등이 결성되었다. 근대식 교육 기관으로 영평공립보통학교(1910년 9월 1일)와 포천공립보통학교(1911년 9월 1일)가 세워졌다.

3·1 운동 역시 투철한 항일 의식을 바탕으로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나아가 폭력 시위로까지 발전하였다. 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데 서당 훈장 등 유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여기에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시위가 크게 발전하였다. 3·1 운동을 주도한 인물로는 고진환, 안응건, 유중식, 이영려, 이이만, 정수환, 조계식, 조훈식, 최석휴, 최학돌 함병현 등이 있다.

1920년대 포천 청년회, 포천 산업 청년회, 송우 청년단 등 청년 단체가 조직되어 포천 노동 야학, 양문 노동 야학, 유정 노동 야학, 갈월리 동기 야학, 갈기 노동 야학, 용정 노동 야학 등의 노동 야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30년대 농민 대중들에 의해 일제 식민지 농업 정책과 식민지 지주제에 저항하는 농민 운동이 전개되었다. 조선 총독부 조사에 따르면 1934년에 6건, 1935년에는 50건, 1936년에는 35건의 소작 쟁의가 발생하였고 일제 식민지 농정에 반대하는 수리 조합 반대 운동도 거세게 일어났다.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국민 총동원령이 실시되면서 인적·물적 수탈이 극심해졌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신청에 2005년 3월 8일 현재 180건이 접수되었고, 유형별로 보면 노무자가 1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인 29명, 군속 13명 등으로 나타났다.

4) 포천

광복 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로 포천 지역이 남북으로 갈리는 아픔을 겪었다. 창수면·관인면·영중면·영북면·일동면 등이 공산 치하에 들어가서 많은 고초를 겪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미군 철수 후, 북한의 도발이 빈번해 1949년 6월 12일 약 200명의 병력이 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포천 지역은 서울의 관문과도 같은 중요한 지역으로서 남북 간 주력 부대가 대결하였던 지역이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의 포천 지역을 공격했던 병력은 제3사단 1만 2000명, 제4사단 1만 2000명, 제105기갑여단 4,000명으로 합계 2만 8000명에 달하여 북한의 전체 화력의 1/3이 이곳에 집중되었다.

반면 국군은 의정부에 지휘소를 둔 제7사단의 제1, 제9 연대가 사직리~초성리~적성 간 47km에 달하는 지역을 경비하고 있었다. 실제 포천 지역에 배치된 국군은 제9연대 제2대대만이 본부를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두고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전쟁 개시 7시간 만에 포천은 점령되었다. 북한군 점령하의 포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소리봉 부대, 독수리 유격대를 조직하여 적의 정보를 차단하거나 교통을 혼란시키면서 적 후방을 교란시켜 적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포천시청은 부산으로 피난하였다가 9·28 수복으로 10월 14일 복귀하였다.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침공으로 다시 철수하였다가 6월 24일 복귀하였다. 그러나 청사가 전소되어 포천면 어룡리에 임시 청사를 두었다가, 11월 14일 현 군청 소재지인 포천읍 신읍리로 이전하였다. 당시 포천시의 행정 구역은 10개 면 67개리로 구획되었다. 이후 38선 이북 지역의 5개 면을 탈환 수복하여 행정권을 이양할 때까지 군정 하에 북포천이라 하여 북포천 군수를 두었다가, 1954년 11월 17일 수복 지구 행정권 이양으로 12개 면 88개리로 구획되었다.

6·25 전쟁 이후 개성 지방의 기후와 토질이 거의 같은 포천과 연천 지방에는 남하한 개성 인삼 농사인들에 의해 인삼이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개성 인삼의 최대 생산지가 되었다. 포천 지역에서는 2005년부터 개성 인삼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1963년 포천시 내촌면에 화현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73년에는 포천면 탑동리가 양주군 동두천읍에 편입되었으며, 1979년에는 포천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83년 연천군 관인면 일원이 군에 편입되었고, 청산면의 삼정·갈월·금동·덕둔 등 4개 리가 신북면에, 초성·대전·장탄·궁평·백의 등 5개 리가 연천군으로 편입되면서 청산면이 연천군 관할로 되었다.

또 같은 해에 화현출장소가 화현면으로 승격되었으며, 1989년 포천시 관인면 부곡리가 연천군 연천읍에 편입되었고, 1996년에는 소흘읍으로 승격되었다. 2003년 대통령령 6928호에 따라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었고, 포천읍은 포천동과 선단동으로 분리되면서 행정 구역은 2읍, 10면, 2개 동으로 구성되었다.

이상과 같이 포천 지역은 한반도 중부 내륙에 위치하고, 남북 이동의 경유지로서 주변 지역의 문화 유입과 전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새로운 문화와 사상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포천만의 독특한 생활 모습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지역 내에서 산지가 많은 영중·관인 등 북부 지방이 상대적으로 산지가 적은 포천·소흘 등 남부 지방에 비해 땅에 대한 귀소성과 전통에 대한 계승 의식이 완고한 편이다. 또한 북부

지방은 광복 후 남북 분단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던 역사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편 지정학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기반이 열악하여 세련되고 우아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지 못하였지만, 자연에 순응하는 소박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양반과 서민 문화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봉건 정부와 일제에 저항하였던 포천 지역민들의 저항 의식은 궁예의 미륵 신앙과 조선 시대 선비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륵 신앙은 새로운 세계를 염원하는 혁명으로 발전하였고, 청렴과 절의를 벼슬보다 우선하였던 선비들의 영향으로 저항 의식이 확대되어 갔다.²⁾

2.2.2 포천의 지리와 생태

한반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한 포천은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심한 지역이다. 이는 포천의 지형적 조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북부의 평야지대와 동부의 태백산맥으로 이어지는 산간 지대가 분포하고 있어서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포천은 시 전체가 산악지대로, 평야의 발달이 미약하고 포천시의 평균 고도는 경기도 전체 평균 고도보다 다소 높다. 포천의 지질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지체 구조대를 관찰할 수 있어서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나며 뛰어난 비경을 자랑하여 관광지로도 촉망받고 있다. 포천시의 지리와 생태를 나누어 자세히 들여다보려 한다.³⁾

(1) 지리적 위치와 자연 환경

1) 지리적 위치

포천시는 우리나라 북단에 위치하며 동서 방향 길이가 30.8km, 남북 방향 길이가 47.9km로, 총 면적 826.5km²에 달하는 도시이다. 동쪽 및 동북쪽 방향으로 운악산, 강씨봉, 백운산 등이 위치하여 가평군, 강원도 화천군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에서 남쪽으로는 천보산맥과 축석령을 경계로 하여 양주시, 의정부시와 접하고 있다. 서쪽에서 북쪽으로는 지장봉과 명성산을 경계로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에 접하고 있다.

포천시는 군 전체가 산악지대이다. 동남북의 삼면에는 광주산맥이 솟아 올린 국망봉, 강씨봉, 백운산, 청계산, 운악산 등 1,000미터 안팎의 산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 또한 이동면 백운산에서 발원한 영평천이 동에서 서로 흘러 포천읍, 일동면, 창수면 등을 거쳐 한탄강으로 들어간다. 산정호수, 백운계곡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과 비경이 어우러진 포천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⁴⁾

포천지역은 광범위한 분포로 1:50,000 지질도폭이 총 8장이 포함되어 복잡한 지질분포를 보인다. 지질은 고원생대(선캠브리아기)부터 신생대 제4기까지 전시대의 지질학적 시대를 포함하고,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모두 관찰되며 총 30종류의 암석이 분포한다. 또한, 이 지역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지체구조대인 임진강대와 경기육괴 사이의 경계를 지나는 지역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지역에 해당한다.⁵⁾

2) 자세한 내용은 포천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참조.

3) 이하의 서술은 『포천군지 上- 현대사회』(포천군지편찬위원회, (주) 경기출판사, 1997)를 중심으로 발췌 하였으며, 기타 참고문헌은 해당 내용에 따로 표기한다.

4) 강욱,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포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3.

5) 정대교 외 6인, 「경기도 포천시 한탄강 유역 지질공원 후보지의 지질학적 가치」, 『추계지질 과학현람 학술대회 초록집』,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외 2곳, 343쪽.

포천, 동두천 지역에서 모두 40개의 지형경관을 조사하였을 때 가장 많이 관찰되는 것은 풍화지형과 하천지형이다. 단위지역별로는 종현산에서 24개, 해룡산에서 16개의 노두가 관찰되었다. 풍화지형에서는 나마 7개와 풍화층 3개의 비중이 높다. 40개의 관찰 노두 중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경관은 14개이고, 이중 13개가 일반지형이며 특수지형은 1개이다. 일반지형에서는 하천지형이 8개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그 중 하식애가 4개를 차지한다. 특수지형에서는 구조지형인 주상절리가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⁶⁾

마식령산맥은 천마산(764m), 수룡산(717m), 국사봉(764m), 화장산(560m) 등의 비교적 낮은 봉우리들로 산맥이 형성되어 있고, 경기도 북동부와 동부(포천, 가평, 양주군 일대)의 험준한 산지는 대부분 광주산맥에 속한다. 광주산맥은 명지산(1,250.2m), 국망봉(1,176m), 광덕산(1,046m), 용문산(1,157m), 명성산(922m), 백운봉(937m) 등 높은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원도와 함경도의 도계인 철령에서 근원하여 한반도 중앙부를 남북으로 꿰뚫는데, 남쪽으로 200km를 뻗어내려 경기도 평야의 중앙부인 광주시 북부에 이르러서야 끝을 맺는다.

포천시의 평균 고도는 경기도 전체의 평균 고도보다 다소 높다. 포천시의 평균 고도는 250.32m이며, 일동면 지역의 평균 고도는 411.56m로 포천시에서 가장 높다. 반면, 포천 지역 최대 하천인 영평천 하류 지역에 위치한 창수면, 영중면의 평균 고도는 각각 148.43m, 150.09m로 포천시에서 가장 낮다.

포천시 동부에는 이동면의 광덕산·백운산·국망봉·강씨봉, 일동면의 청계산·원통산, 화현면의 운악산(현등산), 내재면의 주금산·금단산 등이 남으로 뻗어내려 경기도 남양주시와 접해 있고 그 지맥은 소흘읍의 죽엽산을 지나 축석령으로 서주하며, 서부에는 천보산맥이 북주하여 해룡산·왕방산, 신북면의 심곡산·종현산으로 뻗어내려 양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북부에는 영북면의 명성산과 이동의 자등현, 광덕산 남봉이 가로 놓여 강원도와 접해 있고, 다시 북으로 한탄강 유역 분지를 건너면 관인면의 고대산과 보개산이 연천군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포천시는 산지가 발달하였으며, 평야의 발달은 비교적 미약한 편이다. 동쪽·서쪽·남쪽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시내 한 가운데로는 길이 29km에 달하는 포천천(옛 이름은 한내)이 북류하여 영평천과 합수된다. 포천시에서 비교적 평야가 넓게 발달한 곳은 포천천 주변, 영중면과 창수면의 영평천 주변, 일동면과 이동면의 도평천·수입천 주변 지역이다. 규모는 작으나 가평군 조종천 주변의 현리를 중심으로 한 분지 지역, 화악천과 가평천의 합류 지점과 가평읍 시가지 북쪽, 설악면 선촌리·신천리·창의리 지역,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남북부, 화현면의 수동천 주변, 관인면의 작은 하천 주변 등지에도 평야가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면과 가평군의 경계를 이루는 국망봉 산사면 일대가 500m 이상의 가장 큰 기복량을 보이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관인면의 서쪽 경계인 지장봉 일대, 이동면·일동면·영북면의 경계 지점, 신북면의 북서 경계인 종현산 일대, 포천읍의 북서 경계, 이동면·일동면·화현면이 비교적 큰 기복량을 보였다. 반면 포천읍, 군내면, 가산면, 소흘면의 포천천 주변과 창수면과 영중면의 영평천 주변 지역, 이동면 남부에서 일동면 중앙부와 화현면 북부를 잇는 남북 방향의 평지는 기복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인면과 영북면의 일부에도 기복이 거의 없는 지역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6) 권동희, 『한국지형학회지』 제11권 제4호, 「포천·동두천 일대의 지형경관 특성과 활용방안」, 18쪽.

2) 산과 강

① 포천의 산: 포천(抱川)은 이름처럼 물을 안고 있다. 조선시대 문신 성임은 “천층산이 북쪽에 우뚝하고, 한 줄기 물이 남쪽으로 흐르는 곳”이라 했다. 그가 말한 ‘천층’이나 되는 산은 없지만, 포천 북부 지역에는 1000m 안팎의 크고 작은 산줄기가 끝없이 이어진다.⁷⁾ 한북정맥의 주요구간이 지나는 포천은 정맥의 땅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한북정맥의 산 중에서 광덕산(1,046m), 국망봉, 청계산(849m), 운악산(936m) 등이 모두 포천에 자리하고 있다.

300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제460호로 지정된 부부송이 있는 운악산(935m), 포천시의 진산으로 불리며 포천동 서쪽에 우뚝 솟아 있는 왕방산(737.2m), 비단산으로도 불리는 주금산(813.6m), 통일신라의 마의태자가 망국의 한을 품고 이 산을 지나 금강산으로 갈 때 보고 울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의 명성산(922.6m)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대표적인 포천의 산은 아래와 같이 도표로 제시한다.

표 1 < 포천의 산 >

산명	높이(m)	소재지	산명	높이(m)	소재지
수원산	709.7	군내면 청군로	운악산	935.5	화현면 화동로
왕방산	737.2	포천시 신읍동	명성산	922.6	영북면, 이동면
청계산	849.1	일동면 기산리	백운산	903.1	이동면 포화로
주금산	813.6	내촌면 능곡청정길	지장산	877.2	관인면 창동로
종현산	588.5	신북면 덕둔리	국망봉	1,168.1	이동면 장암리
종자산	642.8	관인면 창동로	광덕산	1,046.3	사내면 광덕리

② 포천의 하천: 포천시와 관련이 있는 하천으로는 한탄강, 포천천, 영평천, 지장대천, 산내천 등이 있고 저수지로는 냉정저수지, 호수로는 산정호수를 들 수 있다. 이 중 포천의 젓줄이라고 할 수 있는 한탄강과 포천천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한탄강은 강원도 평강군 불당골에서 발원하여 양하리를 거쳐 철원군 김화읍에서 남대천, 동송면에서 대교천, 연천군 창산면에서 영평천, 연천군 전곡면에서 강화천과 차탄을 합류하여 임진강으로 유입하는 유역면적 2,850km², 전유로연장 134.5km에 이르는 하천이다. 이 중 포천 한탄강의 지류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 포천의 한탄강 지류 >

이름	발원지	길이(km)
남대천	강원도 김화군 수리봉(642m)	43.6
부소천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	13.43
강화천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한강봉	24.4
영평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광덕산	40

또한 포천천은 포천의 최남단 소흘읍 축석령에서 발원하여 북으로 흐르다가 가산면에서 흐르는 여러 작은 내를 흡수하여 포천읍 신읍리에 이르러 군내면 수원산에서 서류하는 물과

7) 이상은「Korea Travel 포천-1」(박소라 기자, 2012) 참조.

다시 합류하여 신북면 만세교에서 화현면 운악산 서록에서 발원하여 서류하는 육송정천을 받아들여 영중면 영평천으로 들어간다. 총 길이 29km, 하폭 100m의 규모로, 관내 6개 읍면을 경유하면서 포천시 소재지를 흐르고 있는 준용하천으로 포천읍 신읍리 지역의 상수도원이 되고, 6개 읍면의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하천이다.

3) 기후

포천시가 속해 있는 우리나라 중부 지방은 온대에 속하며 온대 중에도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상은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점이적 특성이 있으며 북쪽으로 갈수록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고 남쪽으로 갈수록 해양성 기후의 특성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포천시 지역은 위도상으로 한반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한서의 차가 심하다.⁸⁾

기후는 지형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한반도의 중북부인 경기도는 동부에 태백산맥으로 이어지는 산간 지대가 분포하고 북부에 평야 지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겨울에는 북고동저형(北高東低型) 기압 배치로 인한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비교적 낮은 편이며, 여름철에는 북서 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경기도는 7~9월에 여름철 장마에 의한 강수량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포천시는 특히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 속하는데, 그 원인은 양자강과 중국 대륙으로부터 이동해 오는 저기압이 태백산맥과 그 지맥(支脈)인 광주산맥에 부딪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1~2010년의 경기도 포천 지역(철원군 기준) 기후 자료를 살펴보면, 연평균 기온 10.2°C, 연평균 최고 기온 16.2°C, 연평균 최저 기온 4°C, 연 총 강수량 1,391.2mm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자료로 확인되는 2010년의 연평균 기온은 10.9°C, 연 최고 기온 33°C, 연 최저 기온 -19.5°C, 연 총 강수량 1,939.5mm, 연평균 상대 습도 67.3%, 연평균 풍속 1.7%, 연 최대 풍속 10.2%, 연 최대 순간 풍속 20.3%이다.

(2) 생태

포천시는 경기도 동북쪽에 위치하여 강원도와 접경을 이루고, 남서쪽은 의정부시에 접해 있다. 시 전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산악지대와 한탄강을 비롯한 하천들의 발달로 동식물이 살기 적합한 지형을 이루고 있어 멸종 위기종 혹은 우리나라 희귀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보고가 많다. 멸종 위기종인 맹꽂이의 서식이 밝혀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 우리나라 희귀종인 묵납자루와 두우쟁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시내에 소재하는 광릉 시험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보호된 산림의 보고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원시적인 자연림은 거의 파괴되어 찾아보기 어렵고, 대다수는 낙엽 활엽수로 덮여 있으며 잣나무, 낙엽송, 잎갈나무, 전나무, 리기다소나무, 방크스소나무 등의 침엽수 인공 조림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⁹⁾

1) 포천의 동식물

8)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참조.

9) 이하의 내용은 향토문화전자대전(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grandculture.net/>)을 중심으로 발췌 하였으며, 기타 참고문헌은 해당 내용에 따로 표기한다.

① 포유류: 포유류는 수원산 일대에 두더지, 너구리, 족제비, 고양이,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청설모, 다람쥐, 등줄쥐, 고슴도치, 오소리, 하늘다람쥐가 확인되어 총 5목 10과 13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 중에서 고슴도치, 오소리, 하늘다람쥐는 수원산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② 어류: 본 지역에서 채집, 조사된 어류는 총 1,475개체, 9과 28종이었다. 이들 중 잉어과 어류가 16종으로 전체 채집 종수의 57.1%를 차지하였으며, 미꾸리과 4종(14.3%), 꺾지과 2종(7.1%), 뱀장어과, 동자개과, 메기과, 통가리과, 동사리과, 망둥어과 등은 각각 1종(3.6%)씩 이었다. 생태형은 일차담수어가 26종이었고 육봉형 1종, 강하성 1종 등이었다. 어종의 과별 개체수는 잉어과가 1,367개체(92.7%)로 가장 많았으며, 미꾸리과가 51개체(3.5%), 망둥어과가 32개체(2.2%), 꺾지과 11개체(0.8%) 등의 순이었다.¹⁰⁾

ㄱ) 잉어과: 피라미, 갈겨니, 끄리, 왜돌개, 버들치, 살치, 납자루, 묵납자루, 줄납자루, 납지리, 가시납지리, 붕어, 떡붕어, 참중고기, 참붕어, 붕어, 돌고기, 새미, 쉬리, 줄돌개, 돌개, 긴돌개, 누치, 참마자, 모래무지, 두우쟁이, 버들매치, 돌마자, 배가사리, 돌상어

ㄴ) 통가리과: 통가리

ㄷ) 꺾지과: 꺾지, 쏘가리

ㄹ) 동사리과: 얼룩동사리

ㅁ) 망둥어과: 밀어

* 우리나라 희귀종: 묵납자루, 두우쟁이

* 외래종: 떡붕어, 큰입우럭, 파랑볼우럭

③ 양서·파충류: 포천시 수원산 일대를 대상으로 한 자연 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서류는 도롱뇽과의 도롱뇽과 꼬리치레도롱뇽, 무당개구리과의 무당개구리, 두꺼비과의 두꺼비, 첨개구리과의 첨개구리, 맹꽁이과의 맹꽁이, 개구리과의 참개구리·옴개구리·아무르산개구리·북방산개구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총 6과 10종이 보고되어 있다. 특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청문 조사를 통하여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의 서식이 밝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파충류는 장지뱀과의 아무르장지뱀, 뱀과의 무자치·누룩뱀·유혈목이, 살모사과에 쇠살모사의 서식이 확인되어 총 1목 2아목 3과 5종이 보고되었다. 특히, 아무르장지뱀은 수원산 일대 넓게 분포하고, 누룩뱀과 유혈목이는 저지대 주변에서 발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식물: 포천시는 경기도 동북쪽에 위치하여 강원도와 접경을 이루고, 남서쪽은 의정부시에 접해 있으며 시내에 소재하는 광릉 시험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보호된 산림의 보고로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포천시 광릉 시험림은 일제 강점기에 설립한 것으로, 그 면적은 1913년 설립 당시 2,286ha이었으나 그 후 주변의 국유림을 편입시켜 1939년에는 2,302ha로 늘어났다. 1941년에는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소재의 산림 105ha를 서울의 시험림 일부와 교환하여 2,406ha로 증가하였다가 1965년에는 용도 폐기 등으로 2,313ha로 다시 감소하였다. 1980년대에

10) 송호복 외 2인, 『환경연구논문집 창간호』, 「포천 지역의 담수어류 분포」,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2004, 134쪽.

는 시험림에 인접한 임자 없는 임야를 흡수하였고, 그 후 1986년 남양주군 진접면 내각리 소재의 임야 115ha를 국방부로 이관하고 대토(代土)로 35ha를 인수하였다.

포천시에서 가장 북동쪽에 위치한 백운산(840m)은 일대의 세 봉우리(죽엽산·수리봉·백운산)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 이전에는 북한에 속해 있었으며, 과거에는 자연림으로 덮여 있었으나 6·25 전쟁을 전후하여 격심하게 파괴되어 원시적인 자연림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현재는 대부분이 낙엽 활엽수로 덮여 있다. 특히 2010년에서 2011년에 걸쳐 조사된 바에 따르면 백운산의 주요 식생은 과거의 다양한 물리적 교란 이후 자리 잡은 이차림으로 신갈나무 등의 참나무류가 많다. 신갈나무와 서어나무가 자연적인 경쟁과 공생관계를 형성하며, 지속적으로 자연천이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형적인 자연식생을 형성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¹¹⁾

죽엽산 일대의 광릉 시험림은 우리나라 삼림대의 온대 중부에 속한다. 소나무, 전나무 등의 침엽수와 참나무류, 서어나무, 단풍나무류, 물푸레나무 등의 낙엽 활엽수가 혼생하는 천연림으로 발달하여 오다가 1913년에 시험림지로 제정됨에 따라 1916년 처음으로 인공 조림을 하였다. 1929년 제1차 경영단이 편성된 후에 임상을 개량할 목적으로 잣나무, 낙엽송, 잎갈나무, 전나무, 리기다소나무, 방크스소나무 등의 침엽수 인공 조림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수리봉 주변 지역 약 347ha 숲은 우리나라 온대 활엽수림으로 시험림 설정 당시 학술 보존림으로 지정하여 자연 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현재까지 비교적 보존이 잘 유지하고 있어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국내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학술 연구 보존림을 제외한 지역의 대부분은 여러 시험을 위한 조림이 이루어졌다. 1993년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임종별 면적과 구성비는 천연림이 1,200ha로 54%이었으며, 인공 조림 면적이 986ha로 44%이었고, 시험림 및 수목원 관리를 위한 지역은 37ha로 2%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 지역의 산지를 대상으로 한 식물상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리봉: 광릉 수리봉의 자연 환경 생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리봉에 분포하는 식물 종은 61과 120속 161종(147종, 13변종, 1품종)이 조사되었다. 특히 포천 국립 수목원이 위치한 수리봉 북쪽 비탈면 산기슭에는 기후, 지형적 조건으로 식물 종 다양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간섭으로부터 오랫동안 보호되었기 때문에 식생학적으로 안정된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식물 종으로는 가래나무, 산벚나무, 고로쇠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음나무, 은방울꽃, 당단풍, 당개지치, 풀솜대, 피나무, 큰개별꽃, 애기나리, 샫갯나무, 벌깨덩굴, 앵초, 큰괭이밥, 회잎나무, 남산제비꽃, 으름덩굴 등이 있었다.

광릉 학술 보존림 구역 내 해발 고도 200~300m 지점에는 졸참나무를 주로 하는 삼림이 발달하고 있으며 서어나무, 까치박달, 팔배나무, 산벚나무, 풍게나무, 층층나무, 때죽나무, 쪽동백나무, 음나무, 고로쇠나무, 복자기, 물푸레나무, 국수나무, 참개암나무, 노린재나무, 생강나무, 털팽나무, 개웃나무, 작살나무, 참회나무, 단풍취, 대사초, 잣나무 어린 나무, 애기나리, 선밀나무, 피나무, 우산나무, 다릅나무 어린 나무, 참나무, 광릉꿀무꽃, 천마, 나나별이난초, 더덕, 은방울꽃 등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용암리에서 수리봉 정상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경우, 해발 고도 200m 이하의 저지대에는

11) 오영주 외 2인, 「포천 백운산 히어리 군락의 식생 특성」, (주)한반도생물다양성연구소 및 대전대학교 생명과학과, 2012, 447-455쪽 참조.

상수리나무·전나무·물푸레나무·고로쇠·당단풍·까치박달이 주로 점하고 있으며, 소나무도 생육하고 있지만 주변 활엽수가 확대되면서 점차 고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초본 식물로는 노랑물봉선·얇은부채·천남성·큰애기나리·노루오줌·은방울꽃·참반디 등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고, 해발 고도 300m부터는 서어나무림이 우점하며, 졸참나무·신갈나무·팔배나무·쪽동백나무·산가막살·삼주·서덜취·등굴레·은대난초·자난초·원추리 등이 함께 출현하는 군집들이 있다.

해발 고도 400m 이상 정상부 능선에는 신갈나무·서어나무·굴참나무·까치박달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음나무와 잣나무의 어린 나무를 비롯하여 쪽동백나무·바위말발도리·말나리·비짜루 등이 하층에 출현한다. 정상부에는 산벚나무, 때죽나무, 조록사리, 병꽃나무, 작살나무, 다릅나무, 개옷나무, 신갈나무 등이 숲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ㄴ) 명성산: 명성산과 인근 산지의 자연 환경 생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명성산에 생육하는 관속 식물은 91과 258속 345종 63변종 8품종으로 총 416분류군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양치식물은 7과 10속 15종, 나자 식물은 2과 5속 7종, 피자 식물 중 쌍떡잎식물은 81과 196속 267종 51변종 7품종, 외떡잎식물은 11과 47속 62종 12변종 1품종으로 합계 69분류군이였다.

명성산의 식물상을 가장 대표할 만한 장소는 산정호수에서 산안 고개에 이르는 남쪽 비탈면과 주능선 일대이며, 이 지역에서 명성산 전체 식물종의 약 60%가 확인되었다. 이 지역은 물이 많아 습하여 굴참나무·신갈나무·생강나무 등의 군락이 있는 자인사 일대, 그리고 국수나무와 신갈나무 등이 많은 산정호수 지역을 포함한다. 특히 약사령에서 내약사동에 이르는 계곡 일대는 군부대가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적어 비교적 식물상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성산은 기본적으로 신갈나무와 소나무가 명성산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명성산의 북측에 해당하는 철원군 갈말읍 싸리골 일대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매자나무 군락이 존재하고, 여우 고개에서 여우봉에 이르는 남쪽 비탈면 해발 고도 400m 지역에서는 소나무가 순림을 형성하고 있으며, 삼각봉 일대의 칼날과 같은 암봉과 안덕재에서 내려오는 분지에는 대규모 역새풀 밭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산정호수 부근에는 느티나무, 쪽동백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물푸레나무 등의 목본류와 꿀풀, 골무꽃, 다래, 꿩이사초, 붓꽃 등의 초본류가 분포하고 있었다. 자인사 입구 굴참나무림에는 양치식물인 넉줄고사리·그늘개고사리·개고사리·족제비고사리와 나자 식물인 소나무, 피자 식물인 자작나무·산뽕나무·붉나무·작살나무·물푸레나무·피나무·등굴레·하늘나리·참반디·물봉선·왕머루·향유·배초향·산씀바귀·수리취·우산나물·쥐꼬리새 등이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각봉 일대에는 노린재나무·들메나무 등이 있었으며, 남산제비꽃·외제비꽃·나도송이풀·당잔대·방아풀·송장풀·습사리·쇠서나물·구절초·자주쓴풀·파란여로·산부추를 확인하였다. 산정은 초지로 역새밭을 이루고 있었으며, 등룡 폭포 일대에는 소나무와 신갈나무가 혼합림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물가 바위틈에 잔털제비꽃·돌단풍·미치광이풀·진달래가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우골 여우고개 일대에는 일본잎갈나무가 조림되어 있었고, 국수나무·꼬리조팝나무·산초나무·참싸리·돼지풀·각시취·영경귀·고들빼기·맑은대쑥·원추리 등이 조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우 고개에서 여우봉에 이르는 등산로에는 소나무와 신갈나무가 혼합림을 이루고 있었으

며, 자귀나무·철·층층나무·곰딸기·메꽃·까마중 등의 단순한 식생이 확인되었다. 여우봉 일대는 소나무림과 초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노루발·산부추·억새 등의 생육이 확인되었고, 덕재골 일대에서는 바위고사리·좀깨잎나무·참오동나무·쪽동백나무·박주가리·환삼덩굴·마디풀·며느리밧잎개·명아주·서양말냉이·속속이풀·산딸기·중대가리풀·돌피·민하늘지기 등이 보고되었다.

소나무·조팝나무·병꽃나무 등이 많은 약사령 일대는 비교적 습한 지역으로, 양치식물인 구실사리·개고사리·관중·십자고사리·잔고사리·황고사리 등이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현화 식물인 매자나무, 산철쭉, 물참대, 바위말발도리, 야광나무, 층층나무, 홀아비꽃대, 선밀나무, 병조희풀, 회리바람꽃, 노루오줌, 피나무, 익모초, 새끼뽕의비름, 개감수, 딱지꽃, 담쟁이덩굴, 등골나물, 개미취, 얼레지, 처녀치마, 은방울꽃, 족도리풀 등이 자라고 있었다.

내약사동 일대에서는 신갈나무림과 매자나무림이 혼재하고, 백당나무·눈괴불주머니·괭이밥·까치수영·기름나물·용담·갈퀴나물·마타리·원추리·산부추·여뀌·짚신나물·큰꼬리새·새포아풀이 채집된 바 있으며, 약사동에서 삼각봉을 잇는 도로와 외약사동에서 명성산의 능선을 잇는 군부대 도로 건설은 도로 침하와 산사태로 주변 식생의 파괴가 우려되었다.

산정호수에서 산안 고개에 이르는 도로에는 소나무·리기다소나무·잣나무가 도로의 좌우측에 식재되어 있었으며, 조팝나무·고광나무·고추나무·불나무·풀싸리·꽃마리·애기수영·왕미꾸리·광이·애기똥풀·제비꽃·졸방제비꽃·할미밀망·곰딸기·삼지구엽초·흰바디나물·왕머루·돌나물·며느리밧잎꽃·달맞이꽃·가는썩부쟁이·오이풀·돌피·산썩·큰구슬봉이·까치수영·잔대·단풍잎돼지풀·층층이꽃·조개나물·무릇·원추리·각시등글레·김의털·수크령·오리새·참억새 등이 확인되었다. 산안 고개에서 명성산에 이르는 등산로에는 노간주나무, 뽕나무, 함박꽃나무, 붉은병꽃나무, 노린재나무, 꽃마리, 털장대, 뒤편제비꽃, 큰개별꽃, 세잎양지꽃, 쥐오줌풀, 등글레가 생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ㄷ) 운악산: 운악산의 자연 환경 생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운악산의 식생은 주능선을 중심으로 보존된 자연 식생으로서 소나무 군락, 신갈나무 군락, 상수리나무 군락 및 활엽수 혼효림과 대상 식생으로서 리기다소나무 조림지, 일본잎갈나무 조림지, 잣나무 조림지, 밤나무 조림지, 아까시나무 조림지 등이 있었다. 신갈나무 군락은 조사 지역의 대표적인 식생으로 가평군 하면 하판리의 경우 수령 10~15년인 신갈나무를 비롯하여 굴참나무·산벚나무·물푸레나무·생강나무·당단풍·개웃나무 등이 있으며, 소나무 군락은 산 정상과 능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으며, 상수리나무 군락은 민가 주변에 출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계천, 조종천 등 하천의 호안을 따라서 버드나무, 갯버들, 달뿌리풀 등이 군생하고 있으며, 골풀, 갈대, 물억새, 여뀌, 환삼덩굴, 달맞이꽃, 강아지풀, 바랭이, 망초, 개망초, 황새냉이, 좀깨잎나무, 거북꼬리, 닭의장풀, 국수나무, 돌단풍, 바위떡풀 등이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 입구에서 운악산 현등사 구간에는 산민들레, 개별꽃, 알록제비꽃, 산뽕의다리, 대사초, 현호색, 도깨비부채, 고깔제비꽃, 노루삼, 나도개감채, 산괴불주머니, 큰괭이밥, 콩제비꽃, 족도리풀, 꽃다지, 양지꽃, 말냉이, 돌단풍, 족제비고사리, 황새냉이, 꽃마리, 각시붓꽃, 처녀치마, 당단풍, 만주고로쇠, 귀룽나무, 올벚나무, 왕버들, 눈갯버들, 참회나무, 신갈나무, 돌배나무, 매화말발도리, 진달래, 산철쭉, 딱총나무, 노랑물봉선, 곰딸기, 며느리밧잎개, 꼭두서니, 모시대, 주름조개풀, 멀가치, 뱀딸기, 영아자, 담쟁이덩굴, 파드득나물, 이삭여뀌, 큰도둑놈의갈고리, 고사리, 등글레, 등골나물, 비짜루, 참반디, 개박하, 산뽕의다리, 잔고사

리, 산딸나무, 붉나무, 좁개잎나무, 산새풀, 용수염, 미국쑥부쟁이, 미국가막사리, 관중, 고사리삼, 눈빛승마, 작살나무 등이 출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운악산 현등사 인근 능선부에는 애기나리, 참취, 애기며느리밥풀, 며느리밥풀꽃, 참으아리, 똑갈, 미국쑥부쟁이, 삽주, 금마타리, 부추, 우산나물, 마타리, 바위채송화, 돌양지꽃, 파리풀, 용수염, 긴잎갈퀴, 겨이삭, 큰기름새, 새, 기름나물, 각시원추리, 개갈퀴, 담배풀, 노간주나무, 신갈나무, 작살나무, 노린재나무, 산초나무, 참싸리, 참회나무, 고로쇠나무, 물박달나무, 미역줄나무, 십자고사리, 독보리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악산 능선의 서측으로 운주사에서 청룡암 구간에는 수영·개다래·미나리냉이·새모래덩굴·까치수염·홀아비꽃대·산개고사리·닭의장풀·으아리·닭의덩굴·큰개별꽃·노루오줌·며느리밀씻개·바위채송화·밤나무·촉백나무·작살나무·신갈나무·노린재나무·국수나무·떡갈나무·구실사리·털중나리·하늘말나리·초롱꽃·은방울꽃·개웃나무·참회나무·철쭉·노린재나무 등이 있으며, 대원사 부근에는 개사상자·고비·덤불쑥·미국쑥부쟁이·질경이·모시물통이·새삼·단풍잎돼지풀·그늘돌쩌귀·붉은대동여뀌·진득찰·주름조개풀·향유·사철쑥·길뚝개꽃·산쑥바귀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운악산 북측의 노체 고개 부근의 비포장도로를 따라 백령풀, 도라지, 털갈매나무, 싸리, 달뿌리풀, 참억새, 가는쑥부쟁이, 미국쑥부쟁이, 마타리, 미국미역취, 방아풀, 자주방아풀, 용담, 청미래덩굴, 미국가막사리, 매발톱나무, 미꾸리늪시, 흰꽃여뀌, 여뀌, 환삼덩굴, 지칭개, 바랭이, 아까시나무, 은사시나무, 족제비싸리, 길뚝사초, 팽이밥, 소리쟁이, 별완두, 애기똥풀, 명아주, 꿩의밥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운악산의 귀화 식물로는 닭의덩굴, 말냉이, 달맞이꽃, 백령풀,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길뚝개꽃, 미국쑥부쟁이, 미국가막사리, 지느러미영경귀, 실망초, 망초, 미국미역취, 독보리, 큰조아재비 등이 조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¹²⁾

리) 광덕산: 강원도 화천군과 철원군, 경기도 포천시에 걸쳐 있는 광덕산은 해발 1,046m로, 태백산맥에서 갈라진 광주산맥에 속한다. 동쪽에 북주산(1,152m), 서쪽에 명성산(923m), 남쪽에 백운산(923m) 등이 솟아 있으며, 산의 모습이 웅장하고 덕기가 있다 하여 이름이 광덕산이 되었다고 한다. 광덕산의 식물이 알려지게 된 것은 '90자연생태계 전국조사시 녹지자연도 분야의 중점조사지역으로 선정되어 Lee(1990)에 의해 식물상이 밝혀진 것이 처음이며, 이 조사를 바탕으로 경기도 동북부지방의 식물상을 밝힌바 있다(Lee et al., 1991). 이때 밝혀진 관속식물은 87과 261속 416종 6변종 2품종으로 총424종류였다. 광덕산의 한국특산식물은 총 17분류군이며, 이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특산식물 547 분류군의 3.1%이고, 소산식물의 3.2%에 해당된다. 2007년 조사에는 14분류군, 2011년 조사에는 9분류군이 조사되었고, 이중 키버들, 매자나무, 히어리, 애기바위솔, 개나리, 금마타리, 분취, 애기감동사초는 2007년에만 조사되었고, 모데미풀, 점현호색, 금강초롱꽃은 2011년에만 조사되었는데 이는 조사경로의 차이로 보인다.

광덕산의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은 총 20분류군이며 이는 IUCN 평가기준에 의한 국립수목원의 희귀식물 577분류군의 약 3.4%에 해당한다. 등급별로 멸종위기종(CR)은 발견되지 않았고 위기종(EN)은 모데미풀, 구실바위취 2분류군, 취약종(VU)은 모감주나무-식재, 금강초롱꽃 등 4분류군, 약관심종(LC)은 금마타리, 미치광이풀 등 12분류군, 자료부족종(DD)은

12) 이하의 내용은 「광덕산(경기도 포천시)의 식물상」(한국자연보호학회 편, 2014)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다.

벗풀 1분류군으로 조사되었다.

2) 새

포천시 수원산 일대에 분포하는 조류는 총 84종으로 논병아리, 해오라기, 검은댕기해오라기,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왜가리, 원앙,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붉은배새매, 새매, 황조롱이, 꿩, 꼬마물떼새, 흰목물떼새, 뺨뺨도요, 알락도요, 갯짹도요, 깍도요, 멧비둘기, 매사촌, 검은등뼈꾸기, 뼈꾸기, 병어리뼈꾸기, 두견, 소쩍새, 솔부엉이, 쇠뚝새, 물총새, 파랑새, 후투티, 청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큰오색딱따구리, 쇠딱따구리, 제비, 노랑할미새, 알락할미새, 백할미새, 검은등할미새, hing새, 직박구리, 때까치, 굴뚝새, 멧종다리, 쇠유리새, 울새, 유리딱새, 딱새, 검은딱새, 호랑지빠귀, 되지빠귀, 흰배지빠귀, 개똥지빠귀, 노랑지빠귀, 붉은머리오목눈이, 숲새, 휘파람새, 개개비, 노랑눈썹솔새, 쇠솔새, 산솔새, 노랑딱새, 큰유리새, 오목눈이, 쇠박새, 진박새, 곤줄박이, 박새, 동고비, 멧새, 흰배멧새, 노랑턱멧새, 족새, 되새, 꾀꼬리, 어치, 물까치, 방울새, 참새, 찌르레기, 까치, 까마귀가 확인되어 보고된 바 있다. 이 중에서 흰목물떼새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II급에 해당된다.

또한 포천시의 고대산·금학산·지장봉의 조류 서식을 확인한 결과, 고대산에서는 총 48종, 금학산에서는 총 68종, 지장봉 지역에서는 총 48종이 관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고대산에서 확인된 조류 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야생종으로 말뚝가리가 확인되었고, 들꿩·소쩍새·파랑새·청딱따구리·오색딱따구리·되지빠귀 등 특정 종도 확인되어 보고되었다.

2.2.3 포천의 민속 문화와 문화재

포천은 역사적으로 처음에 진한의 땅이었다가, 삼국 초기에는 백제의 영향 하에 있었다. 고구려 광개토태왕과 장수왕 때에는 고구려에 속하게 되었고, 신라의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함에 따라 그 판도 내에 들게 되었다. 이런 동안에 진한·백제·고구려·신라 등의 특유한 세시풍속이나 놀이들이 한데 뒤섞이게 되었다.¹³⁾ 뿐만 아니라 문화재적 측면에서도 각 나라의 유물들 및 뛰어난 자연경관, 6·25 전쟁의 흔적 등이 남아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들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포천 지역은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많아 농토를 개척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질도 맞지 않아 논보다는 밭이 우세하며 논농사와 밭농사를 겸하는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들이 다양하게 발전해 내려오고 있다.¹⁴⁾

(1) 민속 문화

1) 포천의 풍속과 놀이

민속놀이는 민속 오락, 민속 경기, 민속 유희, 민속 예능, 전승 놀이 향토 오락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포천도 현대 문명과 교육의 영향으로 차차 변해 가고 있으나, 아직 마을에

13) 이하의 내용은 『포천군지 下 - 문화재와 인물』(포천군지편찬위원회, (주)경기출판사, 1997), 포천시 문화관광 홈페이지(www.tour.pcs21.net)를 중심으로 발췌 하였으며, 기타 참고문헌은 해당 내용에 따로 표기한다.

14) 한동엽, 「포천메나리 농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 71쪽.

따라서는 일부가 전해지고 있다. 포천 지역에서 행해지던 민속놀이를 세시 놀이와 일상적인 놀이로 나누어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시 놀이: 정월의 설과 대보름 놀이는 전국적인 양상과 거의 비슷하다.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등과 여자들 놀이로는 반지놀이[가락지 찾기], 종지놀이, 호박따기, 춘향이놀이 등이 있다. 농악놀이는 정초, 대보름, 명절, 두레 때 주로 행해졌다. 주로 양반집에서는 종경도 또는 승경도 놀이도 행해졌으나 6·25 전쟁 이후의 자료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대보름의 다리밟기도 현재는 전승이 끊어진 상태이다.

특이한 것은 1월 16일 귀신날의 윷놀이와 널뛰기로, 이날 바깥출입을 삼가고 이들 놀이를 함으로써 ‘귀신 대가리를 부서뜨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포천시 화현면 화현4리에서는 대보름 축제를 행한다. 아침 10시 무렵에 전 주민이 모여 낮에는 윷놀이, 밤에는 대동 달맞이로 큰 횃불을 켜고 작은 횃불을 돌리며 절하면서 풍년과 건강, 소원 등을 기원하는데, 해마다 지내고 있다.

1월에는 윷놀이, 연날리기, 널뛰기, 줄다리기, 두레놀이, 지신밟기, 기세배 놀이, 달맞이(불놀이), 잣불켜기 등을 놀았다. 3월에는 질경이풀 또는 진달래꽃의 수술을 따서 서로 걸어 잡아당기면서 노는 ‘풀씨름’을 했다.

여름 놀이로는 단오의 씨름, 그네뛰기도 행해졌고, 겨울철이나 명절에는 아이들이 서로 마주 앉아 다리와 다리를 엮어서 노래를 부르며 다리를 세어 가는 ‘다리 세기’라는 놀이도 있었다. 이밖에 공기놀이, 방아깨비 놀이, 풍덩이 돌리기, 땅빼앗기, 바람개비 돌리기, 술래잡기(숨바꼭질), 두꺼비집 짓기, 목마차기, 수박따기, 낫치기, 대방 싸움(여름에 농민들이 논을 맬 때 편을 갈라 하는 김매기 놀이), 장치기(공치기) 등도 행해졌다.

가을에는 나무꾼들이 갈퀴를 던져서 승부를 겨루는 ‘갈퀴 치기’도 있었는데, ‘칼땅 치기’라고도 했다. 그리고 겨울에는 자치기, 팽이치기, 그림자놀이, 제기 차기, 포수놀이, 엿치기, 여자아이들의 실뜨기 등을 하였다. ¹⁵⁾

② 일상적인 놀이: 포천 지역에 전해 오는 일상적인 놀이들도 전국적인 놀이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보면 고누, 말타기, 가마놀이, 눈싸움, 딱지치기, 비석치기, 닭싸움, 돌차기(사방치기), 공말타기, 고무줄놀이, 깡통 차기, 말싸움놀이, 새끼줄 넘기기, 돈치기, 골패, 투전, 화투, 장기, 바둑, 비녀 혹은 수건돌리기 등이 조사·보고된 바 있다. 기타로는 성냥개비 놀이, 고생 잡기, 감자 무지, 어부심¹⁶⁾, 전치기, 화전놀이, 삼복놀이 등도 있었다고 한다.

2) 신앙과 의례

과거 포천지방의 민간신앙은 경기도의 전형적인 산악마을의 민간신앙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으리라고 추정된다. 많은 가정에는 가신을 모시고 추수 후에는 고사를 지냈으며, 산신제

15) ‘기세배 놀이’는 부락의 농악대와 함께 서열에 따라 농기를 숙여 인사하고, 장기 자랑을 하며 노는 놀이이다. ‘잣불 켜기’는 잣 알맹이에 바늘을 꽂아 불을 켜서 타는 상태에 따라 그해의 운수를 점치는 놀이를 말한다. 그리고 ‘포수놀이’는 겨울철 방안에서 종이에 왕과 포수를 반드시 쓰고, 나머지는 사람 수에 맞게 호랑이, 사슴, 토끼 등을 써서 접은 후에 높이 올렸다가 떨어뜨린 후 집어 본다. 왕을 집은 아이는 포수를 불러 마음대로 짐승 중의 하나를 잡아 오도록 명령하면서 노는 놀이이다.

16) 어부심이란 대보름 새벽 4시에 성명, 생년월일을 쓴 종이에 밥을 싸서 침을 뱉고 다리 위 하천에 버림으로써 액막이를 하는 풍속이다.

와 도당굿과 같은 다양한 마을제를 행하며, 무속도 당골을 형성하여 한양거리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다른 해안마을의 민간신앙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포천의 민간신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쇠퇴일로에 있고 얼마 안 가서 박제화 될 운명에 처해 있다. 포천 내 지역마다 상대적인 차이는 보이지만 동쪽의 산악지역에서 마저도 산신제와 같은 마을제를 중단한 곳이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는 것도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아예 대동굿이나 도당굿은 마을제에서 이제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같이 포천 민간신앙의 소멸은 처음 가신신앙에서 시작하여 마을신앙 그리고 다음 무속신앙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창수면과 관인면 등 3.8선 이북지역은 6·25전쟁과 새마을운동으로 민간신앙이 파괴되고, 소흘읍과 군내면, 포천읍 등 남부지역은 농공단지와 아파트의 건립으로 전통가옥과 자연촌락이 파괴됨으로써 민간신앙이 쇠퇴하고 있다.

한편, 포천지역이 현재에도 전통문화와 예향의 고장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해방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전통문화들이 유지, 보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3·8선을 기준으로 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쪽은 북한지역에 편입됨으로써 북한정권 초기에 실시한 미신 청산작업을 거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더구나 이 지역에 기성 종교들의 기도원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종교문화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민들 모두가 민간신앙에 대한 잔존의식까지 버린 것은 아닌 듯하다. 이는 이 지역민들 사이에서 신앙의 주류는 아니지만 아직도 그 흔적들을 많이 남기고 있다.

그럼에도 휴전선 전방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불안정한 삶을 누리는 지역민들이 많다. 그 때문에 무속신앙은 상대적으로 타 신앙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속신앙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안택굿이나 재수굿, 사령굿, 병굿, 마을굿을 연상하지만, 이곳의 무당들은 점복과 예언을 통해 개인의 재앙을 예견하여 부적을 써 주거나 간단한 고사를 지내줌으로써 재액을 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신앙은 6·25전만 하더라도 모든 자연마을에서 산신제, 대동굿, 탐제, 장승제 등이 보이고 있었고 마을제로서는 산신제가 중심을 이루었다. 일부에서는 당목과 돌무더기를 중심으로 당제를 지냈다. 최근에 다시 대동굿을 실시한 곳도 있기는 하나 대체로 산신제의 참여자가 노령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래지않아 소멸될 가능성이 많다. 전통가옥과 자연마을에 연관되어 있는 가정신앙과 마을신앙에 비하여 무속신앙은 개인의 불안한 삶을 해결해주는 기제로서 아직도 영향력이 있다. 자연신앙은 각 마을에 당목이 많아 수목송배와 바위송배 사상이 많이 보인다.

3) 민요와 무가

포천민요는 연천군, 가평군 및 중서 북부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강원도(원주 이북) 영향권에 있는 민요로서, 민아리의 꽃인 포천형 메나리와 희요인 조상맞이 등을 통해 포천 사람들의 창의적이고 밝은 품성을 보인다. 다음에 포천메나리를 중심으로 포천을 대표하는 민요 몇 가지를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① 포천 메나리¹⁷⁾는 1992년도에 경기도 대표로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품되어 부문별 우수상인 문공부 장관상을 획득하였다. 출연작품에선 나무꾼소리로서 자진아라리와 등짐소리가 불려지고, 소모는 소리, 열소리, 방아타령계, 방아소리, 우야헐헐과 함께 손으로 논맬 때의 메나리가 소개되었다.

17) (네이버 지식백과) 포천 메나리 (한국민속문화사전(민요 편), 국립민속박물관).

<메나리>는 ‘미나리’ 또는 ‘미노리’라고도 하며, 경기북부와 강원도 일대에서 부르는 농업 노동요이다. 지역에 따라 ‘밭매는 소리’,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등으로 부른다. <메나리>라는 명칭은 ‘산유화’를 풀어서 ‘외몰이’라 한 것이 메나리로 되었다는 설과, 옛 민요 ‘미나리 꽃은 한철이라’ 하는 데서 나왔다는 설이 있다.

『한국민요대전』에 경기도 포천 지역의 메나리 두 가지가 조사되어 있다. 모두 논밭 때 부르는 소리이다. 신북면 계류리의 메나리는 4음보 1행으로 된 소리를 한 사람이 메기면 다른 사람들이 메기는 소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선후 반복창의 형태이다. 가산면 금현리의 메나리는 4음보 1행으로 된 한 절의 사설을 메기는소리·지르는 소리·받는소리·내는 소리·맺는 소리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길게 부른다. 신북면의 메나리와 금현리의 메나리는 사설의 내용이 비슷하며, 4음보 1행으로 이루어진 사설의 내용이 다음 행으로 계속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논매는 소리>가 대부분 메기고 받는 가창방식인 데 비해, 포천 신북면의 메나리는 선후 반복창으로 부르고, 가산면의 메나리는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부르는 독특한 가창 방식을 지녔다. 특히 소리를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부르는 가산면의 메나리는 독특한 가창 방식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 8월 21일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되었다.

‘포천 메나리’의 사설은 4음보 1행을 기본으로 한다. 가산면의 메나리는 논매는 사람들을 다섯 패로 나누어 노래를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부르지만, 뜻 없는 여흥구로 부르는 ‘지르는 소리’를 제외하면 한 절의 사설은 4음보 1행의 형식을 지닌다. 1절을 예로 들면 “이 논배미 물세 좋소 이 논배미가 물세 좋아”가 된다.

각 절의 사설을 이와 같이 정리하면 “이 논배미 물세 좋소 이 논배미가 물세 좋아/ 일천 가지 벌여서는 삼천 석이나 솟는다네/ 삼천 석이 솟았으면 부모 봉양도 하세/ 부모 봉양 허신 담이룬 처자 건사도 하여 보세/ 처자 건사 허신 담이는 친구 접대도 하여 보세”가 된다. 앞 절의 노랫말을 뒷 절에서 이어가는 방식이다.

포천 메나리는 4음보 1행으로 된 한 절의 사설을 메기는 소리·지르는 소리·받는소리·내는 소리·맺는 소리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짧은 노랫말을 헤아릴 수 없는 박자로 길게 부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 절의 사설이 구성되는 방식은 ‘되풀이 받기’와 ‘이어 받기’의 두 가지이다. ‘되풀이 받기’는 “이 논배미 물세 좋소 이 논배미가 물세 좋아”와 같이 메기는소리를 되풀이해서 받는 방법이며, ‘이어 받기’는 “일천 가지 벌여서는 삼천 석이나 솟는다네”와 같이 앞 절의 사설 뒷부분을 다음 절의 메기는 소리로 반복하고, 받는소리·내는 소리·맺는 소리에서 내용을 이어가는 방법이다.

포천 메나리의 이러한 특징에서 <논매는 소리>의 다양한 가창방식과 사설 구성 방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집단적인 노동에서 생성되고 전승되는 민요의 형태가 각 지역마다 독창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② 잣 따는 소리

포천 나무꾼소리(올라간다-이요, 올라하 가네, 어덜떨 거리고, 나 올라가노나)와 동류의 곡이다. 올라간다는 가사의 나무꾼소리 내지 풀나무 깎는 소리는 연천군의 미산면 울어리 소리와 고흥군의 산 떨어에도 있지만 이들과는 곡이 같지 않고 대신에 연천군 미산면 이외의 올라간다 곡이나 파주군 적성면의 것과 상관된다.

③ 조상맛이, 행상, 달구

상부소리 중에서 방에서 널을 내올 때의 액 막음소리는 나오질 않았으나 바가지 깨고 나가는 풍습은 있었다.

조상맛이는 희요(稀謠)에 속한다. 이는 내촌면 마명2리에 전해오는 상례풍속으로 장례전날 밤, 마당에서 빈 상여를 매고 서서 부른다. 선소리꾼이 요령을 흔들며 회심곡 가사로 맥이면 상두꾼들은 제자리걸음으로 상여를 놀리며 "오오-오,에에-에,위여-오"하고 받는다. 북을 매박에 올린다. 상주 일행이 상여 앞에 마주서서 이따금씩 큰절을 하면 상두꾼들이 상여를 덮어 씌워 상주의 갈건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상여에 매단 주머니에 돈이 쌓여가는 동안 오가는 만담에 이윽고 상주도 웃고, 동네 부인네도 "좋은 때에 가셨수"하며 돈 한잎 넣곤 춤을 한바탕 추고 나간다. 상두꾼이나 모여 선 마을사람들 얼굴이 전혀 엄숙하지가 않다. 장례전날 상주를 위로한다는 점은 전라도의 다시래기와 통하나 후자는 연극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이와 다르다.

의 달구소리는 받음구가 "에여라 달구요" 또는 "에이허라 달공"이다. 메·반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씩이며 마지막은 새쫓는 시늉으로 "우여- "할 뿐 '우야헐헐'이란 받음구를 부르진 않는다. 메김가사의 내용을 보면 ①한발 두뺨의 달굿대를 쥐고 광중에서 빙글빙글 돌며 터를 다지는 일에 관한 것과 ②좋은 묘자리를 잡으려 팔도강산을 다 다닌 후, 이곳저곳 다 제쳐놓고 이 명당을 잡게되었다는 내력에 이어 ③앞으로 부귀공명을 누리게 된다는 덕담을 읊은 다음 ④회심곡 ⑤초한가를 집어 넣었고 ⑥끝은 새쫓는 소리 "우여 "로 맺었다. 달구질 때에 영중면 거사리에서는 묘소의 뒷쪽에다 따로 빨랫줄 같이 새끼줄을 걸어놓고 돈을 걸어주어, 선소리꾼의 달굿대에 걸어주거나(예;파주군), 묘봉의 꼭지에 꽂아둔 연춧대에 꽂아주는 경우(예;상주군)와 대조를 이루었다. 위의 초한가 대신에 포천읍의 이윤학은 아래와 같은 상사별곡(12가사의 그것과는 다르다)으로 메기기도 한다.

(2) 문화재

1) 문화재 현황

포천시에는 많은 문화재가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 10점,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19점이 있으며, 포천시 향토유적 41점 등이 있다. 이밖에도 포천시의 역사와 문화를 말해주는 문화유적과 역사의 현장, 유물이 널리 분포되어 역사와 문화의 고장을 대변하고 있다. 포천시의 지정문화재 현황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표 3 < 포천의 문화재 현황표 >

구분	종목	문화재명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제578호	포천 방어 벙커
	보물 제1174호	이중로정사공신교서
	사적 제403호	반월성지
	천연기념물 제436호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천연기념물 제460호	직두리 부부송

18) 이하의 내용은 『포천군지 下 - 문화재와 인물』(포천군지편찬위원회, (주)경기출판사, 1997), 포천시 문화관광 홈페이지(www.tour.pcs21.net)를 중심으로 발췌 하였으며, 기타 참고문헌은 해당 내용에 따로 표기한다.

	천연기념물 제542호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명승 제93호	포천 화적연
	명승 제94호	포천 한탄강 멩우리 주상절리 협곡
	천연기념물 제537호	포천 한탄강 현무암협곡과 비둘기낭폭포
	등록문화재 제271호	구 천주교 포천성당
경기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85호	고모리산성
	유형문화재 제38호	포천 풀피리
	무형문화재 제35호	포천 메나리
	기념물 제130호	인평대군 묘 및 신도비
	기념물 제30호	서성선생 묘
	유형문화재 제75호	인평대군치제문비
	기념물 제24호	이항복선생 묘
	기념물 제102호	총목단
	기념물 제140호	영송리 선사유적
	유형문화재 제220호	동화사 목조불좌상
	문화재자료 제138호	안동김씨 고가터
	유형문화재 제70호	용연서원
	유형문화재 제64호	청성사
	기념물 제46호	화산서원
	문화재자료 제16호	포천향교
	유형문화재 제155호	어룡리 석조여래 입상
	기념물 제220호	자작리 유적지
	문화재자료 제47호	금현리 지식묘
	기념물 제30호	채산사

포천의 지정문화재들 중에서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포천 화적연>, <포천 한탄강 멩우리 주상절리 협곡>, <포천 한탄강 현무암협곡과 비둘기낭 폭포>는 문헌자료 포천의 관광자원에서 소개할 것이므로 생략한다. 또한 <포천 메나리> 역시 문헌자료 포천시의 민속 문화에서 다루었으므로 소개하지 않는다. 이들 문화재를 제외하고, 역사적·문화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지정문화재 소개

① 포천방어벽커(등록문화재 제578호): 포천 방어벽커는 원형철근을 약 20cm 내외 간격으로 배치하여 약 90cm 두께의 철근콘크리트 벽체를 형성하였고, 총구의 크기 및 모양은 수평으로 긴형과 정방형 등 다양하며 총구의 형상은 바깥쪽에 비하여 안쪽이 크고 넓다. 포천 방어 벽커는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던 1948년에 북한군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당시 38도선 부근에 설치한 4개의 진지를 설치하여 북한군과 대치하

고 있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6·25 전쟁 후 4개의 진지 중 3개소는 훼손되었고 포천 방어 병커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

② 이중로정사공신교서(보물 제1174호): 이중로정사공신교서¹⁹⁾는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이등공신(靖社二等功臣)에 책봉된 이중로에게 관직과 토지·노비 등으로 포상하는 내용의 교서이다. 1·2·3등의 공신명단이 실려 있다.

보물 제1147-2호인 이중로영정은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의자에 앉은 전신좌상으로, 모란 및 해태문양이 수놓인 흉배를 착용하고 있으며, 학정금대(鶴頂金帶)를 두르고 있어, 이 초상화가 무관 종2품 때의 도상임을 알 수 있다.

③ 반월성지(사적 제403호): 해발 283.5m의 청성산(일명 반월산) 정상부를 둘러가며 쌓은 테피식 반월형(半月形) 산성 터이다. 둘레가 1,080m로 포천시 주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성곽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크다. 문지 2개소, 치성 4개소, 건물지 6개소, 우물지, 수구지, 장대지, 망대지 2개소가 발굴되었고, 마홀(고구려 때 포천시의 지명)이라고 적힌 명문기와 등 각종 유물이 출토되었다.《포천시읍지(抱川郡邑誌)》에는 ‘고성 반월산성은 돌로 쌓은 것으로, 둘레가 1937자[尺]이고, 가운데에 우물이 2개소 있고, 사방으로 갈라지고 가파르며 지금은 폐(閉)하여졌으나 수축(修築)하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경기도에 있는 사적지 중 유일하게 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이다.²⁰⁾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반월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성되어 통일신라시기까지 사용되다가 고려시대에는 폐성이 되었으며, 조선시대 광해군 10년 후금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개축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월산성의 중심 연대는 대략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데, 고구려에 의하여 초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단언을 내리기에는 아직 증빙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²¹⁾

④ 직두리 부부송(천연기념물 제460호): 직두리 부부송은 수령이 약 3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소나무로서, 나뭇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경향이 있어 흔히 ‘처진 소나무’로 불리는 종류이다. 나무의 크기가 높지는 않으나 수평으로 길게 뻗어있는 마치 우산을 펼친 듯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소나무는 처진소나무의 일종으로서 원래는 “포천 직두리의 처진소나무”로 명명하기로 하였으나 관리단체인 포천시가 천연기념물 지정을 기념하고 지역주민들의 보호의식을 높이고자 이름을 공모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나무가 부부와 같은 정겨운 형상으로 서있기 때문에 부부송(夫婦松)이라 부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이러한 특이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 나무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조선(포천)의 정기를 끊기 위해 영험한 신성을 가진 이 소나무의 가지 10개를 잘라 버렸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도 무속 신앙인들은 기도처로 이용하고 있다.

⑤ 구 천주교 포천성당(등록 문화재 제271호): 구 천주교 포천성당은 1955년 12월 10일 6군단 공병대의 지원을 받아 지은 고딕 양식이 가미된 장방형 강당식 석조 성당이다. 1990

19) [네이버 지식백과] 이중로정사공신교서및초상 [李重老靖社功臣教書—影幀] (두산백과)

20) [네이버 지식백과] 포천 반월성 [抱川 半月城] (두산백과)

21) 단국대학교 문화대학 사학과, 『포천 반월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1~4(1996~1999) 참조.

년 7월 11일 화재로 바닥, 지붕, 목조 목조창틀 등이 전소되어 현재는 벽체만 남아있다. 건물 형태는 정면 상단에 종탑을 두고 60cm 정도 두께의 석축을 쌓아 벽체를 만들었으며 건물을 외부에서 지탱해주는 버트레스 장치를 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6·25전쟁 직후 건축된 석조건물의 전형적인 의장적 특성(뾰족아치 창호)과 공간적 특성(강당형 평면 구조)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6·25전쟁 전후 군부대가 직접 세운 성당 중 유일하게 남아있어 종교 및 건축사적 가치가 있다.

⑥ 인평대군 묘 및 신도비(기념물 제130호)와 인평대군 치제 문비(유형문화재 제75호): 인평대군은 효종의 아우로, 그는 글씨와 그림에 능하였고, 제자백가에 능통할 만큼 학문에 심취하는 면학자세를 보였다. 시호는 충경(忠敬)이다.

인평대군의 묘는 복천부부인 오씨와의 합장묘이다. 이는 조선시대 전형적인 능원제의 예에 따라 정교한 석물들로 단장되어 있다. 특히 묘소 아래의 신도비는 귀부와 이수(문양이 뛰어난 조선시대 전형을 보여준다. 또한 신도비의 변천사나, 효종과 숙종 등 조선 후기 임금들의 인간애나 학문적인 관심사를 단편적이거나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묘역 하단에는 효종·숙종·영조·정조의 어제친필로 된 치제문비를 포함해서 2기의 치제문비가 인평대군의 업적을 예찬하고 있다.

인평대군 치제 문비는 묘소 좌측 아래에 있으며 정면 2칸, 측면 1칸의 7평 크기 비각 속에 2기를 안치하였다. ‘麟坪大君遷葬時別遣右承旨致祭文 (인평대군천장시별견우승지치제문)’이란 비문은 1693년(숙종 19)에 쓰고 1724년(경종 4)에 세웠다.

비문 전·후면은 각각 효종과 숙종의 어제어필이며, 전액은 서평군 효가 썼다. 다른 하나의 비는 왕이 신하를 보내어 이를 치제하게 한 내용과 제문을 적었다. 상단은 영조가, 하단은 정조가 각각 어제어필하였다.²²⁾

⑦ 이항복 선생 묘(기념물 제24호): 조선 중기의 정승인 필운 이항복(1556 ~ 1618) 선생의 묘지이다. 고려 후기의 대학자 이제현의 후손이며, 특히 죽마고우인 이덕형과의 지기와 재치에 얽힌 많은 얘기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선조 13년 (1580)에 문과에 급제하여 정여립 모반사건을 다스린 공으로 평난공신의 호를 받았다. 광해군 9년 (1617) 인목대비 김씨를 왕비에서 폐위하여 평민으로 만들자는 주장에 반대하다 1618년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고향인 경기도 포천에 매장되었으며, 그 뒤 포천과 북청에 사당을 세워 제사를 받들었다.

부인 안동 권씨와의 합장묘로 봉분은 2개이며, 묘비, 상석, 망주석, 문인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비탈 아래 약 20m 지점에는 앞면 3칸·옆면 2칸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 있으며, 사당의 오른쪽에는 효종 3년(1652)에 세운 신도비(왕이나 고관 등의 평생 업적을 기리기 위해 무덤 근처 길가에 세운 비)가 있다.²³⁾

⑧ 충목단(기념물 제102호): 사육신 중의 한 분인 유응부 선생과 한남군 이어, 병사 양치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제단으로, 어린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 실패하여 처형당한 이들의 충절을 기리고 있다.

담장을 두르고 출입문을 마련한 이 단에는 낮게 마련된 대지 위로 3기의 비석이 놓여 있다. 가운데에는 ‘충관유응부선생’의 비석이, 그 양 옆으로 ‘병사양치선생’, ‘한남군이어선생’

2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www.encykorea.aks.ac.kr>)에서 발췌하여 서술하였다.

23) 이상의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http://korean.visitkorea.or.kr/>)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의 비가 각각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또한 유응부 선생의 고향이었던 만큼, 단 옆으로 선생의 옛 흔적을 기리는 '유허비'를 비각 안에 모셔두었다. 조선 영조 22년(1746)에 설치된 것으로, 매년 가을마다 유림들에 의한 제사가 행하여진다.²⁴⁾

⑨ 용연서원(유형문화재 제70호):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에 있는 이덕형과 조경을 기리기 위해 창건한 조선 후기 서원이다. 1691년(숙종 17)에 이사상 등의 남인계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포천에 은거하며 만년을 보낸 이덕형과 조경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남인 집권기인 1692년에 '용연(龍淵)'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며, 경기도 내 남인 세력의 유력한 근거지로서 선현을 모시고 향촌 교화를 담당해 왔다. 임진왜란 당시 이덕형이 세운 공로가 인정되어, 1868년(고종 5) 흥선 대원군의 서원 철폐 시에도 사라지지 않고 존속하였다.

1976년 8월 27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0호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봄·가을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용연서원은 흥선 대원군의 서원 철폐 시에도 살아남아 경기도 내 유일의 남인계 서원이었다. 선현의 향사와 향촌 교화가 서원 본래의 사명이지만, 최근까지도 용연서원에서는 인근의 신북초등학교, 영중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통 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교육에 힘쓰고 있다.

⑩ 청성사(유형문화재 제64호): 청성사는 통일신라 말기의 학자인 고운 최치원(857~?)선생을 제향한 사당이다. 최치원은 12세 때인 신라 경문왕 9년(869)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과거에 급제, 전주 표수현에서 고을의 교육을 담당하던 관리인 현위를 거쳐 관리들의 감찰을 담당하는 시어사 등을 역임하였다. 879년에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토벌하기 위한 <토황소격문>을 지어 붓으로 적을 물리칠 정도로 명문장가였다.

통일신라 885년(헌강왕 11)에 귀국하여 당과의 외교문서를 작성하고 정리하는 직책을 맡았다. 894년(진성여왕 8) 나라를 개혁하기 위한 <시무10조>를 올려 아찬의 관직에 올랐으나 중앙귀족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하자, 관직을 버리고 가야산 해인사에 들어가 은둔하며 여생을 마쳤다.

최치원은 주옥같은 문장을 많이 남겨 동방 문장의 창시자라 불렸으며, 유교의 성인들을 모신 문묘에 배향되었다. 청성사는 정면3칸 측면1칸 반의 평면규모로 지붕이 맞닿아 있는 맞배지붕 형태이다.

⑪ 화산서원(기념물 제46호): 화산서원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있는 이항복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진 서원이다. 화산서원은 처음에는 백사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다. 백사서원은 1631년(인조 9)에 포천 유림의 공의로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옥금동에 창건되었다. 이후 1635년 지금의 화봉산 아래로 이전하였으며, 1659년(효종 10) 이곳의 꽃피라는 지명을 따서 '화산(花山)'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1868년(고종 5)에 서원 철폐령으로 사라지자 이때 모시던 위패를 땅에 묻었다가 포천 유림에 의해 향사를 이어 왔으며 사우인 인덕전을 복원하고 지속적으로 동재·서재 담당, 내·외 삼문, 동·서 협문, 각 3칸의 필운재와 동강재를 지었다. 현재 건물은 고종 때 사라진 것을 1971년에 복원한 것이다. 1975년 9월 5일 경기도 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되었다.

24) 이상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에서 발췌하였다.

㉔ 포천향교(문화재자료 제16호): 1983년 9월 19일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6호로 지정되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다. 고려시대인 1173년에 세워졌다고 전해지며,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1594년(선조 27)에 중건하였고, 1916년에 중수하였다. 그 뒤 6·25전쟁으로 파괴된 것을 포천 유림에서 뜻을 모아 1962년 다시 중건하였고 1984년에 보수하였다. 명륜당은 맞배지붕에 정면 4칸, 측면 3칸 구조로 목부에 단청을 칠하였고, 앞마당의 동재·서재는 맞배지붕에 정면 3칸, 측면 1칸이다. 내삼문은 솟을대문에 맞배지붕이며 좌우에 다시 담장을 연결하여 쌓았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에 단청을 칠하였고, 공자, 사자, 맹자, 안자, 증자 5성과 정자, 주선, 고순, 정순 등 송조 4현, 설총, 최치원, 안향, 정몽주 등 한국 18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²⁵⁾

㉕ 어룡리 석조여래 입상(유형문화재 제155호): 어룡리석조여래입상은 왕방산 해룡사의 서북향 50m지점에 있다. 머리 위에는 혹처럼 생긴 큼직한 육계가 있는데 육계는 부처의 지혜를 상징한다. 얼굴은 역삼각형이다. 이마에는 미간 사이에 백호를 새겨놓았다. 백호는 부처의 흰 머리터럭으로 백호에서 나오는 광명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춘다고 한다. 법의는 통견으로 배의 하단에 U장형의 유문이 유려하게 흐르고, 양 소매에서 내려온 의문은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배를 약간 내밀고 있으며, 왼손은 펴고 오른손은 들어 어깨에 대고 있는데, 특히 얼굴 모습과 배를 내민 형태에서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양식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얼굴에 살이 빠져 있고 양 손의 길이를 다르게 표현하는 등 의문의 처리가 소략한 점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기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㉖ 채산사(기념물 제30호): 채산사는 조선 말기의 위정척사사상을 주창한 유학자이자 항일의병장인 면암 최익현(1833~1906)선생과 항일 독립운동가인 염재 최면식(1981~1941)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사당이다.

최익현은 1855년(철종6)문과에 급제하여 장령, 동부승지, 공조참판,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공조판서 때 고종의 친정을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려 흥선대원군이 정권에서 물러나도록 하였다. 1905년(광무9) 일본의 강제적인 을사보호조약 체결에 항거, 전라도 순창에서 의병운동을 일으켰다가 대마도로 유배되었다. 최익현은 대마도로 건너가기 전 부산 앞바다에서 신발에 모래를 채우며 ‘비록 육신은 일본으로 가지만 일본 땅은 밟지 않겠다.’라고 했으며, 유배지에서는 ‘일본의 곡식을 먹을 수 없다.’ 하여 단식을 한 끝에 세상을 떠나 그의 나라를 위한 절개를 엿 볼 수 있다.

최면식은 최익현의 손자로 대한광복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18년 체포되어 1년간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 후 광복회의 재건을 위하여 힘썼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채산사는 일본에 의해 훼손되었다가 1949년 지역의 유생들이 면암의 뜻을 기리고자 사당을 다시 지었다.

2.2.4 포천의 인물

(1) 전기의 인물

25) 이상의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http://korean.visitkorea.or.kr/>)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1) (1400~1483)

조선전기의 무신이다.²⁶⁾ 본관은 청주이고 호는 퇴은으로 도첨의시중 기의 증손이자, 세종 때 단종의 유모였던 양혜빈의 숙부로 충목단에 추배되어 있다. 세종 때 김종서가 여진족을 토벌하여 6진을 개축할 때 종사한 공을 인정받아 함경도병마절도사 황해도병마절도사 영암군수 등을 지냈으나 세조가 계유정란으로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하는 한편 박팽년 등 사육신이 화를 입자 관직을 청산하고 기지리(틀무시)에 은거하여 두문불출하였다. 정조 때 단종에 대한 충성을 인정받아 포상되었으며 묘는 기지리에 있다.

2) 이어(1435~1459)

조선전기의 충신이다. 본관은 전주고 세종의 서자로 혜빈 양씨 소생으로 한남군에 봉작되었다. 성품이 온순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세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1455년(단종 3) 계유정란으로 세조가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함에 어머니인 혜빈 양씨를 단종을 봉양했다는 죄로 사사하였고 이듬해 아우 영풍군과 함께 사육신의 사건에 연루되어 함양으로 유배되었다. 1457년(세조 3) 금성대군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모의하다가 발각되었으나 세조의 동정으로 죽음을 면하고 다시 유배되어 유배지에서 죽었다. 영조 때 신원되었으며 소흘면 충목단에 배향되어 있다.

3) 이의(1439~?)

조선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성주이고 자는 인로며 호는 추강으로 관찰사 정녕의 아들로 풍수지리에 능하였다. 1469년(예종 1) 사마시에 합격한 후 1474년(성종 5) 형조좌랑을 역임하였으며 1477년 호조좌랑으로 재임하면서 정숙공주가 승정원의 옛터에 집을 지으려 하자 풍수지리적으로 이곳이 한양의 주산임과 동시에 명당임으로 관을 지을 곳이지 사저를 지을 곳이 아니라 하여 그 불가함을 주청하였다. 1491년(성종 22) 강원도관찰사, 충청도관찰사를 지낸 후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1494년 대사헌을 거쳐 이듬해 연산군이 즉위하자 효우를 돈독히 하고 청정을 닦으며 간쟁을 받아들이는 등 시의 10조를 올렸으며 1496년(연산군 2) 한성부우윤, 한성부좌윤에 이르렀다. 묘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에 있다.²⁷⁾

4) 홍지성(1528~1597)

조선중기의 학자이다. 본관은 남양이고, 자는 강중이며 호는 불정산인으로 사림파 학자 유손의 아들로 내촌면 불정산 아래에서 태어났다. 성품은 고결하고 겸손했으며 읽지 않은 책이 없어 이항복 역시 사우로 대하였다. 부친이 사화로 고초를 겪는 것을 보고 관직을 단념하고 향리에 은거하며 학문에 정진하고 후진양성에만 정진하였다. 1591년(선조 24) 예조에서 그 학문과 재능으로 벼슬을 청하였으나 사양하였으며 고문에 특히 정통하였다고 한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 공주 무성산으로 피난하였다가 왜병의 해를 입어 죽었다. 유사를 권필이 지었고 묘는 내촌면 불정산 아래에 있다.

26) 이하의 내용은 『포천군지 下 - 문화재와 인물』(포천군지편찬위원회 편) 제2장 인물/포천 597 ~756p와 포천시 문화관광 홈페이지(www.tour.pcs21.net)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으며, 기타 참고문헌은 해당 내용에 따로 표기한다.

27) 이의에 대한 내용은 『경기 인물지』(경기도, 1991)에서 발췌하여 서술하였다.

5) (1532~1607)

조선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장수이고 자는 경문이며 호는 지천으로 조선초기 영의정을 지낸 희의 후손이자 행호분위부호군 열의 아들로 영종면 거사리에서 출생하였다. 1552년(명종 7) 사마시에 합격하고 1558년 식년문과 병과로 급제하여 사관을 배수받아 승문원지예문관검열 봉교 시강원설서 등을 역임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호소사로 왕자 순화군을 배종하여 관동으로 피신하여서는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알리는 격문을 돌렸다. 그러나 왜병의 북상으로 회령까지 들어갔다가 국경인의 모반으로 왕자와 함께 포로가 되어 안변의 토굴에 감금당했다. 다음해 왜병이 철수할 때 석방되었으나 이때 작성한 항복권유의 글은 이후 동인과 서인간의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라 동인의 집요한 공격으로 길주로 유배당하여 1597년(선조 30) 특명으로 석방되었으나 복관되지는 못한 채 죽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문장과 시, 서예에 능하여 이이가 그 문장을 점필재와 비교할 만하다고 칭찬하였으며 저서로는《지천집》이 있다.

6) 서해(1537~1559)

조선중기의 학자이다. 본관은 달성이고 자는 정지며 호는 함재로 언양현감 거광의 증손으로, 고성이씨 이난의 사위이자 약봉 서성의 부친이다. 일찍이 퇴계 이황에게 수업하였으며 부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임에도 이를 개의치 않고 성리학에 몰두하여 학문의 명성을 떨쳐 사림의 중망을 얻었으나 22세의 나이로 요절하여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이씨부인은 남편이 죽자 아들을 데리고 서울 약현으로 이사하여 궁중요리중 하나인 약식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약식이 비롯되었다는 일화가 아들 성의 호를 약봉이라고 지었다는 일화와 함께 전하여 온다. 문집《함재집》이 있으며 묘는 소흘면 송우리에 있으며 묘갈문은 아들 성이 지었다. 대구의 귀암서원에 제향되어 있다.

7) 이계인(1550~1579)

조선중기의 효자이다. 본관은 용인이고 자는 시망으로 종란의 증손, 진충의 아들이다. 이계인의 어머니는 그가 출생한 지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다. 이계인은 재주가 뛰어나며 호기가 있고, 곧은 성격에 곧은 말을 잘하였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써 1568년(선조 1) 사마시에 응시하여 생원과와 진사과 양과에 합격하였고, 이후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에 매진하였다.²⁸⁾ 1574년에 아버지가 별세하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1580년에 31세로 죽었다. 묘는 내촌면 내리에 있으며 묘갈명은 우암 송시열이 지었다.

8) 이호민(1553~1634)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이고 자는 효언이며 호는 오봉, 수와, 남곽이다. 이천현감 국주의 아들이자 사직 박여의 외손이다. 영리하고 민첩하기가 남달라 7세때부터 경사를 통달하였고 200여명의 이름이 적혀있는 방을 한번 보고도 착오 없이 기억하였다고 한다. 1608년(선조 41) 적서의 구별 없이 장자를 왕위에 옹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선조의 뒤를 이어 영창대군의 즉위를 반대하고 광해군을 지지하였으며 광해군이 즉위하여서는 즉시고부청시승습사로 명나라에 가서 광해군의 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광해군이 그 공로를 포상하려 하자 고부시공로사차를 올려 사양하였다.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하여서는 구신으로 우대되었으나 시와 술로 소일하였다. 시호는 문희이며 청백리에 녹훈

28) 『송자대전(宋子大全)』,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참조(<http://www.koreanhistory.or.kr>)

되었다.

이호민은 문장에 뛰어났는데, 그가 지은 교서의 내용이 간절하여 보는 이의 감동을 자아냈다고 한다. 그러나 문장보다는 시에 뛰어났다는 평을 듣기도 하였다. 왜군을 피해 의주에 있을 때 적의 수중에 있던 한성을 3도 군사가 일제히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시 <용만행재 하 삼도 병진 공한성>은 널리 회자되었다고 한다.²⁹⁾ 지례의 도동향사에 제향되고 있으며 저서로《오봉집》16권이 전한다. 묘소는 양평 옥천면 신복리에 있으며 신도비문은 이명환이 짓고 김주우가 썼으며 신익성이 전액을 하였다. 종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영정을 비롯한 유품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144호로 지정되어있다.

9) (1556~1618)

조선시대 문인으로, 포천에서 거주했고, 가사년 금현리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호는 백사, 필운, 동강, 청화진인, 소운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고려의 문하시중 이제현의 후손이고, 권율의 사위이다. 1575년 진사 초시에 오르고 1580년(선조 13) 알성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부정자가 되었다. 이듬 해 예문관검열이 되었을 때 마침 선조의 《강목 綱目》 강연이 있었는데, 고문을 천거하라는 왕명에 따라 이이에 의해 이덕형 등과 함께 5명이 천거되어 한림에 오르고, 내장고의 《강목》 한 질씩이 하사되고 옥당에 들어갔다. 1583년 사가독서의 은전을 입었다. 한편, 파당을 조성하는 대사간 이발을 공박하다가 비난을 받고 세차례나 사직하려 했으나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특명으로 옥당에 머물게 한 적도 있었다. 1617년 인목대비 김씨가 서궁(경운궁. 곧 덕수궁)에 유폐되고, 이어 폐위해 평민으로 만들자는 주장에 맞서 싸우다가 1618년에 관작이 삭탈되고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죽은 해에 관작이 회복되고 이 해 8월 고향 포천과 북청에 사당을 세워 제향했으며 1659년(효종 10)에는 화산서원이라는 사액이 내려졌다. 1832년(순조 32)에는 임진왜란 발발 네 번째 회갑을 맞아 제향이 베풀어졌다. 저술로는 1622년에 간행된 《사례훈몽》 1권과 《주소계의》 각 2권, 《노사영언》 15권과 시문 등이 있으며, 이순신총렬묘비문을 찬하기도 하였다. 시호는 문충이다.

10) 이덕형(1561~1613)

조선중기 문신이자, 학자이다. 본관은 광주고 자는 명보며 호는 포옹산인, 쌍송, 한음으로 좌의정 극균의 5대손, 지중추부사 민성의 아들이다. 포천읍 자작촌에서 출생, 성장하여 이곳을 세거지로 한 경주이씨의 백사 이항복, 봉래 양사언과 절친하였으며 용연서원에 제향되어있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있고 학문에 정진하여 1580년(선조 13) 20세의 나이로 별시문과 을과에 급제, 승문원에 재직하면서 선조의 눈에 들어 서적을 하사받는 특전을 누렸으나 장인이산해가 도승지로 재임하고 있을 때라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 곧 사양하였다. 이어 홍문관 정자를 배수받았고 1582년에는 조사로 온 명나라 사신 왕경민이 그의 소문을 듣고 만나려 하였으나 사신을 사사로이 만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사양하자 왕경민은 그의 인격이 출중함과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담은 글귀를 지어 전하기도 하였다.

명의 제독 유정 및 이순신과 함께 순천에서 고시니의 군사를 대파하기도 하였다. 1602년 40이 갓 넘은 나이로 영의정에 올랐으며 1604년(선조 37) 양란 때의 공을 들어 이항복이 호성공신에 녹훈할 것을 주청했으나 시기하는 무리들의 반대와 본인의 고사로 책록되지 못

2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했다. 1613년(광해군 5) 이이첨의 사주로 삼사에서 영창대군을 극형에 처할 것과 폐모론을 일으키자 이항복과 함께 극력 반대하였으나 모함을 받아 삭탈관직 당하여 양평에서 은둔 중 병사하였다. 시호는 문익이다.

포천의 용연서원과 함께 상주의 근암서원에 제향되고 있는데 1829년(순조 29)과 1831년 근암서원과 안동의 소수서원에 영정을 봉안하였다. 글씨에 뛰어나《근묵》에 유필이 남아있으며 저서로《한음문고》가 전한다. 묘는 양평 양서면 목왕리에 있는데 1985년 경기도 기념물 89호로 지정되었으며 신도비문은 용주 조경이 지었고 묘지명은 이항복이 지었다.

(2) 후기의 인물

1) (1581 ~ 1660)

조선시대 문인으로 가산면 정교리에 우거하였고, 이곳에 묘가 있다. 호는 수우당, 본관은 전주이다. 1623년 유생으로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정사공신 2등으로 가선대부에 오르고 연양군에 봉해졌다. 다음 해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협수사가 되어 이천으로 달려가서 향병을 모집해 길목을 지켰다. 그러나 이괄이 다른 길을 택해 곧바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안현에서 정충신 등과 함께 반란군을 격파하였다. 일곱 번이나 판서를 역임했고 영의정에까지 올랐으나, 청빈해 빈한한 선비집 같았다 한다. 장유, 최명길, 조익과 교유하였다. 시호는 충익이다.

이시백과 관련해 널리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그가 조선후기의 소설인 <박씨전>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박씨 부인이 남편 이시백을 도와 출세시키고 호란을 극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설적 허구다. 이시백의 실제 부인은 초취 남원 윤씨와 재취 창원 황씨였다. 윤씨와의 사이에서는 3남 2녀를 두었고 황씨와는 자녀가 없었다. 묘소는 지금 충남 천안 동남구 광덕면에 있다.³⁰⁾

2) 환인급(1583~1644)

조선후기의 문신이자, 서화가이다. 본관은 청주이고 자는 원지이며 호는 현석, 서적으로 청평부원군 우의정 응인의 아들이자 부사과 이담령의 외손이다.

1601년(선조 34) 진사시에 합격하고 1609년(광해군 1) 증광문과 을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서 재임하였다. 이듬해 검열 대교 봉교 등을 지내고 전적으로 춘추관기사관을 겸하여 《선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이어 정언 사서 수찬 등을 지냈다. 인조반정으로 병조좌랑을 거쳐 수찬으로 재직 시에는 신인등용책을 건의하였으며 지돈령부사로 1643년(인조 21) 인평대군과 함께 심양에 다녀온 후 치사하였다.

글씨에 능하여 당대의 국가의 묘주 태학의 장소 비문 등을 썼으며 남아있는 것으로는 한응인묘비가 있다. 묘가 소흘면 직동리에 있었으나 1980년대에 확장하여 현재는 신도비만 남아있다. 비문은 청음 김상헌이 짓고 김집이 썼다.

3) 김수항(1629~1689)

조선시대 문신으로 자는 구지, 호는 문곡, 본관은 안동이다. 현감 대효의 증손이며 동중추광찬의 자이다. 1646년(인조 24) 반시에 수석하고, 진사시에 장원급제하였으며, 1651년(효

30) 이상의 내용은 『포천시지』(포천시 편, 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외에 네이버캐스트 인물한국사 이시백 편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였다.

종 2)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 이어 병조좌랑, 사서, 경기도사, 지평, 정언을 거쳐 1653년(효종 4)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정시 5등으로 합격하여 효종으로부터 말을 하사받았다.

1672년 44세의 나이로 우의정에 발탁되고, 좌의정에 승진해 세자부를 겸하였다. 그러나 서인 송시열 등이 왕의 경원을 받고 물러남을 보고 남인 재상 허적을 탄핵한 대간을 힘써 변호하다가 도리어 판중추부사로 물러났으며, 사은사로서 청나라에 다녀왔다. 시문에 뛰어났고, 변려문에서는 당대의 제일인자로 손꼽혔다. 또한 가풍을 이은 필법이 단아해 전서와 해서·초서에 모두 능하였다.

김수항은 김장생의 문인인 송시열·송준길과 종유하였다. 특히 송시열이 가장 아끼던 후배로서 한때 사림의 종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할 때 송시열을 옹호하고 외척과 가까운 노론의 영수가 되자 소론 명류들에게 배척을 받기도 하였다. 시문에 뛰어났고, 변려문에서는 당대 제일인자로 손꼽혔다. 또한 가풍을 이은 필법이 단아해 전서와 해서·초서에 모두 능하였다. 저서로 《문곡집》28권이 전한다. 윤광계의 시문집 《굴옥졸고》의 서문을 썼다.

4) (1643~1719)

조선중기의 무신으로 효자로도 이름났다. 본관은 보성이고 자는 국향이며 증한성부윤 만의 아들로 어룡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활을 잘 쏘아 잡은 짐승으로 부모를 봉양하였다고 한다. 1659년(효종 10) 어린 나이로 무과에 급제하여 별군에 선발되었는데 고관인 유혁연이 뛰어난 활솜씨에 탄복하여 막부에 두고 매월 초하루마다 무예를 시험함에 연 15회를 장원하였으며 대장군이 여러 부장들에게 호살 하나로 표적을 꿰뚫을 사람이 있으면 새 옷 한 벌로 포상할 것이라 독려함에 즉시 표적을 뚫어 명성을 떨쳤다고 한다.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이 병으로 고생하자 간병에 온 정성을 다하였고 효험이 없음에는 의원의 권함에 따라 깊은 산속을 헤매며 사람의 모습과 흡사한 인삼과 바위틈에서 석밀을 구하여 부친의 병을 완쾌시켰고 부친이 위독하여서는 돌로 단을 만들어 하늘에 부친의 병을 기도하였는데 의정부와 포천을 잇는 축석령(祝石嶺)이라는 지명이 여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상을 당하여 수묘하는 데도 생전과 같이 혼정신성하고 제전의 비용도 일체 자신이 조달하였는데 스스로 검소하고 청렴결백함을 신조로 삼아 실천하여 후손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한다.³¹⁾

벼슬은 귀성도호부사 귀성진병마첨절제사를 지냈는데 어떤 사람이 연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진수로 고생하는 연유를 물음에 국가의 후록을 나이 80에 이르도록 갚지 못하여 이를 보답할 길을 찾는 것이라고 대답하여 당대의 사표가 되기도 하였다. 1723년(경종 3) 효자정려를 하사받아 어룡리에 정려각이 남아있으나 1961년 후손들에 의해 중수되었다.

5) 성대중(1732~1812)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창녕이고 자는 사집이며 호는 청성으로 내섬시직장 효기의 아들이자 김준의 문하로 소흘면 초가리 적암촌에서 출생, 성장하였다. 어려서 총명하고 언론이 창달하여 신선과 같다는 평을 들었다고 한다.

서얼출신으로 1753년(영조 29) 생원시에 합격하고 1756년 정시문과 을과에 급제하였으나

31) 이근영·이병찬, 『포천의 설화』 (포천 문화원, 2000)의 내용에서 발췌하였다.

신분적 한계로 벼슬에 오르지 못할 처지였으나 영조의 탕평책에 편승한 서얼통청운동의 영향으로 1765년(영조 41) 청직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울진현령을 지냈으며 1772년 사헌부지평 장령 운산군수를 지냈다. 1771년(정조 1) 용양위부사과를 거쳐 교서관교리로《국조보감》을 편수하였다. 1795년 외각으로 들어와《장릉사보》의 편찬작업에 참여하였고《존주회편》의 편집을 착수하였으나 병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이후 이서구, 아들 성해응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저서로는 우의정 조인영이 서문을 쓴《청성집》 10권 5책과《청성잡기》가 있다.

6) (1760~1839)

조선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본관은 창녕이고 자는 용여며 호는 연경재로 부사 대종의 아들이자 진사 이덕로의 외손으로 소흘면 초가리 적암촌에서 출생, 성장하였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중하여 9세 때에는《율곡전서》를 보고 율곡을 흠모하며 평생의 거울로 삼았다. 1783년(정조 7) 진사시에 합격하고 1788년 규장각검서관에 임명되었으며 1790년(정조 14)에는 왕명으로《춘추좌씨전》을 편제하는데 참여하여 그 범례를 작성하였다. 1801년(순조 1) 통례원인의, 금정찰방을 지내고 음성현감으로 선정을 베풀었고 1813년(순조 13) 정조의 어제를 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참여한 후 1815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후 아들 헌증의 임지인 목천과 포천 왕방산 아래의 향리를 왕래하며 학문에 전념하였고 부친 대종이 이의준, 이서구와 함께 정조의 명으로 존주에 관한 글을 수집, 편찬하는 작업을 하게 되자 이를 보좌하였으며 부친이 이를 마치지 못하고 죽었음에 벼슬을 물러난 후 이서구의 위탁을 받아 정리하여 1825년(순조 25)《존주회편》의 편찬을 끝마쳤다.

학문적 습성은 풍속 지리 서적 금수 곤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면을 지니고 있지만 인간에게는 경학과 사학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 하여 이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경학에 치중하여《예기》와《시경》에 관한 저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전승과 지리, 중국 역대왕실 세계 및 유민, 조선과 중국의 외교관계, 풍속과 법제, 경제 등 다방면의 저술을 남겼다. 실학 전성기의 인물로 조선 후기 주자학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계속될 때 경학의 이념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박학적이고 고증학적인 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씨에도 능하여 유희이《근목》에 전하며 저서로는《연경대전집》,《동국명신록》등이 있으며 묘는 가산면 금현리에 부인 경주이씨와 합장되어 있다.

7) 김평묵(1819~1891)

조선말기의 학자이다. 가산면 시우촌 출생하였고 집안이 대대로 포천에서 세거하여 이곳에서 성장하였다. 본관은 청풍이고 자는 치장이며 호는 중암이며, 성양의 아들로 어려서부터《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하여《십구사략》과《소학》을 띄고 경서의 대부분을 공부하였다.

20세 때 수성최씨와 혼인하였고 1842년(헌종 8) 24세 때부터 양평에 거주하던 이항로에게 수업하여 수제자로 학문의 적통을 이어받았는데 그의 호는 이때 이항로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한다.

묘는 백운산 아래 다목동에 있는데 묘갈문은 최익현이 지었으며 1975년 묘소가 황폐되어 화대리 마고동으로 이장하였다. 1900년(광무 4) 규장각제학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의이다. 이동면 연곡리의 동음사, 가평 설악면 선촌리의 경현단, 보산서원, 미월서원 등에 봉향되어 있다.

1874년(고종 11) 이항로의《화서아언》을 편집, 간행하였고 저서로는《중암선생문집》 및 별집

을 비롯하여《중암고》,《근사록부주》등이 있다. 1976년 문집을 복간하면서 연보, 묘갈문, 행장 등을 합본하였다.

8) (1833~1906)

본관은 경주, 자는 찬겸, 호는 면암이다. 아버지 최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경주 이씨이며, 부인은 청주 한씨이다. 최익현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서 출생하였다. 9세 때인 1841년 김기현의 문하에서 유학의 기초를 공부했으며, 11세 때인 1843년 경기도 양근(양평)으로 이주하여 14세 때부터 당시 대유학자인 화서 이항로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최익현은 이때 성리학의 기본을 익혔으며, 애국과 호국 정신을 배워 훗날 '위정척사' 사상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항로는 최익현이 15세 되던 해 그의 인품을 격려하기 위해 '면암'이라는 글을 써서 주었는데, 이것이 아호가 되었다.

순강원 수봉관으로 재직할 때, 나라 의식을 관장하는 예조판서가 금지 구역에 묘 쓰는 것을 도와주자 직접 그를 찾아가 "어찌 나라 녹을 받는 대신께서 국법을 어기시려 합니까?"라고 호통 친 일화는 유명하다. 1868년(고종 5) 9월에 올린 시폐 상소는 당시 최고 권력가이자 임금의 아버지인 흥선 대원군을 비판하고 시정을 건의한 것이다. 최익현은 이 상소에서 경복궁 복원 공사를 중단하고, 수탈 행정을 금지하며, 당백전과 사대문 문세의 징수를 혁파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상소로 인해 최익현의 명성은 전국에 퍼지게 되었고, 임금의 신임을 얻어 국왕의 비서인 승정원 동부승지와 재정 부서인 호조참판 등을 역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흥선대원군이 선비들의 근원인 서원을 철폐하는 등 폭정을 계속하자, 이른바 '계유상소'를 올리며 당시 집권층의 부패와 흥선 대원군의 실정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이 상소로 흥선 대원군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최익현 또한 부자간을 이간시켰다는 이유로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1876년(고종 13) 일본이 통상을 요구하며 조선과 수호 조약(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최익현은 그 길로 도성으로 올라가, 궐문 앞에 도끼를 들고 엎드려 조약의 불가함을 외쳤다. 이것이 유명한 <오불가척화소>이다. 이는 300여 년 전 임진왜란으로 우리 국토가 유린당했던 과거를 통해 일본인들의 잔악한 품성을 익히 알고 있음을 알리고, 통상 조약 체결 후 우리에게 닥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위기를 통찰한 주장이다.

이 상소로 인해 최익현은 다시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약 20여 년간 고향인 가채리에 머물면서 칩거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곧바로 <청토오적소>를 올려서 조약의 무효를 국내외에 선포하고 망국조약에 참여한 박제순 등 오적을 처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위정척사운동은 집단적·무력적인 항일의병운동으로 전환하였다. 1906(광무 10) 윤4월, 최익현은 전라북도 태인(현 정읍시)에서 궐기하며 <창의토적소>를 올려 의거의 심정을 피력하는 한편, 의병 궐기를 촉구하는 <포고팔도사민>과 일본 정부에 대한 문죄서 <기일본정부>를 발표하였다. 74세의 고령으로 의병을 일으켜 최후의 진충보국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적지 대마도 옥사에서 순국하였다.³²⁾

(3) ·현대 인물

32) 이상의 내용은 『포천군지』(포천시 편, 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외에 디지털포천문화대전(<http://pocheon.grandculture.net/>)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였다.

1) (1869~ 1927)

포천에서 태어났고 신북면 신평리에 묘가 있다. 호는 동농, 이열재, 필명은 우산거사, 선음자, 하관생, 석춘자, 신안생, 해관자, 본관은 전주, 인조의 셋째 아들 인평대군의 10대손이며 이철용의 자이다. 언론계에 종사하면서《제국신문》과《매일신보》 등을 통해 30편에 가까운 신소설을 발표하였다.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종>(1910)은 주인공들의 토론형식을 빌어 정치이념을 제시한 작품이며 <화의 혈>(1910)은 부패관리의 부정을 폭로한 소설이다. 대체로 그의 신소설은 신교육과 개화사상을 고취하면서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반영하였다.

<철세계>는 프랑스의 베른의 소설을 번안한 것이며, 그 밖에도 한국의 고대소설을 신소설화하여 <춘향전>을 <옥중화>, <심청전>을 <강상련> 등으로 개작 발표하였다. 그 밖에 <춘외춘>, <빈차설>, <월하가인>, <구마검>, <모란병>, <화세계>, <월양도>, <봉선화>, <비파성> 등이 있다.

2) 장면(1899~1966)

본관은 옥산, 호는 운석, 출생지는 서울, 출신지는 인천이다. 일제강점기 때 부산세관장을 지낸 장기빈의 아들이다. 1925년 맨해튼 가톨릭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가톨릭교 평양교구와 서울동성상업학교 교장으로 활동하다가 해방 후 정계에 입문했다. 초대 주미대사를 거쳐, 1951년 국무총리가 되었으나 이후 자유당에 맞서 야당 정치인으로 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다. 4·19 이후 의원내각제인 2공화국의 총리를 역임했다.

1949년 초대 주미 대사로 임명되었고, 이듬해 6·25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의 한국 파병에 큰 역할을 하였다. 1951년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가 이듬해 사임하였다. 이후 야당의 지도자로 자유당 독재 정권과 투쟁하였다. 1955년 국회 의장을 지낸 신익희·조병옥 등과 민주당을 창당하여 최고 위원이 되었고, 1956년 자유당의 부통령 입후보자 이기봉을 물리치고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해 9월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김상봉에게 저격당했으나 경상에 그쳤다. 1957년 미국 시튼홀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9년 민주당 최고 위원에 선출되어 광상훈·박순천 등과 함께 민주당 신파 영수로 활약하였다.

1960년 정·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후보 조병옥이 선거 1개월을 앞두고 사망함으로써 다시 한번 부통령후보로 선거에 임했다. 3·15부정선거로 인하여 이기봉 자유당후보에게 낙선하였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의원내각제 하에서 1960년 제5대 민의원 의원에 당선되고, 국회에서 제2공화국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던 정책이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여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집권 9개월 만에 실각하였다. 그 뒤 군사정권의 정치정화법에 묶여 연금생활을 강요당하고, 세칭 이주당사건인 반혁명음모사건에 연루,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집행 면제로 풀려났다. 석방된 뒤 5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1966년 6월 4일 지병인 간염으로 사망하였다. 1951년 로마 교황청 비오 12세로부터 성신베스터 훈장을 수여받았다.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되었고, 경기도 포천가톨릭묘지에 안장되었다.³³⁾

3) 박동완(1885~1941)

33) 이상의 내용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디지털포천문화대전 (<http://pocheon.grandculture.net/>)을 중심으로 발췌하였다.

일제 강점기 경기도 포천 출신의 독립운동가이다. 박동완은 1885년 12월 27일 포천에서 민족의식이 강한 박형순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 사상에 공감하고 있던 차에 1919년 2월 중앙 기독교 청년회 간사 박희도로부터 독립운동 계획을 듣고 이에 찬동하였다. 2월 27일 이인환·함태영·박희도·이갑성·오화영·최성모·김창준·신석구 등과 함께 천도교 측에서 작성한 독립 선언서에 민족 대표로서 서명하였다. 이튿날 2월 28일 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손병희의 집에서 다른 민족 대표들과 만나 독립 선언에 따른 최종 협의를 하였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의 태화관에 손병희 등과 함께 민족 대표로 참석하여, 독립 선언서를 돌려 보고 만세 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하여 경시청 총감부에 구금되었다. 1920년 경성 복심 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2년 형을 선고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의 옥고를 치렀다.

1933년 미국 오아후 섬의 한인 기독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그 곳에서 약 12년간 목회를 하였다. 교포 2세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기 위해 교회 부설 한글학교를 확장하였다. 또한 국내의 흥업 구락부와 비밀 연락을 취하며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끝까지 지조를 지키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지만 그리던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41년 2월 23일 병으로 사망하였다. 1962년 건국 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4) (1876~?)

일제 강점기 경기도 포천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다. 서정희는 1907년 7월 권중현 암살 미수 사건에 연루되어 전라남도 진도군에 3년간 유배되었고 1910년 귀양이 끝난 뒤 전라남도 광주시에 머물면서 사회 운동을 펼쳤다. 1919년 3월 광주에서 3·1 운동을 주도하였고 이 일로 일제 경찰에 검거되어 광주 지방 법원에서 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1년이 감형되어 석방되었다.

1920년 10월 출옥 후 농민 운동에 관여하여 소작 쟁의 운동을 활발하게 펼쳤고 전라도 농농 총연맹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이후 사회주의 단체인 북풍회 운동에 관여하여 제2차 조선 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1925년 12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신의주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27년 11월 조선공산당 사건 관계로 다시 구속되었다가 1928년 2월 무죄를 선고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출옥 후 신간회에 가입해 활동하였는데, 얼마 뒤 신간회 해소론이 대두되자 이에 적극 반대하였다. 오류는 사회주의자가 민족주의 운동에 가담한 것에 있으며, 한번 참여한 이상 신간회 내부 조직을 더 충실히 하고 각 부문으로 나아가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31년 12월 서울로 돌아온 뒤에 민중의 구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는 한편 조선인의 만주 이민을 적극 장려하였다. 그 뒤 1940년 포천으로 이주하여 후진 양성에 힘쓰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다.

1945년 9월 한국 민주당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중앙 감찰 위원이 되었다. 같은 해 12월 한국 민주당에서 주최한 신탁 통치 반대 전국 대회 집행 위원장이 되었다. 1946년 3월 한국 민주당 중앙 감찰 위원장, 1947년 4월 반탁 독립 투쟁 위원회 지도 위원, 같은 해 6월 대한 독립 축성 국민 대회 본부 중앙 상무 집행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한국 민주당의 핵심 간부로 떠올랐다. 1948년 5·10 선거에서 한국 민주당 공천을 받아 경기도 포천시에서 출마,

제헌 국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그 해 6월 제헌국회에서 국회법 제정 기초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무렵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기초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50년 7월 6·25 전쟁 중 납북되었고, 1957년 재북 평화 통일 촉진 협의회 중앙 위원이 되었다.

5) (1888~1948)

일제 강점기 경기도 포천 출신의 독립운동가이다. 이규채는 1888년 6월 6일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서 태어났다. 1919년 3·1 운동 후 창신 서화 연구회를 창설하여 학생층을 상대로 비밀 운동을 전개하던 중 일본 경찰에 발각되자, 1921년 독립운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1924년 12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임시 의정원의 충청도 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1925년에 사임하였다. 1930년에는 한국 독립당에 가입하여 정치부 위원 겸 군사부 참모장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32년 3월 이규채는 조지찬·이종선 등과 함께 중국 아성현 영발둔에 있는 중국군 사령관 고봉림과 참모장 조린을 찾아 공동 항일전 합작을 협의하였으며, 이때 한국 독립당의 총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총무 위원장으로서 본부를 만주에서 베이징으로 옮기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1933년에는 중국 지린 육군 제3군 상교 참모로 활약하였다. 1934년 중국 난징에 본부를 두고 있던 한국 혁명당의 신익희·윤기섭 등과 손을 잡고 신한 독립당을 새롭게 조직하여 감찰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1935년 9월 25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징역 10년 형을 받고 경성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 잠시 언론계에 관여하였고 정계에 투신하여 미소 공동 위원회 대책 국민 연맹 대표,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 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1948년 2월 사망하였다. 1963년 건국 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또한 이규채 선생 행적비가 1982년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402번지에 건립되었다.

6) 조영원(1892~1974)

일제 강점기 경기도 포천 출신의 독립운동가이다. 조영원은 1892년 5월 11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에서 태어났다. 1907년 유신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국권이 일제에 의하여 강탈당하자, 당시 서간도에 망명 중인 이동녕·이시영 등과 연락을 취하며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1920년 8월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그 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 임시 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비서장을 겸임하였다. 또한 1921년에는 의열단에 가입하여 중앙 집행 위원을 역임하였다.

1924년 5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원 서무국 참사에 임명되었으며, 한국 유일당 촉성회 집행 위원으로 활약하다가 1926년 한국 유일당 촉성회 대표로 만주에 파견되었다. 1927년 7월 신민부가 재정비되어 조직되자 군사 부위원에 임명되어 무장 항일 투쟁을 지도하였다. 1930년에는 재만 독립운동자들을 규합하여 신한 농민당을 조직하고 조직 부장으로 활약하였다.

1932년에는 이청천이 조직한 한국 독립군 총사령부의 참모로 독립군을 양성하는 등 활약하다가 1933년 9월 평텐 일본 영사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신의주 형무소에서 3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석방되었다. 1968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 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또한 1982년 조영원 선생 공적비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117-2번지에 건립되었다.

7) (1891~1943)

일제 강점기 경기도 포천 출신의 독립운동가이다. 최면식은 1891년 1월 7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서 태어났다. 면암 최익현의 손자로 어려서부터 항일 정신이 강한 분위기에서 자랐다. 일제에 의해 국권이 상실되자 1912년 9월 만주로 망명하여 광복단에서 활동하던 중 국내 조직 연락의 책임을 맡고 밀입국하였다. 그 뒤 1914년 만주로 돌아간 뒤에 독립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입국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15년 일제의 철저한 감시로 군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자, 자신의 문전옥답 6,611㎡ [2,000평]을 모두 팔아 기호 지방의 광복단 조직에 힘썼다. 그 뒤 1916년 만주로 건너가서 1917년 김좌진·노백린·박상진·채기중 등이 이끄는 대한 광복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최면식은 이병호와 함께 전라도 지역의 부호를 대상으로 군자금 수합에 힘을 쏟았고, 친일 부호 처단에 필요한 무기를 채기중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던 중 1918년 초 대한 광복회의 조직이 발각되면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대한 광복회의 재건에 힘쓰다가 1921년 9월 대전 경찰서에 체포되어 무기 징역을 선고 받고 공주 형무소에서 복역 중 고문의 후유증으로 생긴 병이 악화되어 반신불수가 된 상태에서 출옥하였다.

1925년 이후 고문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몸이 자유롭지 못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와 동대문구 신설동 등지에 은거하며 국내 독립 단체의 연락처로 제공하기도 하고, 상경하는 청년들에게 독립 정신을 고취하기도 하였다. 특히 독립투사 비밀 기술원에서 의술을 배워 한약방을 개설해 어려운 주민들을 무료로 치료하였다. 그러나 모진 옥고로 건강을 잃어 오매 불망하던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41년 7월 3일 사망하였다. 1980년 건국 포장, 1990년 건국 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또한 1982년 최면식 선생 공적비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678번지에 건립되었다.

2.2.5 포천의 관광 자원

포천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예로부터 물 맑고 공기 좋은 도시로 유명하다. 이 장에서는 포천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을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³⁴⁾

(1) 8경과 영평 8경

북한의 평강군으로부터 발원하여 포천의 북서쪽을 지나는 한탄강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광덕산으로부터 발원하여 한탄강과 평행선을 이루며 포천을 가로지르는 영평천은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와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에서 합수된다. 그 과정에서 한탄강과 영평천은 술한 절경을 포천에 선물처럼 남겨 놓는다. 이에 포천시에서는 각각 한탄 8경과 영평 8경을 지정하여 그 아름다움을 되새기는 한편,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탄 8경과 영평 8경을 소개하기로 한다. 다만, 한탄8경은 3장 현

34) 이하의 내용은 포천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www.tour.pcs21.net)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 (www.terms.naver.com)를 중심으로 발췌 하였으며, 기타 참고문헌은 해당 내용에 따로 표기한다.

지조사자료 해당 마을에서 다룰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그 명칭을 소개하기로 한다. 같은 이유로 한탄 8경이자 영평 8경의 하나인 화적연에 대해서도 3장 현지조사자료에서 살피기로 한다.

1) 8경

- ①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1101번지>
- ② 샘소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산229-2>
- ③ 화적연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산 115-2>
- ④ 명우리주상절리대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산574-1>
- ⑤ 교동가마소 <포천시 관인면 중리 921-1>
- ⑥ 비둘기낭 폭포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415-2>
- ⑦ 구라이골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231번지>
- ⑧ 아우라지 배개용암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209-8>

2) 영평 8경

- ① 화적연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산 115-2>
- ② 금수정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547>
- ③ 창옥병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산 125-4>
- ④ 낙귀정지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424-2>
- ⑤ 선유담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52-3>
- ⑥ 와룡암 <포천시 일동면 성장로 605>
- ⑦ 청학동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산 39>
- ⑧ 백로주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산 39>

① 금수정(창수면 오가리): 금수정은 영평8경의 하나로 조선 전기 안동김씨인 금옹 김윤복이 이 지역을 지나다가 경치가 너무 좋아 정자를 세우고 '우두정(牛頭亭)'이라 하였다가 김윤복에게 아들이 없어 사위인 봉래 양사언에게 물려주었고, 봉래가 정자 이름을 '금수정(金水亭)'이라 개명하였으며 편액을 갈아붙였다. 이후 안동김씨가 소유하고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향토유적 제17호로 지정되어있으며, 6·25때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1989년 현지답사와 관계 문헌 등의 고증을 받아 복원 중수하였다.

영평천 맑은 수면에 인접하여 8m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정자로서 1608년경 봉래 양사언이 정자이름을 금수정이라 짓고 당시 명재상이었던 사암 박순, 한음 이덕형이 풍류를 즐기며 국정을 논의하던 곳으로 많은 일화가 담겨있으며 정자 아래 기암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노송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다.³⁵⁾

② 창옥병(창수면 오가리): 창수면 오가리 영평 천변에 자리해 있는 창옥병은 '푸른 옥 병풍'이란 뜻이다. 1588년 한석봉이 왕명을 받아 쓴 시암집, 농암집 등 문헌이 있는 9점의 암각문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1913년 암벽을 깎아 도로를 내고 터널을 뚫어 영중면과 전곡 사이의 교통을 연계하였다. 장엄한 기암괴석들이 마치 병풍처럼 반월형으로 펼쳐져 있다.

35) 이원호·김용기, 「포천 금수정 일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06, 46쪽.

③ 낙귀정지(영중면 양문리): 낙귀정지는 '낙귀정' 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던 자리이다. 이 정자는 영의정으로 등용된 중신 황씨가 관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 집 근처에 지은 것이라고 전한다. 자연 생태적으로 혼효림과 리기다소나무림이 주변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청둥오리 떼 및 갈대 등의 생태자원이 풍부하다.

④ 선유담(이동면 도평리): 이동면 도평리 백운동 계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선 선(仙)', 놀 유(遊)' 자를 쓴 이름 그대로 신선이 놀던 자리라고 한다. 백운산 기슭을 돌며 흐르는 영평천 상류의 계곡으로, 백운계곡과 인접하고 있어 성수기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물에 잠긴 암벽에 선유담이라는 글씨가 음각되어 있으며, 이는 임진왜란 때 원병 차나왔던 양병래의 글씨 또는 양사언의 글씨라고 추정되고 있다.

⑤ 와룡암(일동면 성장로 605): 일동면 수입리 산내지동에 있는 명승지이다. 예부터 철쭉이 피던 6월이면 활짝 핀 꽃이 그대로 수면에 비쳐 절벽도 붉고 물도 홍류를 이루었다고 한다. 수중에 누워있는 기암이 용을 연상케 하여 와룡암이라 불렀다. 평소 상반신이 수면위로 떠올라 있다가, 수량이 줄면 차츰 모습을 나타내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 한 착각을 일으킨다. 와룡의 명칭은 고려시대 문헌 및 조선 초기 재상 박순의 기록 등에 지시되어 있다.

⑥ 청학동(영중면 금주리): 영중명 거사리 포천천 하류에 있는 조그마한 바위산으로 암석이 병풍처럼 둘러진 절벽이다. 암벽 낭떠러지에는 '청학동'이라 새겨진 암각이 있고 그에 얽힌 전설이 구전되고 있다. 어떤 가난한 효자가 아버님의 시신을 모시고 이장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흠을 한 삽 뜨는 순간 그 속에서 청학 한마리가 나와 슬프게 울며 창공에 원을 그리면서 날아가서 그 자리에 산소 쓰기를 단념했다고 한다.

⑦ 백로주(영중면 금주리): 일동면에서 흘러내려온 물줄기를 끼안은 듯 한 형태로 백로가 물속에 서서 사방을 바라보는 듯 한 형상을 하고 있다. 고모천과 포천천에서 흘러내린 물이 합수되어 북쪽으로 흘러 곡수를 이루는 지점에 있는 바위이며 경기관찰사 동강이 이곳에 왔다가 새겨놓은 음각이 있다. 넓은 부지의 백로주 유원지가 인접해 있다.

(2) 관광 자원

이 장에서는 트래킹이나 낚시, 레저를 즐기는 것과 동시에 자연의 절경과 생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포천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기로 한다.

1)

운악산으로부터 연봉되는 포천의 진산이며 포천천 분류로 서류하는 수원(물이 처음 시작되는 곳)의 근간이 되는 넓은 산이다. 산줄기를 따라 내려오는 1.5km에달 하는 자연발생 유원지인 수원산 계곡이 있다. 산기슭에 300년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제460호로 지정된 부부송(夫婦松)이 있다. 두 그루가 서로 부둥켜안아 마치 한 그루인 듯 보인다. 뿌리는 다르지만 가지가 붙어 한 나무처럼 자라는 나무를 '연리지(連理枝)' 라 하는데 아주

진한 부부애의 상징이다.

2)

포천시의 진산으로 불려온 왕방산(737.2m)은 포천동 서쪽에 우뚝 솟아있는 산이다. 신라 현강왕 3년(872)경 도산국사가 이곳에 머무르고 있을 때 국왕이 친히 행차, 격려하였다 해서 왕방산이라 불리어졌고, 도선국사가 기거했던 절을 왕방사라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그 절터에 지금의 왕산사가 복원되었다. 왕방산은 광주산맥 서쪽의 지맥인 천보산맥의 북단에 자리 잡고 있는 산이다. 왕방산의 맑은 물이 모여 호병골 계곡을 만들었다.

3) 청계산

청계산이란 이름을 가진 산이 경기도에만 세 곳이 있다. 양평군 양서면의 청계산(658m)과 과천시와 성남시의 경계를 이루는 청계산(618m), 그리고 포천시 일동면과 가평군 하면의 경계를 이루는 청계산(849.1m)으로 이 중에서 포천 청계산이 가장 높고, 산세가 웅장하며 산행코스도 다양하다. 맑고 깨끗한 시냇물을 뜻하는 청계란 이름에 걸맞게 여름철의 수목 우거진 맑은 계곡이 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부르고, 가을이면 낙엽이 운치를 더하는 곳이다. 청계산은 때 묻지 않은 계곡과 울창한 수림을 자랑한다. 길매봉은 주능선과 지능선이 주로 암릉으로 이루어져 주의를 요하는 동시에 폭포 지대를 품고 있어 보석 같은 자태를 지닌 산이다.

4) 주금산

비단산으로도 불리는 주금산(813.6m) 주위에는 서리, 천마, 철마, 축령산 등 명산이 호위 하듯 둘러서 있다. 정상 부근의 기암과 수려한 비금 계곡이 어우러져 마치 비단결 같은 산세를 자랑하고 있다. 이 산의 서북쪽 자락에는 베어스타운 스키장이 자리 잡고 있으며, 정상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비금계곡은 오염되지 않은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계곡을 오를수록 물이 맑고 옛날에 선비들이 산에 놀러왔다가 거문고를 감춰놓았다 해서 비금계곡으로 불린다.

5) 종현산

종현산(588.5m)은 정상 남서쪽으로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열두개울(수동천)이 흐르고 있고, 또 인근에 지하 600m에서 용출되는 중탄산 나트륨천으로 이름난 신북온천이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종현산 기슭에 삼정골이라는 취락이 있는데 조선 초기 난을 피하여 세 정승이 이곳에 와서 은거하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끊고 산수를 벗 삼아 일생을 살았다 하여 삼정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계곡에는 산내천이 서류하여 한탄강으로 흘러 내려간다. 그리 높지 않은 산으로 큰 특징이 없어 산을 오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온천과 들러 피로를 푼다면 더욱 좋은 산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열두개울은 이름 그대로 큰 굽이가 열두 곳이란 뜻으로 계곡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6) 종자산

종자산(642.8m) 남쪽면은 즐망졸망한 기암봉으로 이어지며 한탄강과 어우러진 경관이 빼어나고 진달래와 단풍 또한 좋은 산이다. 북쪽 능선에서 싸리나무가 유난히 많아 초여름이

면 그 향이 싱그럽다. 정상 남동편 들머리에는 굴바위가 있는데 생김새가 야외음악당과 흡사하고 전설에 의하면 옛날 3대 독자의 부부가 아이를 못 낳아 고심하던 중 이 굴에서 백일기도를 올린 뒤 아들을 낳았다고 하여 종자산 (씨앗산) 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7) 운악산

운악산(935.5m)은 이름 그대로 뾰족한 기암괴석의 봉우리가 구름을 뚫고 솟아 그 모습이 마치 서기(瑞記)를 품은 한 떨기 향기로운 꽃과 같다. 그래서 지명이 운악산이다. 주봉 만경대를 중심으로 산세가 험하고 기암절벽으로 산을 이루고 있어 그 경치가 절경이며, 구름이 산을 감돌아 신비감마저 느끼게 한다. 산이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솟아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운악산이라 부르지 않았나 생각될 정도이다. 관악, 치악, 화악, 송악과 더불어 중부지방 5대 악산중의 하나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여름에는 무성해지는 활엽수들이 하늘을 가릴 정도이고 깨끗한 물과 울창한 산림은, 찾는 이들에게 대자연의 향을 한껏 맛보게 해준다.

8) 명성산

명성산은 포천시 영북면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 경계한 산으로 높이는 922.6m이며 통일신라의 마의태자가 망국의 한을 품고 이 산을 지나 금강산으로 갈 때 보고 울었다고 해서 붙여진 산 이름이다.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산으로 산 속에는 억새가 자라며, 산자락은 산정호수를 끼고 있어 산을 찾는 이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느낌을 전해준다. 남북으로 뻗은 주능선을 기준으로 서쪽은 경사가 급해 산행이 조금 어려운 반면 바위가 발달해 웅장한 경관을 볼 수 있다. 동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흙이 많아 대체로 편안한 산행을 즐길 수 있으며 억새가 무성해 가을 산행지로 인기가 있다.

9) 백운산

백운산은 포천시와 강원도 화천군에 경계한 산으로 높이는 903.1m이다. 흙산으로서 수림이 울창해 계곡이 발달했지만 곳곳이 하얀 화강암 바위들과 단애(깎아 세운 듯 한 낭떠러지)가 있어 등산의 묘미를 준다. 남북으로 뻗은 주능선은 서쪽으로는 지능선이 완만하게 뻗어 있어 산 속에서 나오는 풍부한 물이 암반을 노출시켜 자연스레 계곡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물이 많아 여름 산행지로 인기가 있으며 겨울철에는 국망봉을 지나 청계산까지 설능 종주 코스의 기점이 되기도 한다.

10) 지장산

지장산(877.2m)은 계곡 물이 얼음같이 차가워 "지장냉골" 이라고도 하며 계곡의 아름다움이 뛰어난 곳이다. 울창한 숲과 기암절벽이 장관을 이루며 골짜기마다 작은 폭포와 연못이 끊임없이 이어져 산천이 수려하다. 큰 골의 가을 단풍은 설악동만큼 아름답다. 단풍나무가 유난히 많을 뿐더러 지장봉은 산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산을 오르면서 붉게 타오르는 주위의 산들을 모두 둘러볼 수 있다. 기암과 어우러진 붉게 타오르는 가을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11) 국망봉(국망봉 자연휴양림)

국망봉(1,168.1m)은 강씨봉에 관한 전설이 얽혀 있다. 궁예가 태봉국을 세우고 철원에 도읍을 정한 뒤 나라의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날로 폭정이 심해졌다. 그러자 강씨는 한사코 궁예에게 간언했으나 이를 듣지 않고 오히려 부인 강씨를 강씨봉 아래 마을로 귀양 보냈다. 그 후 왕건에 패한 궁예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강씨를 찾았지만 부인 강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회한과 자책에 빠진 궁예는 국망봉에 올라 도성 철원을 바라보았다 하여 국망봉이란 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국망봉은 산 정상에서의 조망이 매우 빼어난 산으로 알려져 있어 사시사철 등산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정상부가 유난히 뾰족하게 솟아 있어 정상에 서면 그야말로 사방이 막힘 없이 전개되고 있는 탓이다. 국망봉은 암봉의 거의 없는 육산으로 코스는 험하지 않으나 해발이 높아 산행이 쉽지 않은 산이다. 주능선이 길이만도 15km에 이를 정도로 산세가 웅장해서 일명 "경기의 지리산" 이라고 불린다.

12)

광덕산(1,046.3m)은 주로 규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을이면 단풍, 겨울이면 설경이 아름답다. 상해봉은 정상을 이룬 바위지대가 마치 망망대해에 떠 있는 암초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체적으로 능선이 암벽으로 이어져 스틸을 주며 광덕재에서의 광덕산 그리고 백운산에 이르는 능선에는 역새발이 펼쳐져 있다. 가을이면 오색단풍의 물결이, 겨울이면 설경이 아름다운 산이다.

13) 백운계곡

백운계곡은 광덕산과 백운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리는 맑고 깨끗한 물이 모여 이룬 골짜기다. 계곡의 길이가 10km이며 연못과 기암괴석이 한데 어울려 아름다움을 빚어내고 있다. 백운계곡과 광덕고개에 이르는 길은 주변경관이 아름다워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14) 약사동 계곡

경기도 포천 이동면과 강원도 철원 서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자등현 고개 주변에는 때 묻지 않은 계곡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사동과 상해계곡이 비경이다. 약사동계곡은 자등현 남서쪽의 경기도 지역에 자리해 있으며 각흘봉 남쪽 기슭을 흐른다. 깊이 들어갈수록 기암괴석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된다.

15) 지장산 계곡

해발 877의 지장산은 계곡물이 얼음같이 차가워 '지장 냉골'이라고도 하며 계곡미가 뛰어난 곳이다. 울창한 숲과 기암절벽이 장관을 이루며 골짜기마다 작은 폭포와 연못이 끊임없이 이어져 산천이 수려하다. 포천을 지나 38 교 휴게소를 지나 좌측으로 접어들면 전곡으로 가는 37번 국도가 나온다. 여기서 30여 분 관인 쪽으로 접어 달리면 이내 한탄강을 건너게 되고 바로 앞에 종자산이 우뚝 솟아있다. 이곳을 지나 중리에 도착해 좌측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중리 저수지가 나오고 주차장이 보인다. 여기서부터 계곡이 시작되고 넓은 도로를 따라 1시간 정도 올라가면 화전민 터가 나온다. 이곳부터 지정산 산행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 능선까지 1시간 정도의 거리는 좌우로 다래나무가 뺨뺨이 늘어서 있고 능선에서 정상까지는 30분 정도 걸린다. 정상에 올라서면 바로 북쪽으로 민간인 통제구역인 금학

산(947m)과 고대산(832m)이 우뚝 솟아있고, 동서로는 철원 평야 및 연천 일대가 손에 잡힐 듯 시야에 들어온다.

16) 유원지

깊이울 유원지는 왕방산에서 발원하는 깊이울 계곡 주변에 있는 유원지이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인공의 느낌이 적고, 빼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17) 열두개울 유원지

열두개울은 자연발생 유원지로서 다리가 없던 시절, 법수동에서 덕둔리까지 개울을 12번이나 건너야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초성리 법수교 주변에서 원덕 둔교까지 4.6km 이어지는 열두 개울은 선녀바위, 무장소, 보안소, 만장바위, 평바위, 도라소, 돌목소, 봉바위, 쌍무소, 용수골소 등의 명소가 펼쳐져 있고, 기암절벽과 맑은 계곡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18) 백로주 유원지

영평8경중 7경으로 영중면 거사리 한내천 하류에 있다. 백로주는 바위라기보다는 조그만 바위산이라 전체가 한개 바위로 형성되어 그 형상이 마치 백로가 물속에 서서 사방을 바라보는 모양이다. 백로암이라는 이름은 약 400년 전 문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훨씬 전에 지어진 이름인지도 모른다. 최근 백로주 북쪽 하천부지에 잔디와 나무를 심어 유원지를 만들어 관광객을 맞고 있다. 시대는 분명치 않으나 경기관찰사 동강이 이곳에 왔다가 바위에 “三山發落靑川外(삼산발락청천외). 二水中分白鷺州(이수중분백로주)”라는 시를 음각하여 놓은 것이 지금도 남아있다

19) 고모 저수지

고모 저수지의 수계는 고모천(古毛川)에서 포천천(抱川川)까지이다. 수혜 면적(한국 농어촌 공사 또는 포천시 관리하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물로부터 이익을 받는 면적)은 130.7ha, 유역 면적(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강우가 하천이나 저수지에 모여드는 구역의 면적)은 400ha이다. 총저수량은 130만 8700톤, 유효 저수량은 124만 9600톤이며, 사수량은 5만 9100톤이다. 둑의 길이는 229m, 둑 높이는 20.1m이다. 한발 빈도는 10년, 홍수 빈도는 200년이며, 홍수 면적은 18.2ha, 만수 면적은 17.9ha이다. 둑 쌓는 형식은 필댐(준형)이며, 둑의 체적은 26만 3539m³이다.

‘노고산성 정월 대보름 축제’는 포천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보름 행사이다. 2012년에 제10회를 맞이한 축제는 크게 참여 행사·체험 행사·공연 행사로 구분된다. 참여 행사로는 장승제, 널뛰기, 투호놀이, 팽이치기, 썰매타기, 새끼 꼬기, 옷놀이, 연날리기, 부럼 깨기, 링 던지기, 소원지 쓰기, 쥐불놀이, 얼음 썰매 타기, 빙판 골 넣기 등이 있다. 체험 행사로는 장승 깎기, 떡메 치기, 장단 배우기, 상모돌리기, 연 만들기 등이 마련된다. 또한 공연 행사로는 길놀이와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각종 예술단의 공연, 택견 시범, 솟대와 장승제 고사 등이 펼쳐진다. 대체로 대보름 축제는 달집태우기로 마무리된다. 대형 달집에 불을 붙이고 햇불 대행진, 달빛 마시기, 강강술래, 희망의 불꽃놀이 등이 성대하게 벌어진다.

20) 한탄강

한탄강은 강원도에서 발원하여 철원과 연천을 거쳐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굽이쳐 지나는 곳마다 비경이 어우러져 각기 색다른 절경들로 관광명소로 유명하다. 포천지역(경기도 일대) 한탄강 유역은 영평천과 함께 포천시의 여덟 군데 명승지인 영평 팔경의 절경을 품고 있다. 팔경은 저마다 특징이 있는데, 맑은 계곡물이 곳곳에서 흘러 절경을 이룬다.

21)

일동면 기산리에서 약 3km 떨어진 청계산의 계곡에 자리 잡은 호수이다. 1979년에 완공되었으며 청계호수의 높이는 25.8m, 제방길이는 150m, 저수량이 약 100만 톤에 달한다. 호수 주변으로 산책로가 나 있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22) 중리 저수지

중리의 남쪽과 동쪽 경계로 한탄강이 흐르며, 서쪽의 종자산(642.9m)을 비롯하여 동서가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지장산 계곡으로 향노천이 흘러 건지천으로 유입되고, 이 물이 한탄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지장산 계곡 앞쪽으로 마을이 있고 그 사이에 중리 저수지가 위치한다. 동서로 산이 둘러싸고 있어 계곡을 흐르는 건지천을 따라 농경지와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23) 산정호수

산에 있는 우물이라는 뜻으로 산정호수는 이름그대로 맑은 수질과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한다. 1925년 농수용저수지로 만들어졌으며, 명성산을 비롯해 여러 높은 산봉우리, 자인사와 등룡폭포, 비선폭포 등이 있다. 1977년 3월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특히 봄·가을 호수의 밤안개가 절경을 이루어 호수주변 산책길에 유명세를 타고 있다. 주변에 놀이공원, 조각공원, 보트장, 수영장, 썰매장 등이 조성되었다. 호수가 바라오비는 전망대는 과거 김일성 별장이 있었던 곳으로 분단의 아픔을 되새겨 볼 수 있다. 수은등이 달린 호숫가 오솔길을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이다.³⁶⁾

(3) /박물관 및 창조 관광 자원

포천에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관광지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포천의 관광자원은 무궁무진함을 바탕으로 많은 볼거리들이 있다. 다음은 포천의 대표적인 볼거리들이다.

1) 어메이징파크(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30)

어메이징파크의 모든 기구물들은 직접 체험 형식으로 제작되어 유아부터 어른까지 기구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은 물론 공학 기구와 밀접한 유대감을 조성해 과학과 사람,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고리 역할을 한다. 제1관 어메이징파크 내에 전시되어 있는 공학 기구들은 200여종이며 제7관이 건립되는 2022년에는 총 1000여종의 기구들을 전시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총길이 300m의 나무속 하늘길인 히든 브릿지는 자연 속에서 도전, 모험, 열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국내 최초의 150m 아치형 다리인 서스펜션 브릿지는 그

36) 글·사진 김초록, 「열린공간: 여행노트: 포천에서 새해의 기운을 받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12, 109쪽.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관람객을 안내하게 될 것이다.

또, 아파트 6층 높이를 자랑하는 자이언트 파운틴은 대형 기어와 분수의 조화로, 기계들의 분수쇼를 관람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며, 대형 상들리에, 대형 진자펌프와 수차를 이용한 대형물레방아, 솔라시스템 등은 자연 속 에서 과학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2)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322번길 26-9)

한과의 역사와 제작 과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한과 제작 도구와 다른 나라의 과자 등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상세한 설명으로 한과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한과를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다.

3) 산사원(위치 :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432번길 25)

‘산사원’은 배상면주가의 대표 술인 ‘산사춘’에서 따온 이름이다. 1996년도에 설립된 전통 술 박물관으로 전통 술에 관한 자료와 도구 등의 전시하고 있다. 10여 가지 술을 무료로 시음할 수 있으며 판매도 한다. 산사원에서는 술지게미를 이용해 만든 감초엿, 다식, 약과, 술, 튀김과자, 술잼, 상화만두, 가자미 식혜 등 다양한 전통 음식을 내놓고 있다.

2층 규모의 술 박물관 1층에는 조상들이 술을 빚을 때 썼던 다양한 도구들과 전통술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지하엔 시음장과 셀러가 있다. 셀러는 자신이 만든 술을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곳을 말한다. 산사원 야외마당에는 대형 술독 50여개가 일렬로 늘어서 있어 이곳이 술 만드는 공장이란 것을 다시한번 알려준다.³⁷⁾

4) 더파크아프리카뮤지엄(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967)

아프리카의 유물, 민속공예품, 음식과 민속공연이 함께하는 박물관이 탄생했다. 1, 2층 전시관에는 왕족, 족장을 비롯해 사냥에 관련된 유물과 악기, 각종 생활용품들이 용도별로 전시되어 있으며 혼례 및 장례 등과 관련된 제례의식 물품과 다양한 가면 250점, 현대조각의 회화 100여 점도 아울러 전시되어 있다. 400석 규모 공연장에서는 서부 아프리카 일대 여러 부족의 토속 춤이 공연되며 문화원 출입구 인근 음식점에서는 아프리카 음식도 맛볼 수 있다.

5) 허브아일랜드(포천시 신북면 청신로947번길 35)

1998년 10월, 허브아일랜드는 세계 각지의 대표적인 허브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야외정원과 실내정원 등이 조성되었다. 현재는 13만평의 부지 위에 허브의 원산지인 지중해의 "생활속의 허브"를 테마로 운영하고 있다. 베네치아, 영쁘띠 빌라쥬, 허브식물박물관(2,000평의 내부에서 340종의 허브 관람), 야외정원, 산속정원, 허브갈비, 아테네홀, 허브힐링푸드, 허브상점, 허브힐링센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허브아일랜드의 가장 큰 장점은 3편청 규모의 세계 최대의 허브식물박물관이 있어 날씨와 상관없이 4계절 내내 340여 종의 허브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³⁸⁾

37) 위의 논문 109쪽.

38) 글 배주희, 사진 김인규, 《도시문제 4월 호- 수도권 관광중심지 포천의 새로운 변화를 보다》, 2015, 40쪽.

6) (포천시 영북면 우물목길 203)

한국 자생식물과 전 세계의 식물 7,000여 종이 전시되어 있으며 동양 최대 규모의 고산식물 전시원 인암석원, 자연생태를 복원한 습지원, 40여 개의 연못과 화려한 꽃들로 구성된 수련원, 자연형 계류를 복원한 이끼원, 사철 푸르름을 뽐내는 잔디 광장 등 12개의 테마로 구성된 종합식물원이다.

7) 유식물원(포천시 신북면 간자동길 138-100)

유식물원은 200,000평방미터의 부지에 아이리스를 중심으로 20여 가지의 테마를 갖추고 있으며, 아열대 온실, 썸머왈츠, 아이리스가든 안에 다양한 식물을 보호·보존하고 있다. 또한 펜션, 오토캠핑을 통하여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전시·공연·체험학습을 통하여 가족연인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보고 느낄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8) 국립수목원(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광릉수목원으로 알려진 생태계의 보고인 국립수목원은 500만㎡에 조성된 산림박물관 뿐 아니라 3,344종의 식물, 15개의 전문 수목원으로 이루어진 인조림, 8km에 이르는 삼림욕장, 백두산 호랑이등 15종의 희귀동물 야생동물원까지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 희귀조인 크낙새 서식지이며 하늘 다람쥐, 장수하늘소 등 천연기념물 20종이 서식하고 있다.

9) 서운동산(포천시 내촌면 부마로 469번길)

서운동산은 1969년부터 조경을 준비하여 1987년 대한민국 관광농원 제 1호로 개관되었다. 죽엽산 아래 40여 년간 조성된 5만여 평의 조경과 수림을 이루고 있는 서운동산은 아름다운 테마정원이 있어 각종 CF 및 잡지, 화보, 뮤직비디오, TV드라마 등에 촬영 장소로 자주 등장하였으며 최근 '사진발 좋은 여행지101'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잘 가꾸어진 정원과 어린이 체험장, 각종 편의시설, 놀이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 있어 휴식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다.

10) 승진훈련장(포천시 이동면 여우고개로255번길 56)

세계최초로 일반에 개방된 육군화력훈련 참관체험으로 광활한 훈련장에서 펼쳐지는 기계화 부대의 기동훈련과 헬기사격을 직접 참관할 수 있는 체험장이다. 군 사정으로 인해 2015년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11) 포천 아트밸리(포천시 신북면 아트밸리로 234)

그림 같은 에메랄드빛 호수, 그 위를 병풍처럼 깎아지른 화강암 절벽! 자연 속에서 예술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예술 공간인 포천 아트밸리는 1990년대까지는 아무도 찾지 않는 폐 채석장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곳이었다.

포천 아트밸리는 바로 이 폐 채석장에서 태어났다. 포천시는 흉물로 자리 잡은 폐 채석장의 환경을 복원하여 자연환경과 문화 예술, 사람이 하나 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2005년부터 복원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8년, 폐 채석장은 포천 아트밸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흉물에서 새로운 친환경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다.³⁹⁾ 특히 2014년부터는 밤하늘에 별을 감상할 수 있는 천문과학관이 개관되어 아이들에게는

39) 위의 책 42쪽.

체험교육의 명소로, 연인들에게는 데이트코스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과거 채석장이었던 곳답게 돌 전시관, 조각공원, 그리고 천문과학관,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문화공간이 있지만 아트밸리의 백미는 무엇보다 천주호이다. 오래전 채석 작업이 이뤄지고 있을 때 화강암을 발굴하기 위해 팠던 대규모 웅덩이에 천연샘물과 빗물이 모여 형성되었는데, 암석을 통해 물이 여과되면서 도롱뇽, 피라미들이 살고 있는 1급수가 되었으며, 기암괴석 절벽사이에 에메랄드 색으로 빛나고 있다.⁴⁰⁾

12)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536번길 7)

슬로프 10개를 갖춘 베어스타운은 스키를 즐겨 타는 사람 뿐 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400m 길이의 눈썰매장이 있기 때문이다. 눈썰매 전용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다시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코스는 짜릿하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미니 눈썰매장도 있다. 알뜰 여행객들을 위해 다양한 할인혜택도 제공한다.⁴¹⁾

2.2.6 포천의 설화와 지명유래

설화(說話)를 글자의 뜻에 따라 쉽게 말하면 ‘이야기’이다. 그러나 아무 이야기나 다 설화라고 하지는 않는다. 설화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민족적 집단의 공동생활 속에서 공동의 심성(心性)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문자 기술(記述) 이전의 구비문학으로,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화 속에는 민족의 역사, 신앙, 관습, 세계관, 꿈과 낭만, 웃음과 재치가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나 역경을 이겨내는 슬기와 용기 등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⁴²⁾

포천시는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설화가 다양하다. 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이 그 나름대로의 지명유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표는 표면적으로 포천은 지리적으로 옛부터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고, 내면적으로는 포천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들 중 한탄강과 연관된 설화는 3장 현지조사 자료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 장에서는 포천에서 내려오는 설화의 전체적인 개관을 설명하고, 한탄강과 관련한 설화를 제외한 그 외 포천의 설화와 지명유래 중 대표적인 것을 선별하여 항목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⁴³⁾

(1) 설화

1) 인물 설화

① 효자 오씨: 포천군 어룡 1리에는 옛부터 보성 오씨들이 많이 살았는데 오씨 중 한 사람이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다. 그런데 그 사람의 부친이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오씨가 약을 구하려고 해도 근처엔 한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약을 구하려면 80리 길을 걸

40) 위의 책 42쪽.

41) 글·사진 김초록, 「열린공간: 여행노트: 포천에서 새해의 기운을 받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12, 109쪽.

42) 이근영·이병찬, 『포천의 설화』, 포천문화원, 2000.

43) 이하의 내용은 『포천의 설화』(이근영·이병찬 편저, 포천문화원, 2000), 『경기북부구전자료집 2』(조흥욱, 박이정, 2001), 『포천군지 上 - 현대사회』, 『포천군지 下 - 문화재와 인물』(포천군지편찬위원회, (주)경기출판사, 1997), 포천문화원 (www.pcmh.or.kr)을 중심으로 발췌 하였으며, 기타 참고 문헌은 해당내용에 따로 표기한다.

어가야 했다. 가는 도중에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길을 가로막고 었드렸다.

놀란 오씨는 호랑이에게

“이놈 내가 지금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약을 지으러 가는데 아무리 미물이라도 못 가게 해서야 되겠느냐!”

라고 호통을 치면서 주먹으로 호랑이의 얼굴을 쳤다. 그리고 나서 오씨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오씨가 때렸던 호랑이는 실물이 아니라 바윗돌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바위를 ‘범바위’라고 한다.

< 대진대 국문과 제1차 답사 자료집(포천읍), 1992. 10. >

② 오성과 한음 관련설화: 오성과 한음은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 그런 중 오성이 약혼을 했다. 옛날 양반들은 약혼하고도 부인될 사람을 못 만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성도 약혼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다.

한음이 오성에게 말하기를,

“네 부인될 사람에게 말을 시키면 내가 한턱을 내고, 말을 못시키면 내가 한턱을 내라.”

라고 해서 오성은 ‘그러마’하고는 둘은 내기를 했다. 오성은,

“그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작대기를 들고 날 때려죽인다고 쫓아만 오너라.”

하니 한음이 작대기를 들고 ‘이놈 때려죽인다’고 하며 쫓아갔다. 오성은 계속 쫓겨가다가 자기 처가집으로 들어갔다.

마침 마루 대청에 서 있던 자기 약혼녀의 치마 속으로 기어 들어가

“부인 나 좀 살려주소!”

하니 약혼녀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여보시오, 약혼을 했으면 걸만 봐야지, 속까지 불랍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오성은 한음과의 내기에서 이겼다고 한다.

< 이인정, 86세, 남, 이동면 장암4리, 1995. 9. 5. >

③ 오성과 한음 관련설화: 오성과 한음은 말쑥꾸러기였고 몹시 짓궂었다. 그렇지만 가장 훌륭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다. 그 중에도 오성부원군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깊었다.

하루는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집에 돌아오니 자기 집 창문에서 큰 보따리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것을 들쳐보니 자기 집에서 가장 귀중한 물건들이었다. 가지고 들어가니, 하인이 한 명 있는데 집에는 그 사람 밖에 없었다.

“자네, 이 보따리는 어떻게 된 일이나?”

고 물으니 하인은 별별 떨면서 말을 못했다.

그 하인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들통난 것이었다.

그 때 오성의 나이가 열 살 안팎이었는데 오성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하인에게 일렸다.

“나도 몰랐던 일로 할 터이니, 이것을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너도 몰랐던 것으로 하라.”

이렇게 오성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포용력과 남을 용서하는 마음씨가 있었다.

< 이현문, 72세, 남, 영중면 금주4리, 2000. 9. 22. >

④ 열녀 유씨부인: 어룡 1리 보성 오씨 문중에 유씨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시집은 지 얼마되지 않아 남편이 죽고, 얼마 후에 한림공을 낳았다. 유씨부인은 공을 들여 한림공을 키웠다. 한림공은 장성하여 혼례 치를 나이가 되었다. 유씨부인은 옆 마을의 참한 규수를 며느리로 맞기로 하였다. 드디어 혼사날이 되었다. 마을 어귀에 신부의 가마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유씨부인은 남편이 일찍 죽어 경사스런 모습을 보지 못함을 슬퍼하면서 문지방에 목을 매어 죽고 말았다. 이 사실을 안 마을 사람들은 유씨부인을 열녀라고 칭송하면서 집 앞에 열녀비를 세워 주었다.

< 대진대 국문과 제1차 답사 자료집(포천읍), 1992. 10. >

⑤ 양문대신(이서구): 옛날 포천에 양문대신이라는 정승이 있었다. 정승은 죽음에 이르러 귀작 두 개를 짜서 봉해 놓고 후에 증손대에 그 귀작을 풀어보게 하였다. 세월이 흘러 증손이 그 귀작을 풀어보니 그 안에는 낫과 호미 밖에 없었다. 이것은 양반이 득세하던 시절에는 일하지 않고 종을 부려먹으면 되었지만, 증손자 시대에는 양반이라 해도 농사를 스스로 지어야 한다는 것을 정승이 미리 내다본 것이다.

< 대진대 국문과 제2차 답사 자료집(군내면), 1993. 10. >

⑥ 궁예왕: 옛날에 왕은 부인을 여럿 두었다. 궁예가 왕이 되니 욕심이 많아져서, 또 한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그 여자는 몇 백년 묵은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한 것이었다. 여우는 사람 고기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러한 여우가 궁궐로 들어오니 그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왕비는 병이 나 드러누웠다. 왕이 용한 의사들을 다 불렀으나 병이 낫지 않았다. 궁에서 그런 일이 나니 이름 좀 알릴까 하고, 별 사람이 다 모여들었다. 한 사람이 '나는 잘 알지는 못하나 맥쫄은 안다'고 하니,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럼 궁중에 가보라'고 하였다. 그가 하는 말이 '병은 아닌데 꼭 사람 고기를 먹어야 나올 병'이라고 하였다. 또 '꼭 열세 살, 열네 살 정도 된 여자아이의 유방을 먹여야 한다'고 하며, '좀 힘들겠다'고 했다. 옆의 사람이 말했다.

"아! 힘들게 뭐가 있어.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뭐가 힘들어."

그래서 왕명이라면서 여자 하나를 빌려다가 가슴을 딱 베어 먹이니 왕비의 병이 나았다. 그리하여 이력저력 여섯 달이 지났는데, 왕비가 또 아프다고 하였다. 이렇게 자꾸 여자아이를 잡아 먹이니, 4.5년이 지나자 사람이 무척 줄게 되었다. 그것도 꼭 열세 살, 열네 살 된 여자아이를 갖다 먹여서, 그때부터 일곱 살, 아홉 살에 시집가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시집만 보내면 잡혀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왕건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다 죽이고 나면 나라가 없어질 것을 염려해 군사를 일으켰다. 이에 궁예가 군사를 데리고 도망을 쳐서 여기에 있는 궁예성(포천군 창수면 중리)으로 왔다. 이 당시에 왕건에게 쫓겨 올라오면서 군사를 많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쌀 씻은 뿌연 물이 왕건 군사가 있는 곳까지 흘러내려 갔다고 한다. 거기에 성을 쌓는 동안에도 왕건이 자꾸 쳐들어오니, 궁예는 성만 쌓아 놓고 그곳에 하루만 머물고는 또 쫓겨 갔다.

왕건이 또 계속 쫓아와서 도망간 데가 운천구에 있는 용해라는 곳이다. 그곳에 있는 울음산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울음산 저쪽에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함) 울면서 한탄을 했다. 그 결과 한탄강이 생겼다고 한다.

왕건은 궁예를 잡을 수 있었지만, 잘못해서 그 사람보다 더 난 사람이 날까봐 죽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추방시켰다. 궁예가 도망갈 때, 남자들은 돌을 쳐다주고 여자들은 돌을 날라와, 사람들이 그 돌맹이를 쌓아놓고 던졌다. 그래서 강원도 복개(철원에서 삼십리 쯤 되는 곳에 위치)라는 곳에서 돌무덤에 묻혀 죽었다.

그런데 왕건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역적이 된 궁예는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었다. 그러저럭 세월이 흐른 후에 고종 때 일본이 을사조약을 맺자고 하며, 만주를 침범해 그것을 나누자고 했다. 고종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해서 을사조약을 맺었다. 이 때 일본이 한국을 빌려달라고 해서, 서로 의형제를 맺은 것과 같으니 승낙을 했다. 그러자 일본은 인천, 부산, 원산으로 군사를 데리고 들어와 무기를 확보했다. 그 뒤에 일본이 서울에서 원산까지 경원선을 닦는데, 철로가 복개를 지나면 길이 조금 구부러지고 능선을 끊으면 좀 가까웠다. 그래서 그렇게 길을 닦자, 일본인이 자꾸 이유 없이 죽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어떤 한 노인이 말했다.

“거기 끊는 데가 어디 있다고. 그 앞에 그래도 일개 왕의 무덤이 있는데, 아무리 역적으로 죽었지만 거길 끊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죽을 수 밖에 없지.”

이 소리를 마을 사람들이 듣고, 그 중 한 사람이 일본인에게 고자질했다. 그러자 순경들이 나와서 그 노인을 붙잡으니, 그는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면서 말했다.

“길을 그렇게 닦지 말고 그 앞으로 다시 재어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야 당신들이 잘 닦을 수 있습니다. 길을 다 닦고서 한 번 제사를 또 지내십시오.”

그 노인이 시키는 대로 돼지를 잡고 제사를 지내고 길을 닦으니, 사고하나 없이 원산까지 철도를 놓을 수 있었다. 기차가 서울부터 개통을 하는데, 복개라는 언덕에 와서는 올라가질 못했다. 그때 다시 노인의 말이 생각이 나서, 궁예왕의 무덤 앞에다 제사를 지냈다. 한번 절을 하고 일어나니까 잔에 부어 놓은 술이 없어졌다. 절하던 사람이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술이 없어지니까, 또 한 잔을 부어 놓고 절을 했다. 그랬더니 또 부어 놓은 술의 반이 줄었다. 계속해서 술 석 잔을 다 올리니 맨 끝의 잔은 그냥 흔들리기만 하였다. 제사를 다 지내고 나자, 노인이 음력으로 시월 보름날이면 잊지 말고 제사를 지내주라고 하였다.

이처럼 일본인에 의해 후대에 와서 궁예왕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궁예왕은 역적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제사를 못 얻어먹고, 일본인이 기차를 개통하는 바람에 제사를 얻어먹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인은 ‘한번 지냈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해, 제사를 지내지 않았더니 또 기차가 가지를 앓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인들은 8·15 해방 전까지 제사를 지내 주었다고 한다.

< 김한길, 남, 창수면 중리, 1995. 8. >

2) 설화

① 용(龍)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기가 없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100일 동안 산제를 지내고 나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나 아기의 모습이 머리는 사람이었으나 몸뚱이는 용이었다.

부부는 아기가 너무나 징그러워서 개천에다 버렸다. 그런데 그 아기는 개천가에 살면서 물

고기를 잡아먹고 자랐다.

그러던 몇 해 뒤였다. 웬만큼 자라난 아이가 제 어머니를 찾아 와서 장가를 보내 달라고 졸라댔다. 하지만 어머니는 될 일이 아니었기에 이것을 거절했다. 그러자 아이가 만약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칼과 불을 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협박을 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어머니도 더 이상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웃에 사는 딸 셋 가진 집으로 찾아가서 청혼을 해 보았다. 그러나 위의 두 딸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마지막으로 막내딸이 허혼을 했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왔다. 첫날밤 신랑은 마당에서 땅재주를 세 번 넘더니, 용의 허물을 벗고 성한 사람이 되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은 먼 곳을 간다면서, 부인더러 자기 허물을 잘 보관해 두라고 했다. 그런데 신랑이 먼 길을 떠난 다음에, 두 언니가 막내 집에 놀러 왔다.

그들은 막내로부터 용의 허물 이야기를 들었다. 두 언니는 막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샘이 나서, 막내를 꺾어 그 허물을 보자하고는 태워 없애 버렸다.

이런 일이 있는 뒤, 막내의 남편은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리다가 지친 막내는 마침내 남편을 찾아서 집을 나섰다. 며칠을 두고 찾아가는데 까치를 만나 남편 있는 곳으로 안내를 받았다. 남편은 바다 속 어느 곳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막내는 남편을 만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으나,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돌아갈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과제를 낼 테니 그 과제를 푸는 여인과 함께 살겠다고 했다. 그 과제는 '호랑이 눈썹 두 개를 뽑아 오기'였다.

이리하여 두 여인은 호랑이 눈썹을 구하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 며칠 뒤 막내딸이 어느 산 골짜기에 들어서자 한 여인이 죽어 있었다. 하도 이상하여 살펴보니 여인은 바다 속에서 자기 남편과 살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막내는 여인이 측은해서 시체를 바로 누이는데, 시체의 가슴에 호랑이 눈썹이 한 줌 묻어 있었다. 그 여인이 호랑이를 만나 눈썹을 빼려다가 되레 그런 변을 당한 듯했다.

막내딸은 우선 그 호랑이 눈썹을 가져다 남편에게 보였다. 그러고는 변을 당한 그 부인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그 후 그들은 다시 만나 살게 되었고,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그 여인의 시체를 잘 거두어 후한 장례를 지내 주었다.

② 삿갓새: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무서운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나 성격이 무섭든지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얼굴도 못 들었다. 뿐만 아니라, 음식도 마음놓고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며느리는 늘 배가 고팠다.

그러던 어느 해 설날이 되었다. 그 집에서는 떡국을 많이 끓였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만은 떡국을 못 먹게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자, 며느리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어서 몰래 떡국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시어머니가 어느새 다시 나와서, 독기가 서린 눈으로 며느리를 쏘아보고 있었다. 며느리는 기절초풍을 하며, 입안에 든 뜨거운 떡국을 꿀꺽 삼키려 했다. 그러다가 굵은 떡 건더기가 그만 목젖에 달짝 붙으며 목구멍을 막아, 그 길로 죽고 말았다.

그 뒤 며느리의 무덤가에는 이상한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울었다.

“떡국 때문에, 떡국 때문에.”

새의 울음소리는 이렇게 들렸다. 그 새는 죽은 며느리의 혼이 새로 태어난 것이었다. 그 새가 바로 오늘날의 삐꾸새이다. ‘삐꾸, 삐꾸’ 울지만, 잘 들어보면 ‘떡국, 떡국’으로도 들린다.

③ 중으로 변한 호랑이: 옛날에 어느 산봉우리에서 한 스님이 자신의 눈썹을 떼어, 임경업의 유령 삼촌에게 주었다.

“이걸로 저 아래를 한 번 보시오.”

이 때 들에서는 보릿철이라 사람들이 한참 논을 매고 있었는데, 유령 삼촌이 눈썹으로 들판을 보니 사람들은 모두 개로 보이고 한 아이만이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자 중이 갑자기 큰 백호로 변해서 들판 쪽으로 달려 내려갔다. 달려오는 백호를 보고 개로 보이던 사람들은 모두 도망을 갔지만, 한 아이만은 낫을 한 번 베고서는 그대로 있었다. 이에 호랑이는 아이를 어찌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도망을 가서 둔갑술로 다시 중이 되었다. 그리고는 삼촌에게 아무 날 아무 일에 그 아이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다.

유령 삼촌이 본 아이는 바로 자신의 조카였다. 그래서 유령 삼촌은 미리 마을로 내려가서, 호랑이가 아이를 죽이지 못하도록 구덩이를 아주 깊게 팠다. 이 때 아이는 아직 엄마의 뱃속에 있었는데, 그 중의 말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이겠다는 것이어서, 그 구덩이에 산모를 넣고는 호랑이를 기다렸다.

시간이 되자, 두 마리의 큰 호랑이가 나타나서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전에 중이 ‘구덩이를 다 파기 전에 아이가 먼저 태어나면 잡아 먹지 못한다’고 했는데, 때마침 아이가 악을 쓰면서 나오고 있었다.

이리하여 결국 호랑이는 아이를 잡아 먹지 못하고 다시 중으로 둔갑을 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중국을 친다’고 하고는 가버렸다.

아이는 자라서 정말 큰 장수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바로 임경업이다. 그러나 땅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앞일을 예측할 능력은 없었다. 때문에 중국 정벌은 하지 못하고, 한국 땅에서만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

<대진대 국문과 제4차 답사 자료집(일동면, 이동면), 1995. 9.>

④ 소의 혼: 추정1리 앞에 지금은 수도원이 있으나 옛날 그곳은 아주 커다란 절이 있는 곳이었다. 그 절에서 탑을 올리고 나서 큰 제를 올리겠다고 하며 마을에 소 여덟 마리를 팔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러겠다고 허락을 하였다.

제를 올리는 날이 되었는데, 절에서 소를 가져가지 않아서 모두가 괴이하게 여겼다. 이미 소삿을 받았는데 소를 끌고 가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던 차에 중이 마을로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가

“소를 가져간다 하더니, 가져가지도 않고 어찌된 일이오?”

하고 물었다. 그러니 중이 대답했다.

“다 잘 썼습니다.”

알고 보니 소는 그냥 두고 그 혼만 끌어다 쓴 것이었다.

<조원식, 79세, 남, 창수면 주원리, 1998. 9. 24.>

⑤ 장난치는 호랑이 이야기: 옛날에 이 마을에도 호랑이가 다녔다. 산을 지키려고 산의 어디든지 호랑이가 없는 곳이 없었다. 산에 숨어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내가 여기 있다’라

는 표시를 꼭 했다.

예전에 이 마을 교회의 전도사가 밤에 능말 동네로 구역예배를 갔다 오는데 호랑이가 숨어서 무서움을 주었다고 한다. 그 때 그 전도사는 어찌나 무서운지 혼쫓이 났다고 한다.

전도사가 그날 밤 구역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한탄강 옆에 있는 집 근처로 개 같은 것이 하나 설렁설렁 내려와서 전도사는 '아마 동네 개가 내려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도랑에 가서 물을 찰랑찰랑하며 '난 벌써 여기 왔다'라는 신호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도사는 그것이 개가 아니라 호랑이임을 알고는 '이게 날 가지고 장난을 하는구나' 하고 집으로 달음질로 뛰어가는데, 가는 길에 집이 한 채가 보여서 그 집에 뛰어 들어가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전도사의 경우처럼 그 마을에는 호랑이가 밤에 앞장을 서고 쫓아다니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사람의 눈에는 잘 띄지 않으면서 산을 지킨다고 한다.

< 이영문, 50세, 여, 관인면 사정리, 1997. 4. 9. >⁴⁴⁾

포천의 설화는 종류와 편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야기 되는 인물만 보더라도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이름 없는 촌부에게까지 이르고 있다. 더욱이 그 주제와 제재도 다채롭고, 어떤 것은 그야말로 기발한 상상력에 바탕을 둔 이야기도 많다. 앞으로 이 소중한 포천의 전통문화 유산을 후대까지 물려주어야 할 특명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인 것이다.

(2) 지명유래

포천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인식되었다. 동시에 분지 지형이라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배여 있다. 때문에 포천의 지명유래는 역사적으로나 지형적으로 독자적인 특징과 그 속에서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포천을 소개할 수 있는 지명의 유래와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하

① 포천의 지명유래: '포천'은 과거에 고구려에서는 마홀군(馬忽郡,)으로, 신라에서는 견성군, 또는 청성(靑城)으로 불렸다. 고려초에는 포주(抱州)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조선조에 이르러서 포천이라는 오늘의 땅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포천의 여러 이름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마홀이다. 마(馬)는 고어로 물(水)을 나타내는 매(買)일 가능성이 크고, 홀(忽)은 성(城) 또는 골(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마홀이란 곧 '물골'이라는 순 우리말을 한자로 변환시킨 것이다. 실제로 포천은 영평천, 포천천을 품고 있다. 결국 '물 많은 고장'이라는 의미의 마홀이 한자어 포천이라는 한자어로 바뀌게 된 것이다.

② 축석령의 지명유래: 포천읍 어룡리는 옛날 부사를 지낸 오백주라는 사람의 고향이었다. 그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다.

어느 해 벼슬로 고향을 떠나 있는데, 고향에 계시는 부친이 중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기별

44) 이상의 내용은 무형문화유산 온라인 지식사전 (www.ichpedia.net)을 참조하였다.

을 받았다. 이 기별을 받고 그가 고향으로 달려오다가, 어느덧 해가 저물어 지금의 축석령을 밤중에 넘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큰 범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으며 으르렁댔다. 오백주는 범을 보자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 못된 것아, 내가 지금 아버님의 병보(病報)를 듣고 달려가는데, 네가 감히 어찌 길을 가로막느냐? 썩 물러서지 못할꼬!”

그러자 범은 말귀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이, 꼬리를 사타구니에 묻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이리하여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오백주는, 부친의 위독한 병을 근심했으나 당장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이었다. 탁발승 하나가 와서, 오백주는 시주를 하며 부친의 병세를 이야기하고, 처방이 없겠느냐고 물어 보았다.

“처방이 있긴 해도 좀 어려워서…….”

“스님,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제발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병에는 생삼에, 바위 구멍에서 친 벌꿀을 구해 이겨서 드리면, 그것이 바로 약입니다.” 그리고는 탁발승은 어디론지 가버렸다. 오백주가 생각하니 실로 난감한 일이었다. 그때가 마침 겨울이라 어디서 생삼을 구하며, 또 바위 구멍에 친 벌꿀을 어찌 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오백주는 그것을 구해 보려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이 골짜기, 저 산등을 헤매어 다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뜻밖에도 간밤에 만났던 큰 범이 오백주 앞에 나타나더니, 쭈그리고 앉아 등에 타라는 시늉을 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래서 오백주가 그 범의 등에 타자, 범은 쏜살같이 달려 지금의 축석령에 이르러 오백주를 내려놓고 어디론지 가버렸다. 오백주는 하도 이상한 일이라 그곳 사방을 둘러보니, 꿀벌 한 마리가 바위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옳지, 저 사이에 벌집이 있는 것이로구나! 이걸 필시 하늘이 도운 것이다.”

오백주는 몹시 기뻐했으나, 워낙 큰 바위라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바위 앞에 꿇어앉아, 벌꿀을 점지해 달라고 그 바위에게 축원을 드렸다.

그런데 얼마 후에 참으로 신기한 이변이 일어났다. 그 바위 구멍으로부터 벌꿀이 줄줄 흘러내렸다. 오백주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무리 보아도 어김없는 벌꿀이었다. 그는 바위를 향해 몇 번이고 절을 하고는, 벌꿀을 받아 모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또한 수소문하여 생삼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어 생삼도 사 왔다. 오백주는 탁발승이 시키는 대로 벌꿀에다 생삼을 이겨 부친에게 드렸다. 그러자 과연 큰 효험이 나타났다. 얼마 후에 그의 부친은 중병을 털고, 거짓말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던 후로, 주엽산(注葉山) 서녘 기슭에서 오백주가 바위에 축원 드린 곳이라 하여, 그곳을 축석령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③ 수원산의 지명유래: ‘수원산’은 포천에 있는 산이다. ‘수원산’이란 이름 때문인지, 수원에서는 사람을 보내어 수원의 산을 빌려갔다면서 포천에 와서 해마다 세금을 받아갔다.

어느 해 포천에 똑똑한 신임군수가 들어왔다. 이제까지 수원에 세금을 냈다는 말을 들은 신임군수는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드디어 수원 사람이 세금을 받으러 왔다. 신임군수는 ‘세금을 달라’는 수원 사람의 말에, ‘이제부터는 산이 필요 없으니 도로 가져가라’고 했다. 이 재치 있는 대답에 놀란 수원 사

람은 슬금슬금 도망을 쳤다.

<대진대 국문과 제2차 답사 자료집(군내면), 1993. 10.>

④ 솔치고개의 지명유래: 포천시 화현면에 ‘솔치고개’가 있는데, 지도에는 ‘송재’라고 나와 있다. 옛날 거기에 솔치주막이 있었다. 장에 갔다 오거나 술을 마시거나, ‘솔치고개’를 넘을 사람들은 이 주막에서 묵었다. 다리가 아프거나 해가 지면 거기서 쉬면서 놀음을 했다. 그게 포천에서 화현으로 넘어가는 길이다.

어떤 분들은 ‘솔치고개’가 아니라 ‘홀치고개’라고도 한다. 사람들이 거기 와 가지고는 놀음을 해서 ‘홀 땀다’, 즉 ‘홀랑 잃고 홀랑 땀다’고 해서 ‘홀치고개’라는 것이다. 그 동네 이름도 ‘솔치’이다.

‘솔치고개’ 밑에서 도둑놈이 소 팔러 가는 것을 보고 있다가, 소 팔고 돌아오는 사람을 도끼로 때려서 돈 뺏고 죽이고 해서 징역까지 살았던 일도 있다.

<이현문, 70세, 남, 화현면 화현리, 2000. 9. 22.>

⑤ 태봉산의 유래: 소흘읍 송우리 서북쪽에 있는 산이다. 예로부터 이곳은 송림이 무성하고 경관이 아름답다고 해서 옥녀봉이라고도 했다. 전설에 의하면 고려 태조 왕건의 소생인 정희왕녀 아지의 태를 태워 재를 매장한 뒤로 태봉이란 이름이 생겨 났다고 하나 확인할 수는 없다. 현재 석대가 남아 있어 옛 태봉임을 말해주고 있다.

⑥ 이문바위의 지명 유래: 이것은 하성북리 반월산성 밑에 있는 바위로 ‘이문 할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성을 쌓기 위해 바위를 앞치마에 담아 날랐는데, 그 바위가 지금의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문할머니를 ‘천태성 마귀할멈’이라고 하여 인간이 아닌 하늘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⑦ 술고개(썩고개)의 지명유래 : 내촌면 오림포 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진목리와 내리 기장대의 중간 지점에 있는 고개로서 진목리와 내리 기장대를 통하는 지름길이다. 옛날에는 이 고개 마루턱에서 서쪽으로 십여 미터를 내려가면 샘물이 있었는데, 물이 아니라 술이 솟아났다고 한다. 그래서 이 고개를 넘어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킬킬한 목을 축일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샘물을 마실 때는 엄격한 규율이 있어, 누구나 마실 수는 있으나 꼭 한잔씩만 마셔야 했다. 그러나 어느 욕심쟁이 술꾼이 규율을 지키지 않고 한 잔을 더 마셨다고 한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술은 썩 들어가고 맹물만 솟아 나오더라는 것이다. 이때부터 이 고개를 ‘술고개’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음하여 오늘날에는 ‘썩고개’라 부르고 있다. 지금도 날씨가 아무리 가물어도 샘물이 끊이지 않아, 오가는 이의 목을 축여주고 있다.

⑧ 이곡리(梨谷里) 마을의 지명유래: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는 본래 포천시 외소면의 지역인데,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므로 배울, 배곡 또는 주곡, 이곡이라 하였다. 이 마을은 원래 마을의 지형이 배(舟)를 닦았기 때문에 배골(舟谷)이라고 하였는데, 뒤에 이곡(梨谷)으로 바뀌었다. 조선조 철종 때 왕이 광릉 세조대왕 능에 참배하러 가던 길에 이곳을 지나게 되었다. 마침 꽃이 피는 계절이라 이 마을에는 배꽃이 만발하였다. 마을의 봄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왕이 마을의 이름을 물었다. 주위에서 배골(舟谷)이라 대답하니, 그보다는 배골

(梨谷)이라 하는 것이 더 어울리겠다고 하였다. 이후부터 이곡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⑨ 마명리(馬鳴里) 마을의 지명유래: 조선시대 세조가 자식이 죽은 뒤 문힐만한 명당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하루는 신하들과 말을 타고 이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때 타고 가던 말이 갑자기 크게 울며, 이곳에서 서쪽으로 3km쯤 떨어진 지금의 광릉으로 달려가서는 우뚝 섰다. 전후좌우를 살펴보니 과연 명당자리이므로 이곳을 능자리로 정했다고 한다. 말이 울던 마을이라 해서 ‘말울이’, ‘말구리’, ‘마명(馬鳴)이라 부르게 되었다.

⑩ 금주리(金珠里)/ 금주산의 지명유래: ‘금주산’이 여기서는 제일 크다. 왜정 때 일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광산을 개발하였다. 그래서 ‘금주리’가 되었다. ‘금주산’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있다.

옛날부터 ‘금주산’에는 ‘금이 아홉 덩이가 묻혀 있다’는 말이 전해진다. 그런데 ‘아들을 아홉을 둔 사람이라야 그 금을 캐 수 있다’고 한다.

이 동네가 원래는 ‘수일동’이다. 물 수 자, 날 일 자 해서 ‘수일동’인데, 물이 항상 가득해서 ‘수일동’이라고 했다. 그리고 ‘수일동’을 그냥 머리자만 따서 ‘무나리’라고도 했다. 저수지 있는 동네를 옛날부터 ‘무나리’, 또는 ‘무내리’라고 부른다.

<이현문, 70세, 남, 화현면 화현리, 2000. 9. 22.>

2) 궁예와 관련된 지명 유래

① 명성산(울음산) / 국수봉의 지명유래(영북면 산정리): 옛날에 궁예 왕이 왕건한테 쫓기게 되었을 때의 일이다. 그 당시에 궁예 왕의 첫 도읍지가 철원이었는데 왕건에게 쫓겨나서 관인면 ‘고남산’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다. 왕건이 그 곳에까지 쳐들어오자 울음산으로 도망을 갔다. 도망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 산에서 국수를 먹고 갔는데, 그 때문에 그 산 봉우리에 ‘국수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 곳에서 국수를 먹고는 또 도망을 갔다. 산정호수 뒷산 중에 ‘울음산’이라고 있는데 궁예는 그 곳에 가서 성터를 쌓았고, 얼마동안 머물렀다. (지금도 그 곳에 가면 성터가 남아 있다고 한다.)

산 이름이 왜 ‘울음산’인가 하면 왕건한테 쫓겨다니는 자신의 신세가 하도 처량해서 궁예가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 곳에서 울면서 지내다가 며칠 못 가서 또 왕건한테 추격을 받으니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다.

궁예를 잡으면 큰 상을 내린다는 왕건의 말에 주민들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워낙 장사이다 보니 멀리까지 던져서 궁예를 맞추었다. 또 얼마나 돌을 많이 던졌는지 그 시체 위에 돌이 터미로 모여 쌓였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돌터미’가 되었다고 한다.

<이예손, 63세, 남, 관인면, 냉정2리, 1997. 4. 9.>

② 패주골(가는골)의 지명유래(영북면 산정리): ‘망봉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은 예전에 궁예가 왕건을 피해 도망한 곳이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에이, 미련한 놈! 소를 앞에서 몰면 되느냐 응? 뒤에서 몰아야지.”

이 말은 황희 정승이 맨 먼저 한 말이었다. 황희 정승이 길을 가다 보니 어느 미련한 사람이 소를 자꾸만 앞에서 몰고 있었다. 그래서 황희 정승이 그 미련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궁예 왕이 '망봉산'에 피신했을 때의 상황에 그 말이 딱 들어맞는다. '망봉산'을 보면 한쪽은 절벽이지만 한쪽은 평평하다. 궁예는 왕건이 절벽 쪽으로 올 것이라 예견하고 그 쪽만 지키고 있었는데 왕건은 반대로 평평한 곳으로 쳐들어 왔다. 그래서 궁예는 뒤로, 뒤로 피난을 가다가 드디어 항복을 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항복문서를 썼다. 그래서 그 곳을 '항서밭골'이라고 부른다. 궁예는 항서문서를 쓰고, '가는골'이라는 곳으로 넘어갔다.

<김익하, 68세, 남, 영북면 산정리, 1997. 4. 8.>

③ 강사골의 지명유래(영북면 산정리): 궁예가 왕건의 군사들이 쳐들어 올까봐 아주 강한 군사를 배치해 놓았다고 해서 '강사골'이다.

④ 설움골의 지명유래(영북면 산정리): 궁예의 군사들이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해서 '서러움골'인데, 이것이 바뀌어서 '설움골'이 되었다.

⑤ 피나무골의 지명유래(영북면 산정리): 궁예의 군사와 왕건의 군사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할 때였다.

어느 마을에서 양쪽의 군사들이 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래서 마을의 나무마다 피가 묻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이 '피나무골'이 되었다.

어린 시절 비오는 날에 몇백 년 된 고목나무 옆에 서면, 고목에서 '아이구 아퍼. 아이구 아퍼'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마을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그 고목나무에 가지 말라'고 하였다.

< 이현문, 65세, 남, 화현면 화현1리, 1996. 9. 9. >

⑥ 보라골의 지명유래(영북면 산정리): 궁예가 '왕건의 군사들이 어디 오나 하고 보라' 해서 '보라골'이 되었다.

⑦ 여우고개(이동면 장암리): 궁예군과 왕건군이 대치하며 서로 여우러침 엿보았던 곳이라고 한다.⁴⁵⁾

⑧ 망봉(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 옆 두개의 봉우리는 궁예가 적의 동정을 살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⑨ 도마치 고개(이동면 도평리): 산세가 험해 궁예군이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전설이 있다.⁴⁶⁾

⑩ 남창동(관인면 초과리): 궁예의 군대가 군량미를 비축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2) 관련된 지명 유래

① 명성산(울음산) / 국수봉의 지명유래(영북면 산정리): 옛날에 궁예 왕이 왕건한테 쫓겨게 되었을 때의 일이다. 그 당시에 궁예 왕의 첫 도읍지가 철원이었는데 왕건에게 쫓겨나

45) 다음 블로그 '남사랑' - 우리동네 지명 (포천 산정호수 일대 - 궁예와 왕건의 싸움 관련 지명) 검색

46) 위의 홈페이지 참조.

서 관인면 ‘고남산’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다. 왕건이 그 곳까지 쳐들어오자 울음산으로 도망을 갔다. 도망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 산에서 국수를 먹고 갔는데, 그 때문에 그 산 봉우리에 ‘국수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 곳에서 국수를 먹고는 또 도망을 갔다. 산정호수 뒷산 중에 ‘울음산’이라고 있는데 궁예는 그 곳에 가서 성터를 쌓았고, 얼마동안 머물렀다. (지금도 그 곳에 가면 성터가 남아 있다고 한다.)

산 이름이 왜 ‘울음산’인가 하면 왕건한테 쫓겨다니는 자신의 신세가 하도 처량해서 궁예가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 곳에서 울면서 지내다가 며칠 못 가서 또 왕건한테 추격을 받으니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다.

궁예를 잡으면 큰 상을 내린다는 왕건의 말에 주민들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워낙 장사이다 보니 멀리까지 던져서 궁예를 맞추었다. 또 얼마나 돌을 많이 던졌는지 그 시체 위에 돌이 터미로 모여 쌓였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돌터미’가 되었다고 한다.

<이예순, 63세, 남, 관인면, 냉정2리, 1997. 4. 9.>

② 패주골(가는골)의 지명유래(영북면 산정리): ‘망봉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은 예전에 궁예가 왕건을 피해 도망한 곳이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에이, 미련한 놈! 소를 앞에서 몰면 되느냐 응? 뒤에서 몰아야지.”

이 말은 황희 정승이 맨 먼저 한 말이었다. 황희 정승이 길을 가다 보니 어느 미련한 사람이 소를 자꾸만 앞에서 몰고 있었다. 그래서 황희 정승이 그 미련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궁예 왕이 ‘망봉산’에 피신했을 때의 상황에 그 말이 딱 들어맞는다. ‘망봉산’을 보면 한쪽은 절벽이지만 한쪽은 평평하다. 궁예는 왕건이 절벽 쪽으로 올 것이라 예견하고 그 쪽만 지키고 있었는데 왕건은 반대로 평평한 곳으로 쳐들어 왔다. 그래서 궁예는 뒤로, 뒤로 피난을 가다가 드디어 항복을 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항복문서를 썼다. 그래서 그 곳을 ‘항서밭골’이라고 부른다. 궁예는 항서문서를 쓰고, ‘가는골’이라는 곳으로 넘어갔다.

<김익하, 68세, 남, 영북면 산정리, 1997. 4. 8.>

③ 강사골의 지명유래(영북면 산정리): 궁예가 왕건의 군사들이 쳐들어 올까봐 아주 강한 군사를 배치해 놓았다고 해서 ‘강사골’이다.

④ 설움골의 지명유래(영북면 산정리): 궁예의 군사들이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해서 ‘서러움골’인데, 이것이 바뀌어서 ‘설움골’이 되었다.

⑤ 피나무골의 지명유래(영북면 산정리): 궁예의 군사와 왕건의 군사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할 때였다.

어느 마을에서 양쪽의 군사들이 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래서 마을의 나무마다 피가 묻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이 ‘피나무골’이 되었다.

어린 시절 비오는 날에 몇백 년 된 고목나무 옆에 서면, 고목에서 ‘아이구 아퍼. 아이구 아퍼’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마을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그 고목나무에 가지 말라’고 하였다.

< 이현문, 65세, 남, 화현면 화현1리, 1996. 9. 9. >

⑥ 보라골의 지명유래(영북면 산정리): 궁예가 '왕건의 군사들이 어디 오나 하고 보라' 해서 '보라골'이 되었다.

⑦ 여우고개(이동면 장암리): 궁예군과 왕건군이 대치하며 서로 여우러침 엿보았던 곳이라고 한다.⁴⁷⁾

⑧ 망봉(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 옆 두개의 봉우리는 궁예가 적의 동정을 살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⑨ 도마치 고개(이동면 도평리): 산세가 험해 궁예군이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전설이 있다.⁴⁸⁾

⑩ 남창동(관인면 초과리): 궁예의 군대가 군량미를 비축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3) 관련된 지명유래

① 왕방산 / 물어고개의 지명유래: 왕방산이라고도 하고, 왕망산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내려오는데 이 조때, 그래 태조 때에 고려말의 충신이 있었는데 나는 임금을 둘을 안 섬긴다고 해서 거기로 피신을 온 걸로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와 계시는데 태조가 등극을 하면서 정치를 논의하러 왔다가 오면서 뭐 왕을 바라봤다고 해서 왕방산이라는 유래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요기에 물억고개, 물어고개가 있다. 그게 태조대왕이 오시면서 물어봐서 거기가 산이 하도 험해서 물러갔다고 해서 물억고개고 물어봤다고 해서 물어고개라고 했다.

② 국사봉 / 말봉산(해룡산)의 지명유래: 옛날에 이 태조는 전국의 명산대천을 다니면서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다.

이태조가 제사를 지낸 것은 임금이 되게 해달라고 명산대천의 산신령에게 빌기 위해서였다. 제사를 지낼 때 이태조는 무쇠말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드렸는데, 무쇠말은 6·25가 지난 후 없어졌다.

이런 까닭으로 '말봉산'과 '국사봉'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말봉산'이라 함은 '말을 봉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국사봉'은 '나라님이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진대 국문과 제1차 답사 자료집(포천읍), 1992. 10.>

③ 용상골의 지명유래(소흘읍 이동교리): 부인터 북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조 태조가 함흥에서 한양으로 가던 길에 이곳에서 묵어 갔다고 해서 임금의 침상이란 뜻으로 '용상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처음 전씨가 들어와 정착했는데, 그 뒤에 전씨의 외척인 김해 김씨가 들어와 살았다. 지금은 그 후손이 번성하고 있다.⁴⁹⁾

47) 다음 블로그 '남사랑' - 우리동네 지명 (포천 산정호수 일대 - 궁예와 왕건의 싸움 관련 지명) 검색

48) 위의 홈페이지 참조.

49) 소흘농협 내고장 지명유래 홈페이지 참조 (www.sohl.co.kr) - 용상골 지명유래 검색

④ 부인터의 지명유래(소흘읍 이동교리): 고려 우왕 때 이성계 장군이 이곳에 전장을 두고 있었는데 첫째부인 한씨(신의 황후)가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⑤ 막골의 지명유래(소흘읍 무봉리): 이성계 장군의 군사들이 경호하고 오는 군사들이 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⑥ 여덟밤이의 지명유래(내촌면 음현리): 태조가 여덟(八)밤(夜)을 보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태조는 남재(개국공신, 1351~1419)와 함께 사냥 구경에 나섰고,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다 지금의 음현리와 팔야리 근처에서 여덟밤을 지내게 되었다. 삼각산이 보이자 속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결국 돌아오게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⁵⁰⁾

2.2.7. 포천과 6·25전쟁

1950년 6월 25일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한민족 간의 전쟁이라는 뼈아프고 비극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6·25전쟁으로 한반도 전역이 쑥대밭이 됐지만, 그 가운데서도 경기도 포천은 치열했던 전쟁의 한복판이었다. 끝까지 고지를 사수하려고 젊은 청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버틴 곳이다. 이 장에서는 그 당시 포천과 치열했던 전쟁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⁵¹⁾

(1) 발발 당시 포천지역의 상황

한국전쟁 당시 포천지역은 북한 제1군단 예하의 2개 사단과 1개 기갑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아군은 서전에 제7사단이 포천과 동두천 부근에서 서전을 치렀으며, 그 뒤 대전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북상한 제2사단이 의정부 부근에서 격돌하였다. 포천지역은 서울의 관문과도 같은 중요한 지역으로서 피아간에 주력이 대결하였던 지역이었다.

(2) 국군의 방어 상황

적의 불법 기습 남침을 당한 포천지역의 국군 제7사단은 예비대 없이 제9·제1연대 병력만으로 포천에서 동두천에 이르는 47킬로미터나 되는 광정면에서 적 2개 사단과 1개 기갑여단을 대적하게 되었다. 특히 포천지역의 경계를 담당한 제9연대는 사직리(기산리 동북쪽 5km)에서 추동리(포천 서북쪽 11km)까지 26km나 되는 방어 정면을 불과 3,400명으로 북한의 1개 사단과 1개 기갑연대를 맞아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더욱이 연대는 사단 방침에 따라 1개 대대만 일선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고, 2개 대대는 38선에서 26km 후방인 의정부 금오리의 연대 지휘소 부근에서 소부대 전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1개 대대만으로 적의 대군과 맞서 싸우게 되었던 것이다.

50) 조선 전국 뉴스 홈페이지 참조 (www.chosun.com) - 여덟밤이 지명유래 검색

51) 이하의 서술은 『포천군지 上 -현대사회』(포천군지편찬위원회, (주)경기출판사, 1997 418~450쪽), 포천문화원 (www.pcmh.or.kr)을 중심으로 발췌 하였다.

1) 제9연대 제2대대 방어 상황/ 7중대지역(양문리 일대의 상황)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불법 남침 시 포천일대에는 국군 제9연대 제2대대만이 본부를 포천 구읍리에 두고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대대는 제7중대를 우일선, 제6중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각각 43번 도로와 38선이 접하는 양문리 일대 및 그 서쪽 소로인 325번 도로가 영평천에 이르는 가양리와 유동리 부근을 경계하고 있었다. 제5중대는 예비로서 4km 후방 신평리(만세교) 부근에 배치하였다. 그러므로 실제 대대의 병력이 배치된 지역은 6km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19km에 해당하는 지역은 391번 도로에 1개 분대 규모의 검색대가 동초를 할 뿐 거의 무방비상태였다.

제2대대는 일선에 제6·제7 양중대를 배치하고, 중화기중대의 기관총 소대를 각각 1개 소대(기관총 1개반과 81mm 박격포 2문)씩 분할 배속시켜 배치를 하였는데, 이 부대배치는 이날 다른 지역보다 조금 이르게 03:40부터 실시된 북한의 공격준비사격으로 기관총 진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병호와 무개교통호가 붕괴되어 버렸다. 북한군은 04:30이 되자 제3사단의 주공인 제7연대가 전차를 앞세우고 43번 도로와 325번 도로를 따라 양중대 전투정면으로 공격해 왔다.

제7중대 정면에서는 적 전차 3대가 양중교(삼팔교)를 넘어 양문교(梁文橋) 부근에서 제1소대 진지에 전차포 사격을 하면서 서쪽 희락사 부근의 소대진지를 공격하였다. 제1소대는 적의 공격에 대하여 병력과 화력을 집중하여 대항하였으나, 북한군의 T-34 전차에 전혀 충격을 주지 못했다. 마침내 1소대는 교전 30분 만에 절반 이상의 병력을 잃었고, 남은 병력은 포천천을 건너 거토리(居士里) 서남쪽의 금화봉 방면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제1소대 거점은 적이 점령하였고, 동 중대는 823고지 서쪽 능선으로 철수하여 공고개에 준비된 방어진지를 점령하려 하였으나, 북한군의 공격으로 1시간도 못되어 만세교로 철수하고 말았다. 한편 일동에서는 일부병력이 북괴군과 접전을 벌이다가 바로 포위되어 분산 철수하였으나, 토성고개에 배치된 병력은 통신이 두절되어 생사여부도 알 수 없게 되고 말았다.

2) 국군 제9연대 제2대대 방어 상황/ 6중대지역(가양리 일대의 교전상황)

제2대대의 좌일선 중대인 제6중대는 가양리 일대에서 경계 근무를 하다가 북한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제6중대장 이인호(李仁鎬) 대위는 영평리에서 가양리를 잇는 무명도로와 325번 도로가 합쳐지는 전술적 요충인 장승거리를 감제할 수 있는 142고지에서 적을 저지할 계획을 세우고, 제3소대를 장승거리 142고지로 철수시켰다.

6중대 지역으로 온 북한군에게 1소대가 사격을 가하자 북한군은 전투대형으로 산개하여 접근하였다. 접전이 길어지자 아군은 탄약이 고갈되고 사상자가 늘어나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려웠다. 마침내 6중대는 삼성당리(三星堂里)로 철수하여 포천 쪽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3) 만세교(160고지) 부근의 지연전

제6·제7양중대가 전차를 앞세운 적의 공격에 힘없이 무너지고 있을 때 12km 후방의 구읍리에 위치한 대대본부에서는 전방 경계진지의 상황을 보고 받고 바로 비상태세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긴장된 분위기에서 적의 공격준비사격이 시작된 지 30분 쯤 후에 5 - 6대의 적 전차가 출현하였다. 2대대 박격포로 적 전차에 사격을 하였지만 적 전차는 전혀 동요되지 않

았다. 오히려 로켓포의 후폭풍으로 아군의 진지가 노출되어 적 전차포 사격으로 아군의 방어진지가 무너지고 전장 이탈자가 속출하였다.

적 전차의 포격으로 아군의 사기가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적 보병부대가 만세교 부근의 160고지 일대를 공격하였다. 제2대대는 적 전차 저지사격에서 이미 탄약의 대부분을 소모하였기 때문에 보병부대와 교전에 사용할 탄약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하여 제2대대는 중화기중대의 철수를 시작으로 하여 소대 단위로 퇴계원 방향으로 빠져 나갔다.

한편 8시가 되자 북한군은 만세교 300m 지점에서 정지하여 바로 전차포 사격을 하여 아군 진지를 위협하였다. 중대에서는 가용한 전화력을 적 전차에 집중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9시 40분 무렵, 만세교를 지나가는 적 전차가 아군에게 목격되었다. 이때 아군의 대전차포 진지에서 고폭탄을 적 전차에 명중시켰다. 그러나 적 전차는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후폭풍으로 노출된 아군진지에 전차포 사격을 퍼부어 아군의 대전차특공대는 산개되고 말았다. 이처럼 적의 전차는 아군의 대전차화기의 사격을 무력화시키면서 포천 쪽으로 계속 남하하였다.

결국 만세교 부근의 지연전은 2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비록 일방적으로 북한군의 전차포에 당하기 만한 전투지만 북한군의 주공을 근 한 시간 가까이 지연시키게 되어 그 동안에 연대주력이 주저항선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

4) 9연대 제1·제3대대의 방어 상황

제9연대장 윤춘근 중령은 4시 30분에 제2대대로부터 북한의 불법남침에 관한 보고를 받고 사단에 보고하는 한편 연대에 비상을 발동하였다. 동시에 금오리에 대기중인 제1·제3양대대는 천주산-가랑산간의 주진지에서 방어하도록 하고, 제2대대는 현 위치에서 지연전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한편 57mm 대전차포 중대와 2.36인치 로켓포 12문은 만세교 부근으로 이동하여 적 전차 저지 사격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때 연대 차량의 상당수가 정비중이어서 수송에 상당한 애로가 따랐다. 수송수단의 부족은 보병부대의 이동도 어렵게 만들었다. 제1·제3 양대대의 병력은 이미 05:30에 탄약과 비상식량을 지급하는 등 출동태세를 갖추었으나, 운송 차량이 2.5톤 트럭 5대 뿐이어서 수송이 어려웠다. 실제 제2대대에 대한 지원은 대전차포 3문과 로켓포 12문에 불과하였다. 결과적으로 제2대대는 4시간 동안 단독으로 고군분투하며 북한세선의 진지를 지키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적 전차부대는 신대 저지선을 돌파하고 탄장으로 들어왔다. 이때 내촌면 부근에서는 유행박 소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가 성공적인 기습으로 북한군의 진격을 일시적이거나 지연시켰다. 이때 대대는 제3중대를 219고지에 매복시키고 1개 박격포반을 그 서쪽 계곡에 방렬하였는데, 마침 신평리 부근에서 적 전차 2대가 출현하자 이를 기습하여 퇴각시켰던 것이다. 이 전투가 개전 이후 국군이 최초로 적 전차를 일시적으로나마 퇴각시킨 것이었다. 적이 퇴각하여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대대는 진지를 보강하며 주력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제1중대와 제2중대를 좌우일선으로 삼아 복록에 배치하는 한편 제3중대는 43번 도로변의 서쪽 진지를 점령케 하면서 그 가운데 1개 소대를 차출하여 219고지 서쪽에 전초를 삼았다. 그리고 중화기 중대는 그 남쪽 계곡에서 지원사격 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같이 진지 편성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제3대대가 도착하였다. 제3대대는 신북대교

서쪽 가랑산을 점령하고, 우일선의 제10중대를 동산 동록, 좌일선의 제9중대를 그 북쪽에 배치하고 제11중대를 가채리 오장동에 배치하여 43번 도로 서쪽에서 연대의 좌일선 진지를 점령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연대는 비록 2대대 병력은 상실하였지만, 천주산을 배경으로 일단 재정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5) 제9연대의 철수작전

국군 제9연대의 주저항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사단본부에서 9연대로 명령이 하달되었다. 명령요지는 연대 주진지인 천주산-가랑산 일대와 예비 진지인 포천 동서 양측방의 청성산-180고지 선에서 적을 저지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는 북한군이 이미 진지를 점령한 뒤였으므로 명령으로서의 의미가 없었다. 더구나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단사령부에 현지 상황을 보고하고 명령을 다시 하달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마침내 연대장 윤춘근 중령은 자신의 판단으로 철수를 결심하였다. 윤춘근 중령은 적이 축석령을 넘기 전에 포천을 동쪽으로 우회하여 광릉을 거쳐 의정부로 철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제1대대장 유항박 소령에게 "현 진지를 이탈하여 광릉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제3대대장 이철원 소령과는 통신이 두절되어 연락을 취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날 오후 5시부터 하늘을 먹구름이 덮어 어두워진 틈을 타 지현리-명덕리-서파를 지나 이날 오후 9시에 내리를 거쳐 팔야리 일대에서 노숙한 뒤 다음날 광릉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이 때에는 의정부마저 이미 적 점령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동남쪽으로 퇴각하여 26일 밤 태릉 육군사관학교에 집결하였다.

한편 제3대대는 통신두절로 철수명령을 접수하지 못한 채 남은 병력으로 가랑산 진지를 방어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의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하여 제3대대는 이날 밤 야음을 틈 타 왕방산 기슭을 따라 회암령을 넘어 덕정 부근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이 낙오하여 다음날 아침 옥정리에 집결한 병력은 10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이 병력들조차 제1연대와 합세하여 의정부로 후퇴하다가 천보산 북쪽에서 적과 조우하여 다시 분산되어 우이동에 집결한 인원은 그 일부에 불과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군 제9연대는 포천 정면에서 북한군 제3사단의 공격을 받아 중과부적으로 전투력을 거의 상실하고 제1대대만이 겨우 잔여 병력을 수습하여 태릉에 집결하게 되었다.

6) 국군 제3연대의 전투참가

6월 25일 상오, 포천 정면에서 제9연대가 고전하고 있을 때 육군본부에서는 포천일대의 전황이 위급함을 알고 수도경비사 예하 제3연대의 급파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수도경비사는 장병 대부분이 주말 외출 중이거나 휴가여서 비상에 돌입한 오전 5시 현재의 영내 병력은 450명에 불과하였다. 오전 11시 까지 비상소집 된 연대의 총병력도 600여명 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제1대대장 임백진 소령과 제2대대장 신언국 소령이 귀대하지 않아 제3대대장 김봉상 소령만이 출동준비를 하고 있었다. 각 중대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여 6개 중대가 중대장은 없고 선임 장교가 지휘하고 있었다. 더구나 혼성 급편 하였기 때문에 병사들은 물론 중·소대장조차 서로 얼굴을 잘 몰랐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제3대대는 지휘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대보다 먼저 편성되어 오후 12시 30분에는 20대의 차량에 분승하여 서빙고의 연대본부를 출발할 수 있었다. 제3대대가 포격으로 불길이 치솟고 있는 포천 서남쪽 2.5km의 자작리 부근에 도착한 오후 3시경에는 이미 제9연대의 주저항선은

무너졌고, 적 기계화 부대는 4시간 전에 포천에 진입하였으며, 적 보병부대도 탄장을 통과한지 1시간이 지난 때로 도로는 피난민과 부상병 호송차량 등으로 메워져 있었다.

한편 제3연대장 이상근 중령은 철수하는 9연대 병력으로부터 적정을 파악하고 송우리 일대에서 급편 방어에 들어갔다. 이 때 현지에 당도한 제1대대장 임백진 소령은 동쪽 2개 중대를 지휘하고, 제3대대장 김봉상 소령이 제11중대를 포함한 서쪽 3개 중대를 지휘하면서 방어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한편 연대장은 북쪽 134고지에 연대 관측소를 설정하고 57mm대전차포 2문을 그 동쪽 노변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연대 통신대장 김성규 중위와 제1대대의 통신소대장 김덕수 소위는 통신망을 구성하면서 방어태세를 보강해 나갔다. 각 중대는 혼합 편성이라든가 대전차 방어책의 불비 등의 취약점이 있고, 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지만, 병력을 조정해 가면서 진지를 계속 구축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후 5시를 전후하여 소나기가 쏟아짐과 동시에 적의 포격이 격렬해졌다. 그리고 전차 7-8대를 앞세운 적 기계화 부대가 연대 방어 정면으로 다가왔다. 송우리 삼거리 부근에서 연대 57mm대전차포 3문이 선두 전차를 사격하여 명중을 시켰고, 제11중대장 이봉근 중위가 지휘하는 2.36인치 로켓포반이 2발을 발사하여 전차에 명중시켰다. 그러나 아군의 사격이 적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데 비해 북한군 전차와 기계화 부대의 화력은 아군을 치명적으로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송우리에서 적 기계화 부대를 저지하려고 했던 아군 제3연대의 방어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아군은 적 보병의 전진이라도 다소 저지해 보려고 하였으나, 보병부대 또한 전차 등 각종 기계화장비와 합동작전을 전개하였으므로 방어 작전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웠다.

마침내 오후 6시 30분이 되어서는 적 보전협동부대의 공격으로 양 대대 진지가 모두 붕괴되고, 병력도 동서 양쪽으로 분산되어 지휘 및 통제가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더욱이 연대장의 위치마저 파악하기 어려워져서 철수작전에도 난관이 따랐다.

이와 같이 제3연대의 송우리 방어작전이 실패함으로써 포천지역은 완전히 적 점령하에 들어가고 말았다.

7) 경찰대대의 전투 참가

포천과 동두천, 그리고 의정부 부근에서 교전이 거듭되자 동쪽의 내촌면과 진접면 일대가 유리되고 말았다. 이 일대는 제7사단의 우측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평상시에는 제9연대의 통제 하에 있었으나, 의정부 일대의 상황이 급박해지자 주력이 의정부전선으로 이동함으로써 이 일대의 방어는 공백이 되고 말았다. 특히 내촌면 내리 일대는 포천과 기산리에서 서파를 지나 퇴계원에 이르는 391도로상의 분기점으로 이 지역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바로 서울 동북쪽에 돌파구가 형성되는 방어상 요충지였다. 그러나 가용한 전투부대는 이미 의정부와 문산 지역으로 차출되어 이 지역에 투입할 병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궁여지책으로 동원한 것이 사관생도와 경찰이었다. 이 결정은 6월 25일 상오 10시에 의정부 일대의 전황을 보고 온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의 결심이 실행에 옮겨진 결과였다.

전방시찰을 한 채병덕 소장은 수도경비사 예하의 제3연대를 제7사단에 배속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중·서부전선에는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으로 하여금 육사 생도대대를 인솔하여 제7사단의 동측방을 방어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이때 학교 내에는 임관을 2주일 앞둔 1기생 263명과 입교 25일이 되는 2기생 334명, 도합 597명의 생도가 있었다. 이 가운데 1기

생의 2/3 정도는 외출 중이었고, 2기생은 전날에 이어 자격기록 사격을 하기 위하여 모두 영내에 대기하고 있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부대편성이 완료되자 오후 4시에 민간차량을 이용하여 기산리 쪽으로 출동하였다.

그런데, 당시 생도대대는 포천이 위급하다는 통보만을 받고 급히 출동하였기 때문에 적정에 관하여 무지하였고, 장비도 부족하여 심지어는 대대장조차 지도 한 장 없는 형편이었다. 더욱이 퇴계원을 지나서부터는 소나기가 쏟아져 이동에 어려움이 따라 부평리(태릉 동북쪽 17km)를 지날 때 벌써 오후 7시가 되었다. 생도대대가 음현리에 이르렀을 때 부대대장 손관도 소령은 피난민들로부터 포천은 이미 적이 점령하였으며 이 지역을 방어하던 제9연대도 철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391번 도로와 326번 도로가 만나는 Y자형 교차로 남쪽 고지(372고지)에 진지를 급편하자고 제의하였다. 이 지역은 서파와 송우리를 연결하는 요지로서 제7사단 작전구역 동측 후방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대대는 여기에서 고지를 점령하고, 제3중대를 동측 능선, 제2중대를 북편 경사면, 제1중대를 서측능선에 배치하고 남쪽에 중화기중대의 포진지를 선정하여 진지 편성을 마쳤다. 그리고 탄약 운반병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병력 모두에게 진지고수 명령을 내리고 내리 부근에는 경계병을 배치하여 야간경계태세를 강화하였다. 이날 생도대대와 적과의 조우는 없었다.

다음날(26일) 생도대대는 일찍부터 진지공사를 실시하였다. 오전 6시에 합류한 경찰대대도 도착과 즉시 372고지 동북쪽의 330고지를 점령하고 진지공사를 시작하였다. 한편 부대대장 손관도 소령은 경찰대대가 합류하여 병력이 증가하였으므로 전투편성을 다시 하였다. 생도대대 기관총 1개반을 경찰대대에 배속시켜 양 대대간의 교차사격이 가능토록 배치하였고, 일부 병력은 속칭 '사기막'부근까지 연장하여 배치하는 등 일련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다.

오후 4시경이 되자 적 1개 대대 규모 병력이 국사봉(547고지) 남쪽을 우회 기동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들은 적 제3사단 제9연대 병력으로서 기동방향은 경찰대대 진지(330고지)였다. 이때 생도대대는 동북쪽 전황을 관측하고 있었는데, 북한군은 박격포와 반전차포 및 기관총 등의 엄호사격을 받으면서 내리 서남쪽의 개활지를 횡단하여 대대 정면으로 쇄도하였다.

이때 생도대대는 사격 개시신호와 함께 전화력을 동원하여 집중사격을 개시하고, 진전 300m에서부터는 최후 저지 사격을 가하여 많은 손실을 적에게 주었다. 그러나 적들은 내리 북쪽의 312고지 부근에서 재정비를 하면서 유탄포를 비롯한 박격포 등의 증강된 지원 화력으로 아군 진지를 위협하였다.

이에 맞서 아군의 박격포 6문이 방어사격에 가담하였으나, 오후 6시를 기하여 북한군은 병력을 추가 투입하여 대대 좌우측에서 공격을 감행해 왔으므로 마침내 동측의 제3중대와 서측의 제1중대 지역에서는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처음 30여분 동안은 수류탄을 서로 투척하는 근접전이 지속되다가 제1중대의 서쪽 진지가 뚫리면서 백병전으로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 전투에서 동 중대 제2소대의 분대장 최성원 생도가 적진으로 뛰어 들어 적 3명을 죽이고 전사하는 등 분대원들의 투철한 감투정신으로 진지를 고수할 수 있었다. 이 전투에서 27명의 사관생도가 전사하였다.

8) 실험과 그 영향

포천이 적에게 점령되고 의정부 전선이 붕괴된 뒤로 그 파급 영향은 거의 전 전선에 미쳤

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좌인접 부대인 제1사단은 임진강을 고수하고 있었으므로, 포천선이 붕괴되자 동측방이 노출되어 그 위협이 증대되었다. 우인접 부대인 춘천의 제6사단과 강릉의 제8사단도 수도 서울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전술적 및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비하여 적은 초전의 승리로 기세가 올라 서울 점령을 목표로 남진을 하는 한편 일부 병력은 6월 27일에 김포반도로 상륙하여 서측방을 위협하였다. 한편 아군은 의정부 전선이 붕괴되자 초비상상태에 돌입하였다.

9) 점령하의 포천

6·25 개전 당일 T-34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불법남침에 변변히 대항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국군이 퇴각하여 포천일대는 적의 점령하에 들어갔다. 그러나 포천지역에서의 전투는 실제로 끝나지 않았다. 바꾸어 말한다면 포천전투는 실제로 적 점령하에서 더 치열하게 전개되었다고 하는 편이 옳다.

적 점령하에서 포천일대의 주민들은 공산치하에서의 생활하기를 거부하여 무력으로 이에 대항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크게 일으켰기 때문이다. 특히 포천 주민들의 일부는 자발적으로 자율적인 유격대를 조직하여 적들의 통치에 맞서 싸워 나갔다.

소리봉 유격대와 독수리유격대 등 포천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유격부대들은 적 점령하에서 적의 정보를 차단한다든지 교통을 혼란시킨다든지 하면서 적 후방을 교란시켜 적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포천인들에 의하여 포천 수복 전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한편 낙동강 방어선까지 물러갔던 국군은 재정비를 마치고 반격을 시작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다부동 전투에서 치열한 방어전을 승리로 이끌어 그 여세를 몰아 적들의 남진 의지를 좌절시키는 데 공헌하였으며, 총반격작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때 포천지역은 제7사단이 점령할 지역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8월 20일 대구에서 포항전투 사령부를 모체로 재편성된 한국 제7사단은 구성병력의 태반이 신병으로 충당되어 있었다. 제7사단은 1950년 7월 4일 육군 전력정비계획의 일환으로 해체되었으나 국방부분부 일반명령(육) 제49호(1950. 8. 20.)에 의거 재편성된 것이다. 9월 19일까지 경주에 집결 완료한 제7사단은 군 예비대로서 추격 작전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군 제2군단에 배속된 제7사단은 9월 25일 출발한 이후 안동·예천·문경·수안보·충주·장호원·이천·광주를 거쳐 10월 7일 서울(돈암동)에 집결하였다 13일간에 걸친 장거리 이동 기간 중 제7사단이 치른 전투는 점촌과 횡성부근에서 가벼운 교전 밖에 없었다. 즉, 군 예비로서 직접 압박부대가 우회한 적을 포위 격멸하는 작전은 단 한번도 시도하거나 펼쳐 보지 못했던 것이다. 다음날(8일) 포천으로 진출한 한국군 제7사단은 평강으로 진격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3) 유격대와 그들의 공적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포천지역에서는 국군이 최선을 다한 방어 작전을 전개하였으나, 북한의 전차를 앞세운 기계화 부대의 위력으로 이렇다하게 성공적인 결과를 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포천 지역에서는 향토와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이 무장 봉기하여 적 치하에서 일당천의 기상으로 이 지역이 다시 수복될 때까지 많은 전과를 올리고 적을 교란하였다. 포천지역에서 활동하였던 민간조직으로 대표적인 활동을 한 단체는 소리봉부대와 독수리 유격대가 있다. 이들은 모두 애국심에 불탄 청년들이 동지애로 뭉쳐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던 단체들이었고, 열악한 장비와 보급을 무릅쓰고 육탄으로 적의 정규군에 유격작전으로 맞서 싸운 사람들이었다. 이제 이러한 위국헌신을 몸소 실천한 대표적인 부대와 그 소속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蘇利峰) 부대

포천이 적 치하에 떨어진 1950년 7월 중순경, 소흘면 대한청년단 간부와 애국단체 요원, 그리고 방위장교, 공무원 출신 등 북한의 숙청대상에 해당되는 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소리봉으로 입산하였다. 이들은 이곳에서 대한광복단(大韓光復團)이란 기치 아래 소리봉유격대(가칭)를 조직하고 3일 후에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는 소총 7정과 실탄 수백 발 밖에 없었지만, 이들은 애국, 애족, 애향이라는 강령을 내세우고 정신적으로 굳게 무장하였다.

2) 독수리 유격대

독수리유격대는 1950년 9월 28일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된 후 구국일념에 불타는 포천의 청년들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구성되었다. 구성원들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포천경찰서와 7사단 9연대 또는 육직 정규부대의 지원을 받아 38선 이북에 침투하여 정보수집과 작전을 수행하였던 서북청년단 소속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후방지역으로 일시 후퇴하였다가 9·28 서울 수복 후 귀향하여 동년 11월경 지역 청년을 증원하여 간부 5명, 대원 58명, 계 63명으로 편성된 조직적인 단체로 정비되었다. 독수리 유격대는 당시 국군의 북진작전이 성급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수복지역인 포천의 치안과 질서 유지가 다소 소홀하여 잔적의 준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적을 소탕을 하는 한편 향토 치안 유지에 힘썼다.

그러나 갑작스런 중공군의 개입은 상황을 크게 변화시켰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혜산진, 초산까지 진격하였던 국군이 후퇴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포천지역으로는 아군의 보병 제2사단 17연대 1대대가 철원을 거쳐 일동면 화대리로 철수하여 주둔하고 있었는데, 독수리 유격대는 그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제1대대 부대대장 김영필(金永弼) 대위에 의하여 작전에 자주 동원되어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러한 가운데 중공군의 공세로 아군의 후퇴가 불가피해지자 독수리 유격대는 국군과 함께 청평, 양평을 거쳐 충북 충주시 목행동(당시 충북 충주군 중주읍 목행리)까지 철수하였다. 그런데 이때 김영필 대위가 소령 진급과 동시에 32연대 3대대장으로 부임해 가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김영필 대대장은 자신이 1대대 부대대장으로 재임시 함께 작전에 참가하여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하였던 독수리 유격대를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3대대에 소속시켜 작전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큰 비극을 불러왔다. 17연대 1대대에서는 독수리유격대가 같은 사단 32연대 예하의 3대대에서 전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수리유격대원들을 도망병으로 간주하여 간부 5

인을 총살시키고 나머지 병력은 보급품과 장비를 압수한 채 쫓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자 독수리 유격대는 다시 32연대 3대대를 찾아가 그 소속원이 되어 최전선에서 싸울 것을 청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그 전에는 유격대 활동을 하면서 정규부대를 지원하였으나, 이번에는 현역들과 함께 직접 전선에 투입되었다. 독수리유격대원들은 의성, 청송, 안동, 예천, 풍기, 제천, 단양 등지에서 북한군 10사단과 대치하여 전과를 올리고, 또 공비토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많은 공을 세웠다. 이렇게 전투를 수행하며 전공을 세운 독수리 유격대의 공적은 63명의 대원 가운데 16명이 전사하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도 높이 평가할 수가 있다.